

세계유산연구

Journal of World Heritage

제 1호 201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특징과 전망	최재현, 김숙진 / 1
역사항구 북항의 산업유산적 가치 분석	박능재, 강동진 / 13
세계유산 웹사이트 내용분석 및 제언	조 아 라 / 27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지역연계 테마관광루트 구상	홍 현 철 / 37
세계유산 보존원칙에 있어 복원과 재건에 관한 연구	조 두 원 / 47

세계유산연구 창간호에 부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그리고 종묘가 1995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니 2015년은 한국의 세계유산등재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두 번의 성상을 맞으면서 한국의 세계유산의 등재 유산수도 12개가 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산 등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유산의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거기에 걸맞은 학문적 바탕과 노력을 해 왔는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를 중심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유산 분야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유산 분야에 맞는 논문을 편하게 실 수 있는 전문화된 학술잡지 하나조차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한국의 세계유산이 12개가 넘는 시점에서 앞으로 세계유산제도와 관련하여 차별화된 접근방법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한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에 등재된 유산을 지칭하며, 2015년 말까지 그 수가 1031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유산 가치에 대한 심화 연구와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원칙들이 다양한 경로로 논의되고, 자국 유산의 특수성을 세계유산이 가진 보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학술적 시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유산 등재뿐 아니라 등재이후에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서 보호와 관리를 위해 탄탄한 학제적 토대위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세계유산 전문가를 길러낼 수 있는 토양 마련이 필요합니다.

건국대학교에서 2014년 9월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유산학과를 학과간 협동과정으로서 신설하고 석·박사과정을 운영하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원을 인큐베이터로 하여 세계유산연구소를 출범한 것도 뜻깊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과 신설을 축하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키쇼 라오(Kishor Rao)소장님

이 내방하여 세계유산의 보존에 대한 특강을 해주신 것은 세계유산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건국대 세계유산학과와 세계유산연구소는 세계유산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작지만 큰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다양화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국내 세계유산 전문 인력을 응집시키고 등재와 활용, 보존을 위한 전문가 학술 네트워크의 큰 장을 마련하여 한국을 넘어선 세계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유산연구'의 창간호는 세계유산 분야의 전문지식을 집결시킬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나 세계유산연구가 국내외 전문 학술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먼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거듭나야하고, 또 국제저명저널의 반열에도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또한 학술잡지를 넘어서 세계유산의 새로운 조류를 소개하고 여러 세계유산에 대한 심층해부와 전문가 사이의 공론의 장도 되어야 합니다. 창간호를 발간하기 위해 건국대 국제개발협력원의 민상기 원장님의 지원이 컸고 발간을 위해 김숙진 교수님이 많은 노력을 보태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세계유산 연구자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투고,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창간호에 대한 인사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최재현

- 건국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 세계유산연구소 소장
-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교수
-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주임교수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특징과 전망

최재현* · 김숙진**

Institutional Framework of World Heritage and Its Prospect

Jae-Heon Choi* · Sook-Jin Kim**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제도의 배경과 제도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세계유산협약의 실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을 살펴보면 세계유산제도는 고도의 의사결정과정으로서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센터, 당사국, 자문기구 등이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자로 활약한다. 세계유산 등재는 국내 절차와 국제 절차로 나누어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며, 운영지침에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참여, 지속가능성, 균형 있는 세계유산 목록 유지, 보존관리 모니터링, 업스트림 프로세스 등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으며, 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에서의 국제적인 전문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주요어: 세계유산 등재 절차, 세계유산위원회, 역량 강화

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its background of UNESCO World Heritage. World Heritage nomination is defined as a highly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composed of different players including World Heritage Committee, World Heritage Center, State parties, and advisory bodies in its Operational Guideline implementing for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nomination process of World Heritage can be featured in both domestic procedure and international procedure shown in the Operational Guideline. Recent issues are including local community involvement, sustainability, creation of balanced WH list, monitoring of state of conservation, and upstream process,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capacity building in nomina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Key Words: World Heritage Nomination, World Heritage Committee, capacity building

1. 서론

최근 일본이 메이지시대의 산업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면서 23개 중에서 8개가 넘는 사이트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강제징용이 이루어진 곳임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이 한·일간의 역사적 진실성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면서 한국정부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중국도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서고, 국제적으로는 독일을 중심으로 위원국들이 양국 간의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즉, 세계유산은 단순히 평화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화유산의 개념에서 벗어나 국제정치 속에서 각국마다 자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과시하고 자국의 정체성 강화를 시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백제역사지구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International Committee on Monuments and Sites)로부터 등재권고를 받으면서 2015년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남한산성에 뒤이은 12번째 한국의 세계유산으로 등

* 건국대 이과대 지리학과/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교수(Professor, Geography Department, College of Science / World Heritage Program,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choijh@konkuk.ac.kr

** 건국대 이과대 지리학과/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교수(Professor, Geography Department, College of Science / World Heritage Program,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sjkim@konkuk.ac.kr

재되었다. 신문에서도 자주 세계유산 등재 열풍을 짐작하게 하는 기사가 종종 실리고 있지만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 조차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즉, 한국에서는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학문적인 제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유네스코 지정유산과 세계유산 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9월부터 건국대 대학원에서 최초로 석·박사 과정을 개설한 것이 세계유산학과의 효시이니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셈이다.

세계유산 제도는 세계유산 등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까지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절차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nternational Committee on Monuments and Sites), IUCN(세계자연보존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CCROM(국제문화유산보존복원센터: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전문가들이 실사를 진행하는 전문가 참여, 그리고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위원국들 간의 정치적 타협이 고도의 국제정치학적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다. 즉, 세계유산은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수정되는 일련의 제도적 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제도적 과정으로서 세계유산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알아보고, 현재 세계유산의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유산의 정의와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세계적 수준에서 세계유산의 등재 절차와 이에 따른 파급효과, 그리고 최근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추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본 문

1)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탄생 배경과 정의

세계유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Cultural Organization)는 정부 간 기구로서 평화와 인권, 다른

문화 사이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래는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서 제창된 것으로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보편주의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UN보다는 1936-1946년 사이에 활동한 유럽 기구인 ICIC(Inter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Co-operation)를 근간으로 한다. 유네스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의 상실감과 적대감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과 문화적 다양성, 상호 이해를 통하여 평화를 추구하고 인류의 의식체계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목표로 삼고 있다. 태생적으로 살펴볼 때 문화적 다양성과 소수자의 생활방식에 대한 보호와 문화 영역에서 미래 비전을 갖추고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는 유네스코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산은 세계유산(World Heritage) 이외에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이 있다. 그러나 이들 셋은 탄생배경이 서로 다르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유산은 ‘세계유산협약’을 근간으로 하는 정부간 협약인 것에 반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처음에는 유네스코의 일반사업으로 출발하여 2009년부터 무형유산협약이라는 국가간 협약에 따라 대표목록을 선정하면서 정부간 협약사업이 되었다. 반면, 세계기록유산은 1992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개인이나 단체, 국가를 막론하고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일반사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등재가 쉬운 셈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에 백제역사지구가 등재되면서 12개의 세계유산과 함께, 18개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기록유산으로 우리나라는 11점을 등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은 1972년 21개국이 ‘세계유산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체결하면서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가치에서 중요한 유산의 목록을 만들고, 이것을 세계유산 사이트 목록(World Heritage Sites List)이라고 명명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유산협약은 정부간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으므로 운영 지침(Operational Guideline)을 만들어 매년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필요가 따라 수정이 이루어

진다. 세계유산협약은 21번째 국가가 협약 비준을 시작한 1975년부터 실효성을 갖추고 2015년 7월 현재 1031개가 등재되어 운영되고 있다. 세계유산과 관련한 중요한 개념과 절차들은 모두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에서 정의되어 있다. 먼저 세계유산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한다.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은 건축물, 조각이나 회화, 동굴벽화 등과 같은 기념물, 고고학적 유적이나 구역, 또는 문화경관을 의미하는 유적, 그리고 독립적이거나 연속한 구조물을 나타내는 건물 군으로 구성된다. 즉, 세계유산은 기념물이나 유적이 되는 것이지, 유물 중심이 아니다. 한편,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은 생물 서식지, 자연경관, 자연기념물 등을 의미하며,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결합된 유산이다.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세계유산의 등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1개의 이사국이 있으며, 각 이사국의 임기는 4년이다. 한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3년을 주기로 매년 7개의 이사국을 유네스코 총회에서 선출한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기능과 목표는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당사국의 협조를 얻어 세계유산의 잠정목록과 목록의 운영,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여부 결정,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 결정, 세계유산기금의 확보와 원조국 결정 및 운용, 유산의 보존을 통한 활동, 2년마다 유네스코에 활동 보고, 세계유산협약의 이행 여부 감사, 운영지침의 개정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목록의 신뢰성(Creditability) 강화, 세계유산의 보존(Conservation) 상태 개선, 당사국의 효율적인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소통(Communication)을 통한 대중적인 인식 제고, 세계유산협약의 실행을 위한 공동체意識(Community) 강화라는 5C로 대표되는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1992년부터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가 파리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무국의 역할은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전문적인 조언과 함께 위원회의 안전과 의사결정을 위한 문건 작업, 세계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유산의 보존상태 모니터링, 자문기구의 실사결과 보고, 세계유산위원회

에 사무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세계유산협약에서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재로 세계유산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재원이자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써 세계유산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계유산 기금은 유산의 조약국의 의무조항이기도 한데 각국의 분담률은 특정 국가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전체 금액에서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넘어선 기금은 해당국가의 이름을 붙여서 따로 운영한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기금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유산 보존을 위해 필요한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세계유산 등재로 인하여 개발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유적을 보호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유산인 이집트 기자지구 피라밋을 관통하려고 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다른 곳으로 우회시키고, 멕시코의 회색 고래의 서식지 인근의 소금 광산 개발을 막았으며,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 위를 가로지르는 댐 건설 계획을 취소시킨 일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중요한 자문기구로는 ICOMOS가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비정부기구로서 1964년 베니스헌장(Venice Charter)에 근거하여 1965년에 설립되었고, ICCROM은 1956년에, 그리고 IUCN은 1948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ICOMOS는 문화유산의 실사와 평가를 맡고 있고, IUCN은 자연유산의 실사와 평가 그리고 ICCROM은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2) 세계유산의 등재 조건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면 세계유산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추는 것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이나 특정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희소성을 의미하기보다는 한 국가의 국경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보편성을 띠는 가치를 의미한다. 운영지침에서는 세계유산의 등재기준을 다음과 같이 10개로 제시하고, 세계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 중 최소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등재기준 (i)에서 (vi)번은 문화유산과 관련한 기

〈표 1〉 세계유산의 등재기준과 사례

기준(criteria)	정 의	대표적 등재사례
기준 (i)	인류의 천재적인 작품	프랑스의 Pont du Gard (로마시대 수로)
기준 (ii)	한 문화권내에서 인류의 중요한 가치 교환의 증거	피지의 Levuka Historical Port 등
기준 (iii)	현재나 과거의 문화 전통의 예외적인 증거	이테오피아 Harar-Walled city
기준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발달 단계를 나타내는 것	자바섬의 Prambana Temple
기준 (v)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의 증거	미국 뉴멕시코의 Taos Pueblo 전통취락
기준 (vi)	1-5번 기준과 연결되어 무형의 중요한 가치에 대한 증거	중국의 진시황릉의 병마용
기준 (vii)	최상의 자연미나 자연현상	제주도 용암동굴계
기준 (viii)	지질학 및 지형학의 주요 사례와 탁월한 증거	갈라파고스
기준 (ix)	생태학적 과정을 나타내는 증거	알프스 융프라우 알레치
기준 (x)	생물 다양성에 대한 증거	호주의 대보초

준이고, (vii)번에서 (x)번은 자연유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갈라파고스 섬이나 호주의 대보초(great coral reef) 등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등재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진술문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는 ‘우리 것이 최고야’하는 태도로 독특성에 대한 세밀한 정당성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문화의 교차로’, ‘독특한 유적’ 등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다. 또한 유산 자체의 질적인 가치에만 치우쳐 고유성만을 강조하거나, 지역적 국가적인 중요성과 상징성에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잘못 해석하는 사례이다. 또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 모든 가치를 망라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적절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진술문은 문화유산의 경우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등재의 필요성에 대한 조화로운 설명과 함께 너무 광범위하거나 지엽적인 특정 대상에 치우치지 말고 초점이 분명해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밝히기 위해서 등재신청서에서 요구하는 항목은 적절한 지구적, 지리적, 문화적 틀 속에서 비교 연구(comparative analysis)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유사한 유산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다른 유산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그 유산이 어떤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둘째 조건은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충족하는 것이다. 진정성이란 ‘베니스 헌장’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한 정보 출처에 유산가치가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진정성은 진실성과 신뢰성을 의미하고 있다. 1994년 일본 나라에서 진정성에 대하여 정의한 나라 문서(Nara Document)에서는 진정성을 표출하는 항목으로 형태와 디자인, 자재와 구성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기술·관리체계, 입지와 주변 환경, 언어와 다른 비물질적 전통, 정신과 감정 및 기타 내외적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태와 디자인은 변화와 변화 정도, 디자인과 형태의 정확성, 변화 자체가 가치인지에 대한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자재와 구성 물질은 자재의 대체정도, 수리나 복원의 원형과의 유리 정도로서 나타나며, 용도와 기능은 관련 대상의 변화 정도와 원인을 설명하고, 그 바탕이 되는 사회적 체제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전통, 기술, 관리체계 항목에는 유산을 유지하는 사회적 메커니즘, 변화 여부와 정도, 이유, 수리 여부와 관련성 및 정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입지와 주변 환경에 대한 항목에는 환경 변화 여부와 정도에 대한 서술과 경계 획정에 대한 서술이 포함된다. 언어와 다른 형태의 비물질적 전통의 항목에는 지역 공동체와 관련한 변화와 유산과 관련한 사회적 기제, 지역공동체의 특성과 위협 요소 등이 포함되어 설명된다. 정신과 감정 및 기타 내외부 요인들에는 유산과 관련한 가치의 주체가 누구인지, 유산의 상태 변화와 정도, 유산의 쇠퇴 여부, 이를 둘러싼 사회 메커니즘과 이해당사자가 되는 집단의 특성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성을 구성하는 항목은 세계유산위

원회에서 개정의 대상이기도 하다. 독일의 본에서 개최한 제39차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진정성의 조건에 규모(mass and scale), 색채와 재질(color and texture)이 포함하도록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또한 완전성은 문화유산과 그 속성이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전체적인 특징을 유지하는지를 의미하는 온전성(wholeness)과 파괴와 훼손을 받지 않은 무손상성(intactness)을 의미한다, 또한 완전성에 대한 서술에는 유산 가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유산구역에 포함하는지,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적절한 규모인지, 무관심과 개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는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호 및 관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세계유산의 등재에서 보존관리체계는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보호 관리 요건에는 유산 보존 상태를 분석하고,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경계를 확정하며, 위협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책을 제시하는 항목이 포함된다. 보호 관리체계를 증명하는 항목으로는 법령, 조례 등 법적 제도적 관리제도와, 종합정비계획, 일상 관리체계, 소유권, 관리 자원 조달과 예산 집행 현황, 전문가 활용 및 보존 관리를 위한 교육 상태, 방문객 시설과 인프라, 유산의 활용을 위한 제반 정책과 프로그램, 관리 전문가의 수준, 유산에 대한 기록화 실적, 사진 및 시청각 매체 자료, 이해 당사자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최근 세계유산 등재에서는 유산이 지역주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 정도와 함께 경관의 조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등이 더욱 중요하게 여기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객관적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3) 세계유산의 등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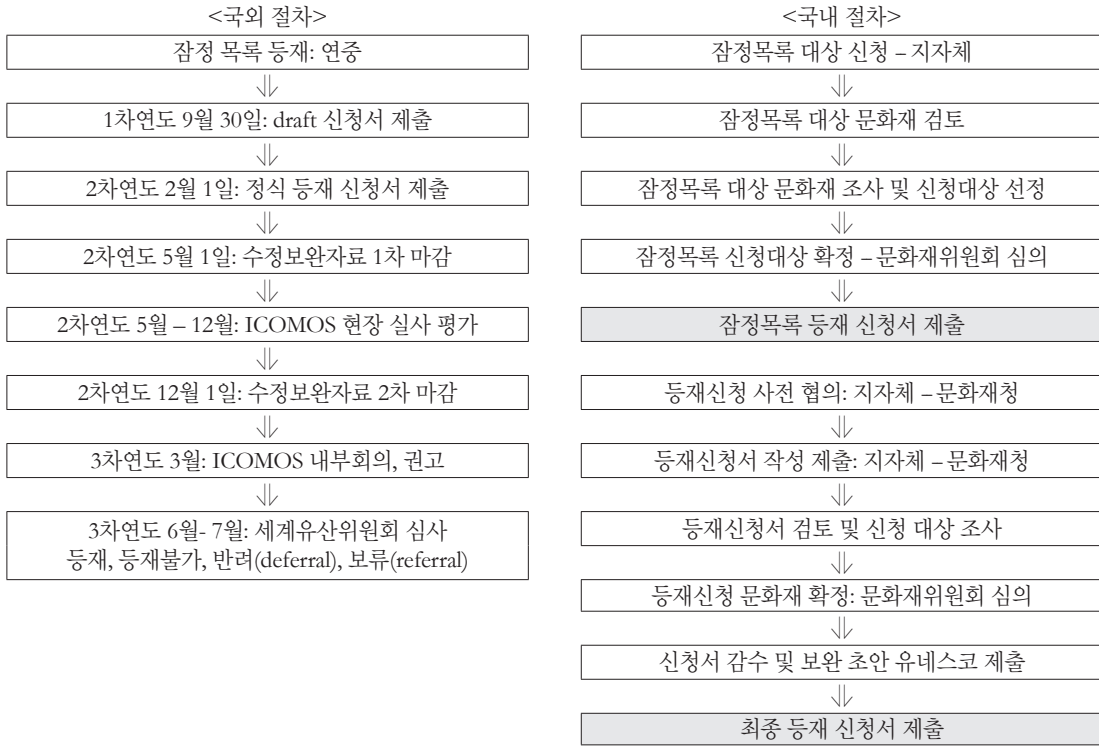
세계유산 등재 신청은 국내적인 절차와 함께 국제적인 절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국내적인 절차를 보면,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은 당사국 정부가 하도록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운영지침에 따르면 세계유산으로 등재신청에 앞서 최소한 1년 이상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의 등재를 담당하는 주무 기관이며 국제협력과가 세계유산의 등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계유산의 등재 이전에 잠정 목록 등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연중 수시로 등재 가능하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는 최소한 5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작업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초 연구와 등재 신청서 작성에 최소한 2년이 소요되며, 세계유산센터에서 규정한 형식을 따라 영문으로 등재신청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매년 2월 1일까지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다. 이어서 같은 해 6월에서 9월 사이에 자문기구의 현지 실사 및 평가를 받으며, 이듬해 6월 경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ICOMOS와 IUCN으로 대표되는 자문기구의 실사와 이를 기초로 한 권고 사항에 따라 등재가 결정된다(표 2).

국제적인 세계유산의 등재 절차를 살펴보면, 한 국가는 매년 자연유산 1개, 문화유산 1개, 최대 2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경관의 경우에는 문화유산 1개와 더불어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심사는 매년 선착순으로 접수한 45개 유산에 한하여 실시되며, 심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세계유산 미등재국이 신청한 유산이 가장 우선순위에, 이어서 3개 이하인 국가의 유산, 이전 해에 45개 순위에 들지 못했던 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초국경 유산, 아프리카 태평양 카리브 해 국가 유산, 협약을 비준하지 10년이 안된 국가의 유산, 등재신청서를 6년 이상 제출하지 못한 국가의 유산, 등재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는 그대로 놓아두더라도 재정 문제를 고려하여 매년 심사하는 유산수를 25개로 축소하고 심사비용을 당사국이 부담하는 방안을 작업 그룹(working group)을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접수한 이후에는 문화유산의 경우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서류검토(desk review)에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존재 유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실사(technical mission)에서는 주로 보존관리 상태와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다. 자연유산의 경우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이 심사를 담당한다. 심사 절차는 자문기구에서 OUV에 대한 서류 검토, 그리고 보존관리체계 실사자 보고서를 거쳐 자문기구의 세계유산 패널 회의에서 권고안을 결정한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를 거쳐 세

〈표 2〉 세계유산 등재 절차



계유산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사 결과는 등재권고(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 불가(not inscribed)의 4가지로 제시된다(WHC.10/34.COM/INF.8B4) 보류(refer)의 의미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사국이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다음 해에 다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려(defer)의 경우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등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규로 실사 등의 등재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등재 불가의 경우에는 세계유산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유산으로 다시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잠정 목록에서도 삭제하여야 한다.

세계유산의 등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매년 6월경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 21개 이사국의 논의와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인 고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이렇게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을 지

키지 않고 등재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근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작업그룹을 만들어 위원국으로 선출된 국가는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의제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표 3). 일반적으로 세계유산위원회는 6월이나 7월에 10일 정도 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21개 위원국이 모두 참석하여 세계유산과 관련한 의제를 심도 있게 다루게 된다. 의제는 크게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의 활동 상황 보고, 세계유산의 국가 간 균형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과 같은 현안의 보고, 세계유산과 관련한 교육기관 등을 포함하여 제 2범주에 속한 기관 보고, 세계유산의 보존 상태에 대한 보고와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 등재 여부 결정을 위한 세계유산 목록의 심사와 등재, 그리고 가장 대중적 관심을 받는 신규 세계유산목록 등재 심사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세계유산 목록의 지역 간 균형과 개발도상국과 미등재국의 세계유산 등재를 지원

〈표 3〉 세계유산위원회의 주요 의제

항목	내 용
5	세계유산센터 및 자문기구 보고
5A	세계유산센터 활동 및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사항 이행현황 보고
5B	자문기구 보고
5C	유네스코 사무총장 주재 세계유산협약 Think ahead 후속조치
5D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5E	글로벌 전략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
6	세계유산 카테고리 II 센터 경과 보고
7	세계유산의 보존 현황
7A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의 보존상태
7B	세계유산 목록 유산의 보존상태
8	세계유산목록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
8A	잠정목록
8B	세계유산목록 심의
8B3	당해연도 접수된 등재신청서 검토 결과 보고
8D	세계유산의 소급 인벤토리 및 경계 수정
8E	소급 OUV 진출문 채택
9	대표성, 신뢰성, 균형감 있는 세계유산목록을 위한 글로벌 전략
9A	업스트림 프로세스 진행 보고
9B	복합유산 등재과정에 대한 고찰과 보고
10	정기보고
10A	유럽지역 2차 정기보고 최종보고와 실행 계획
10B	기타 전지역 2차 정기보고 최종보고와 실행 계획
11	잠정의제: 운영지침서 개정
12	잠정의제: 정책 지침에 대한 경과보고
13	평가 관련 권고와 작업 방법에 대한 감사 후속 조치
13A	평가 작업방법과 세계유산 등재 의사결정 과정: 특별 보고서
13B	세계유산위원회 추가 정기세션 개최 타당성 연구
14	세계유산 기금 운영 검토

출처: <http://whc.unesco.org>

할 수 있는 세부지원(upstream process)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정기보고(periodic reporting)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보고와 유산경계 변경에 대한 심의, 세계유산기금의 운영 보고, 운영지침의 개정 등이 논의된다(표 3).

4)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제도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이 2014년에 1,000개를 넘으면서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보존과 보호에 대한 관

심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세계유산은 등재 이후 유산의 보존 상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정기모니터링과 대응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보존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거나 보존 상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하고 있다.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등재되거나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는 것은 당사국에는 수지로 남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각국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에 대한 관리에 노력할 수밖에 없다.

세계유산의 보존 상태에 대한 국제적인 장치로는 지역별로 당사국이 6년 간격으로 보고하는 정기모니터링(periodic monitoring) 제도와 위험이나 훼손의 위험이 있을 경우 실시하는 대응모니터링(reactive monitoring)제도가 있다. 첫째, 정기모니터링은 세계센터에서 제공한 형식에 따라 당사국이 설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실시되며, 법적 행정적인 보호기제와 개별 세계유산의 보존 상태에 대한 보고로 구성된다. 정기보고는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 세계지역별로 매년 이루어진다. 정기보고는 1992년부터 아랍국, 아프리카, 아시아와 태평양국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 유럽과 북미 북가의 순서로 시작되었고, 모든 지역의 보고가 완료된 1996년부터 4년간의 보정기를 가졌다가 2000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006년에 두 번째 주기가 끝나고 2010년까지 보정기를 거쳤고 현재에는 세 번째 주기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대응모니터링은 위험에 처한 유산의 경우에 자문기구에 의뢰하여 유산의 보존 상태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매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그 전해에 진행된 대응모니터링의 결과를 보고하고 유산의 위험요소가 항존 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받아 OUV가 훼손될 경우에는 위험에 처한 유산목록에 등재 여부를 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운영지침에서는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으로 등재하는 경우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별로 현저한 위험과 잠재적 위험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예를 들어 문화유산의 경우 현저한 위험에는 자재, 구조 장식물, 건축 상태의 현저한 쇠락, 도시계획의 일관성 훼손, 도시와 농촌공

간·자연환경의 질적 쇠퇴, 역사적 진정성과 문화적 중요성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잠재적 위험에는 보존을 위한 법률 등이 없거나 수정될 경우, 보존정책의 부족, 지역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에 의한 위협, 군사적인 갈등 상황, 기후·지형·환경 요인에 의한 위협 등이 포함된다. 자연유산의 경우 현저한 위험에는 종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인위적인 간섭, 경관과 자연적 아름다움의 심각한 훼손, 개발 등의 인간의 간섭에 의한 완전성의 손상 등이 포함되며, 잠재적 위험으로는 유산 지역의 법적 보호 상태의 수정, 유산구역 내에서의 개발 사업이나 이주계획, 군사적 갈등의 발생, 관리계획의 부재 등을 들고 있다.

이런 위험 요소 때문에 유산이 불가역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경우에는 세계유산위원회는 해당 유산에 대하여 당사국의 협조를 얻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고 해당국으로 하여금 매년 유산의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위험요소의 제거를 위해 일정한 시점을 제시하는데 해당국이 이를 무시하거나 교정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된다. 현재까지 유산 목록에서 삭제된 사례로는 오만의 아리비안 오릭스 영양보호구역과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계곡 문화경관이 있다.

2015년에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141개 유산에 대하여 보존상태의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위험에 처한 유산이 46건, 이전 회기에서 보존현황에 대한 보고가 요청된 유산 73건, 세계유산 등재와 동시에 보존현황 보고가 후속 조치로 요구된 유산 7건, 그리고 위험에 처한 상황에 의해 긴급 검토가 이루어지는 유산 15건이 포함되었다(세계유산센터, 2015). 특이한 사항은 이들 유산 중에서 아프리카 유산과 아랍지역의 유산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유산은 세계유산의 9%에 불과하지만 위험유산의 35%를 차지하고, 아랍 유산은 전체의 8%를 차지하지만 위험 유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연유산은 전체 유산 목록에서 20%에 불과하지만 위험 유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보존에서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자연 및 복합유산의 경우에 외래 유입 생물이 다양성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규모의 재개발 사업의 실시,

관광,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이 변화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5) 세계유산의 파급 효과와 핵심 과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는 의미는 '특정 국가, 지역, 단체, 개인의 유산에서 벗어나 인류가 공동으로 향유하고 보존하는 유산'이 된다는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의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은 국내외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으면서 보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 이후에는 보존 관리의 의무를 지게 되어 매 6년마다 유산의 보존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세계유산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위험에 처한 유산목록'에 등재된다(<http://whc.unesco.org/en/danger>). 그러므로 당사국들은 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함께 국제적 표준에 맞는 새로운 관리와 보존 방식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역량을 갖춘 세계유산 인력 양성과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관리체계와 보존원칙의 정립 등이 필요하다.

둘째, 세계유산을 통하여 자국의 문화적 자부심과 문화적 정체성을 고양할 수 있다. 세계유산은 단순한 사이트와 기념물, 빌딩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무형의 정신과 가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도 하나마다 한국인의 본질적인 가치와 상징성이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과 불국사 등은 불국토를 만들어 외침으로부터 나라의 지키고자 하였던 호국정신이 그 속에 숨 쉬고 있고, 하회와 양동마을에는 조상을 섬기며 마을의 어른을 중심으로 도덕적 공동체를 꿈꾸었던 조상들의 열이 담겨져 있다. 남한산성에는 국난을 당하여 국가를 지키고자 하였던 호국의 정신이, 그리고 종묘에는 500년 조선왕조를 지켜왔던 충성심과 조상에 대한 지극함이, 창덕궁에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비정형속에서 정형을 바라보았던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세계유산을 통한 이런 정체성 교육은 다민족사회로 나아가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쓰는데 중요한 교육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세계유산은 관광산업과 서비스경제를 촉진

시키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프롬펜에서 열린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의장을 맡았던 Kataline Bogay는 세계유산을 ‘세계유산 브랜드’라고 지칭하였다. 이 의미 속에는 세계유산의 원래 목적이었던 보존과 관리 이외에도 홍보와 브랜드화를 통하여 세계유산을 관광을 위한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세계유산은 브랜드화를 통하여 자국의 문화유산을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를 세계경제와 연결시키는 결절점의 역할이 가능하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얻어지는 지역경제의 효과는 개별 사례별로 다르지만 방문객 수가 증가하여 보존 문제를 야기하는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세계유산 등재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세계유산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계유산의 등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별, 지역별, 국가별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노력과 등재 후에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관련한 쟁점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세계유산의 등재는 전문가적인 역량 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개발국의 경우에는 등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유산협약 가입국 191개국 가운데 세계유산을 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2015년 7월말 기준으로 163개국으로 28개국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원국이 제출한 유산이 등재되는 확률이 높은 추세를 나타내는 것도 문제이다. 1977년부터 2005년 사이에 등재된 314개의 유산 가운데 세계유산 위원회의 위원국이 등재된 비율은 42%를 차지한다. 이 비율이 2006년에는 16.7%, 2008년 25%, 2010년 4.9%를 나타내지만 21개 위원국이 전체 회원국의 1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Meskell, 2015).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경험이 있는 국가가 세계유산의 등재 과정을 지원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업스트림 과정(upstream process)을 의제로 하여, “대표성 있고, 균형잡힌, 신뢰있는 세계유산 목록을 위한 글로벌 전략”이란 제목으로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환으로 유네스코 한위를 중심으로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전문가를 피지와 방글

라데시에 파견하여 등재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업스트림 과정은 연속유산으로서 초국경 유산으로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등재를 추진하거나 복합유산의 등재를 추진할 경우 지역 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서 인식되고 있다.

등재와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세계유산의 등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정치적인 색채를 더욱 강하게 띠면서 자문기구의 권고안이, 국가 사이의 정치적인 타협과 선물 주고받기 과정으로서 반복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이다. ICOMOS의 평가에서 반려(Defer)는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의미이지만, 최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불가의 경우에도 보류(Refer)로까지 그 결과가 바뀌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2014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47%에 달하는 유산이 자문기구의 권고안이 반복되면서 결국 신청 유산의 81%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점점 전문가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폐쇄적 성격의 전문적 성격에서 국제 정치적인 역학 관계가 반영된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등재이후 보존관리와 관련한 변화도 정기모니터링 보고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 ICOMOS의 유산영향 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라는 권고가 유산의 보존상태에 대한 ICOMOS의 권고안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환경변화와 개발사업 등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추세와 관련이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세계유산 제도는 1972년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유네스코의 지정 유산 제도로서 인류에게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의 보존과 함께 유산의 가치를 현재와 미래 가치로 재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세계유산의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10개의 등재기준을 최소한 한 개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보존관리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과 비교연구를 통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고,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조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설득 논리를 갖춘 등재신청서를 통해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이루어진다.

세계유산 제도의 중요한 작인(agents)들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이를 보좌하고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유산센터,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는 191개 조약 가입국으로 구성되는 당사국, 유산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구인 ICOMOS, IUCN, ICCROM, 그리고 세계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를 담당하고 생활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세계유산은 등재신청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최종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되는 단계, 그리고 등재 이후에 보존관리의 의무를 수행하고, 보존 관리 상태를 점검 받는 모니터링 단계까지 매단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고도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정치 역학의 영향을 받아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정치적인 선물주고 받기’라는 비판이 생겨나고 투명성 확보가 국제적인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국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각해 볼 점은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정확히 증명하고 밝혀 많은 국가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문화적 외교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문화역량이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때 인류가 인정하는 우리의 세계유산을 올바르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다민족사회에 대응하여 한국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국가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게 문화유산을 물려주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속가능성의 확보 문제는 최근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세계유산은 2014년 1,007개가 등재된 이후 2015년에는 1031개로 늘어났고, 등재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상의 문제뿐 아니라 등재 이후 보존관리의 중요성이 고려되면서 매년 등재 신청 유산 수를 현재 45개에서 현저하게 줄인 25개 정도로 축소할 것이 고

려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유산의 선정과 등재신청서의 작성 과정 등에 자문기구가 조력할 수 있는 업스트림 과정과 함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추세이다. 이런 사실은 세계유산제도의 변화 추세를 즉각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국제적인 업스트림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계유산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세계유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제도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지속적인 인맥 관계 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

문 헌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홈페이지 <http://www.icomos.org/en>
-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 <http://whc.unesco.org/en>
-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이혜은, 2011, “지리학자의 관점에서 본 세계유산,” 한국사진지리학회, 21(3), 65-74.
- Bertacchini, E. and Sacone, D., 2012,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World Heritage,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6, 327-352.
- Cassel, S.H. and Pashkevich, A., 2013, World Heritage and tourism innovation: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local adaptation, *European Planning Studies*, 22, 1625-40.
- Jokilehto, J. and Caeron, C., 2008, The World Heritage List what is OUV? *Defining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Berlin, Bassler.
- Labadi, S. and Long, C., eds., 2010, *Heritage and Globalization*, 19-44.
- Labadi, S., 2013, *UNESCO, Cultural heritage and outstanding universal value*,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 Meskell, Lynn, 2014, States of conservation: protection, politics and pacting within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87(1), 217-244.
- Meskell, Lynn, 2015, *Transacting UNESCO World*

Heritage: gifts and exchanges on a global stage,
Social Anthropology, 23(1), 3-21.

Winter, T. 2014, Heritage conservation future in an
age of shifting global power, *Journal of Social
Anthropology*, 14, 319-339.

World Heritage Center, 2011,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

World Heritage Center, 2014.8., *Operational Guid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World Heritage Convention*.

교신: 김숙진,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이과
대학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
(e-mail: sjkim@konkuk.ac.kr)

Correspondence: Sook-Jin Kim, Department of Geography/World
Heritage Program in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05029
(e-mail: sjkim@konkuk.ac.kr)

투 고 일: 2015년 7월 6일

심사완료일: 2015년 7월 13일

투고확정일: 2015년 7월 20일

역사항구 북항의 산업유산적 가치 분석

박능재* · 강동진**

An Analysis of the Industrial Heritage's Characteristics in Bukhang as Historic Port, Busan, Korea

Neung-Jae Park* · Dong-Jin Kang**

초 록: 북항이 자리한 부산포 일원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매축의 기원은 1902년이였다. 북항은 110여 년에 이르는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항구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역사항구로 정의된다. 1974년에 부산항 1단계 개발사업(1974~1978)으로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항으로 거듭나며, 북항은 부산이 5대 국제물류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북항은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그 궤를 같이 했다. 개항 후 140여 년 동안 수많은 애환 어린 각종 근대역사의 소통구이자 국제물류의 현장으로 작동했다. 2005년은 북항이 새롭게 변신하는 계기가 된 해였다. 신항으로의 기능 이전과 함께 북항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였다. 그러나 역사항구이자 물류업과 관련된 산업유산의 집합체로서의 북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북항이 가진 역사성에 대한 몰인식 속에서 재개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극복을 위해, 근대역사항구로서의 북항의 가치 재발견과 물류관련 산업유산의 보고(寶庫)로서 북항을 재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3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문헌고찰을 통해 북항의 역사적 가치를 조사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는 현장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북항의 각종 산업유산들을 조사분석하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역사항구 북항에 내재된 산업유산으로서의 다양한 가치들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역사항구, 산업유산, 세계유산, 북항, 부산항

Abstract: Bukhang is an historic port with the history of about 110 years and a major industrial heritage in Busan, which contains the history of the logistics industry in the modern age of Korea. Nevertheless, the redevelopment project of Bukhang since 2005 has caused its meaning as heritage and locational value to be disregarded and its many potential resources to have been neglected and disappeared. Accordingly, this research aims to define its values as an industrial heritage and to identify its features by extracting the resources of the existing industrial faculties, including buried or vanished elements.

To this end, the study took the following three study processes. In the first process, the values of the Bukhang we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In the second step, resources in Bukhang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rough field research and interviews with professionals and people concerned. In the third stage, the values of Bukhang as an industrial heritage were defined through the results in the first and second procedures.

Key Words: Historic Port, Industrial Heritage, World Heritage, Bukhang, Busan Port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유산(Industrial Heritage)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과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입지적으로 도심이나 항만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단일시설로 존재하기 보다는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경우가 많다. 산업유산으로 분류되는 유형 중 수운, 창고, 철도시설 등 많은 시설들이 항구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강동진, 2008).

* 경성대 도시공학 석사(Master, Dept. of Urban Engineering, Kyungshung Univ.)

** 경성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 도시공학 전공 교수(Professor, Dept. of Urban Engineering, Kyungshung Univ.)

〈표 1〉 선진사례 산업유산 재활용 현황(주요)

구 분	주요활용자원	용 도
함부르크 하펜시티	코코아 창고	콘서트홀
	하역 창고	과학센터 해양박물관
	발전소	인포센터
시드니 달링하버	교량	보행자전용다리
	창고	레스토랑 및 상업공간
	안벽(닥스)	안벽, 보행공간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 21	도크시설	이벤트 광장
	벽돌창고	상업/문화시설
	화물철로	보행자 도로, 산책로
	철교	보행자 다리
	부두시설(방파제)	산책로 및 광장
볼티모어 내항	발전소	복합상업시설
	계선주	계선주(원형 기능 활용) 조명시설
	해안경비선 · 잠수함	해상 박물관
	등대	조망시설, 조명시설
	해안선	해안선(원형 기능 활용)

최근 수변공간의 개발 전략으로 산업유산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수변공간으로 보전하거나 정비, 활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 유사한 선진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7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독일 함부르크의 슈파이허슈타트 및 콘토하우스지역(Speicherstadt and Kontorhaus District)의 경우 각종 창고 및 물류관련 시설들을 콘서트홀, 해양박물관 등으로 재활용하고 또 발전소를 인포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시드니 달링하버는 항구 초기에 사용된 보행교량을 보전(리모델링)하여 원형의 기능을 온전히 이어 보행자전용다리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 미나토미라이21은 도크를 이용하여 이벤트성 광장으로 사용하고 벽돌창고 2동을 리모델링하여 상업·문화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볼티모어에서는 항구의 발전소를 리모델링하여 복합상업시설로 활용하고 계선주, 등대 등은 원형의 모습을 최대한 보전하여 조명시설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해안경비선·잠수함은 해상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역사와 자원을 활용한 선진 항구와 마찬가지로 부산의 북항 또한 110여년의 역사를 가진 역사항구이자 근대기 대한민국의 물류(항만·여객)산업의 변천

을 보여주는 부산의 핵심 산업유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시작된 북항 재개발사업은 북항이 가진 유산적 의미와 장소적 가치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많은 자원들의 해체를 전제로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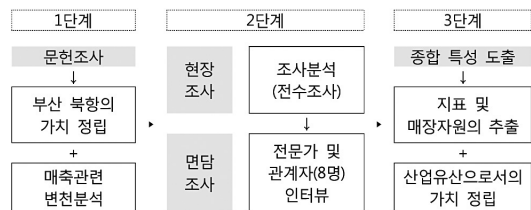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항구의 기본 구성요소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중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어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자원(현재 작동중인 북항 내 산업시설을 포함)과 항만변천과정에서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 해체, 소멸, 매장되어 있는 비(非)가시적 잠재자원을 추출 한 후 제요소들의 산업유산적 가치와 그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또한 11년 후면 개항 150주년이 되는 우리나라 최초 역사항구로서의 가치 재발현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2) 기존 연구 동향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산업유산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로써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전방법을 다룬 강동진(2003) 연구 이후 산업유산의 해외사례분석, 구성조건, 기본요소 등과 관련된 많은 이론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유형은 국내의 워터프런트에 관한 연구이다. 도시수변공간개발을 다룬 조대성(2001), 도시재생 측면을 고려한 수변공간구성을 다룬 어정연 외(2008), 도시활성화를 위한 수변공간의 계획 기법을 다룬 문지영(2009) 등 국내의 수변공간 재생사례 및 사례도시 비교분석 연구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유형은 부산 북항에 관한 연구로, 독일 하펜시티와의 비교를 통해 북항 재개발의 개선 방안을 다룬 이선주(2008), 부산항 북항 및 남항 일원의 연



〈그림 1〉 연구 과정

〈표 2〉 분석의 틀

1단계: 유형구분		
구분	유형	내용(자원)
구조물형	항만시설(물류)	안벽, 선창계단 등
	항만관련	크레인 레일, 이동표시선 등
	철도관련	철길 등
인프라형	기타	맨홀뚜껑 등
	안전시설	계선주, 방충재 등
	조명시설	조명탑 등
장치물형	정보전달시설	문주, 표탑, 현판 등
	기타	차량 승하선 발판 등
	산업시설(저장)	창고, 소방펌프실 사일로 등
건축물형	산업지원시설	경비초소, 사무실, 등
	여객시설	여객터미널, 갠웨이 등
	업무시설	관리소, 세관 등
기계/소품형	화물운송시설	크레인, 컨베이어 벨트 등
	안전관련소품	안전모, 노동자 신발 등
	부두노동관련소품	갈고리, 와이어, 손수레 등
문서형	지도·도면류	부산항시기도, 부산전도 등
	사진류	항공사진, 기록사진 등
	서류	서류철 등



2단계: 가치평가				
자원명	기준	내용	근거 ²⁾	
			지표	매장
자원	역사문화성	근대항구에서의 역할*	특별보존	복원 기록 보존
	기능기술성	북항에서의 기능과 의미*	절대보존	
	경관장소성	입지적 특성 및 특정 경관 보유*	선택보존 기록보존	

*5점 리커트척도로 조사(10: 매우높음, 2: 매우낮음)

안역 개발방향을 다른 최도석 외(2006) 등 북항의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또 부산항의 역사 및 변천에 관한 내용을 다룬 부산지방해운항만청(1991), 차철욱(2006), 최해군(2001)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기존 워터프린트 및 북항의 개발 방향성과 관련된 거시적 측면의 연구와 달리 수차례의 현장 밀착조사와 심층면담조사를 통해 자원추출 및 분석 과정을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차별성을 가진다. 즉, 북항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가치의 기초근거자료를 마련함으로써 북항재개발사업(관련 워터프린트 조성사업)으로 하여금 보다 역사문화에 초점을 둔 전략적인 방향 설정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문헌연구를 통해 북항의 의미와 가치 및 개념을 정립하고 부산항의 성장과정을 시기별 매축 변천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두 번째 단계는 산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북항의 자원을 조사·분석하는 단계이다.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십 여 차례 이상의 현장조사(전수조사)를 진행하였고, 부두별 관계자 및 관리자, 노동자 등 인터뷰를 통하여 북항 자원을 조사·분석하였다. 이 후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총 8명)의 심층회의 형식의 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근거로 북항 산업유산의 종합적 특성을 도출하고, 지표 및 매장자원의 추출과 북항의 잠재자원들이 보유한 산업유산적 가치를 정립한다.

2) 분석의 틀

본 연구는 북항의 산업유산 잠재자원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구성한다. 첫째는 북항의 자원을 유형으로 구분하는 단계이다. 워터프린트의 기본 특성 중 핵심 요소는 물류(항만)산업이므로 워터프린트가 가지는 기본 자원은 구조물, 건축물, 기계류, 인프라시설류 등으로 분류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기초조사를 통해 자원의 유형을 6개의 구분(구조물형, 장치물형, 건축물형, 기계·소품형 등), 18개의 유형(항만시설, 안전시설, 조면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물적(지표)자원을 분류한다.

둘째는 분류된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 가치평가 기준을 자원의 생성 시기와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는 역사·문화성, 항구에서의 기능과 역할의 의미를 평가하는 기능·기술성, 자원의 입지적 특성과 특정경관을 평가하는 경관·장소성으로 구분하고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가치평가를 시행한다. 5점 척도의 기준과 질적 평가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해외 워터프린트의 자원활용 사례,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²⁾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자원 분류는 지표자원의 경우 등록 또는 지방문화재급의 가치가 있고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은 특별보존, 보존가치가 높거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은 절대보존, 전체 또는 일부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자원은 선택보존, 기록의 가치가 있는 자원은 기록보존으로 분류한다. 매장자원의 경우 보유한 가치 정도에 따라 복원대상과 기록대상으로 평가 분류한다.

2. 개념 정의

1) 북항의 정의

북항은 1407년(태종) 부산포 개항 이후 1876년 부산항 개항으로 무역을 시작하였고, 1902년(1차 북빈매립공사의 시점)부터 1983년(부산항 2단계 개발사업 완료일)까지 십여 차례 이상의 매축공사로 현재 북항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조성태 · 강동진, 2009). 북항의 부두는 '기타부두'로 분류되는 연안여객부두, 국제여객부두, 1부두, 2부두, 관공선부두, 양곡부두와 'TOC부두'에 해당하는 중앙부두, 3부두, 4부두, 그리고 '컨테이너부두'인 자성대(5부두, 6부두)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북항재개발사업으로 중앙부두, 3부두, 4부두에 대한 1-1단계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2) 북항의 기본 특성

북항은 1678년 초량왜관의 설치와 일본에 의한 부산항 개항(1876년)으로 북항은 부산의 근대역사 모태



〈그림 2〉 부산 북항의 부두 유형 및 입지

로서의 장소로 그 역할을 임해왔다. 1883년 부산해관과 해관부두가 설치되고 1902년 1차 북빈매립공사를 시작으로 부산은 무역, 상업, 어업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항구를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이 후 1945년 광복을 맞아 귀한동포가 북항의 1부두를 통해 부산으로 유입되었고, 1950년 6.25전쟁기에는 1부두는 피난민이 2부두는 미국과 유엔의 군수/보급물자들의 유입구로 사용되었다.

이와 함께 항만부 인접 고지대는 피난민들의 주거 기능을 담당케 되었다. 1964년 이후 8여 년 동안 3부두를 통하여 30만에 이르는 과일장병들이 출발하였고, 1983년 자성대부두(관공선, 양곡, 5, 6부두)의 축조로 대한민국 최초의 컨테이너터미널이 운영되는 등 북항은 우리나라 사회 변화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3) 북항의 매축 과정

본 논문에서는 북항의 매축과정을 개항기1(1407년~1876.1), 개항기2(1876년~1901년), 매축기(1902년~1944년), 발전기(1945년~1975년), 활성화기(1976년~2008년), 재개발기(2009년~)의 총 6단계로 시기 구분한다. 개항기1(1407년~1876.1)의 시기에는 부산항이 아직 제대로 된 항구의 모습을 갖추기 전으로, 대일교역장으로써 왜관(두모포왜관, 초량왜관 등)과 관련하여 근대항구로서의 기능을 확장시켰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부산 근대역사의 모태적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항기2(1876년~1901년)의 시기에서는 강화도 조약(1876년)으로 공식 개항이 되고 해관잔교(1889년) 및 부산해관(1883년), 해관창고 등의 설치로 본격적인 무역항으로써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매축기(1902년~1944년)의 시기는 총 7번의 매축공사가 발생했다. 먼저 1902년~1905년에 1차 북빈매립공사로 첫 매축이 시작되었고,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잇는 부관연락선(이키마루)의 첫 취항 및 초량과 노량진을 잇는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1907년~1908년에는 2차 북빈매립공사로 철도횡단교가 완공되어 현재의 1부두의 초기 모습을 갖추게 되고 해관잔교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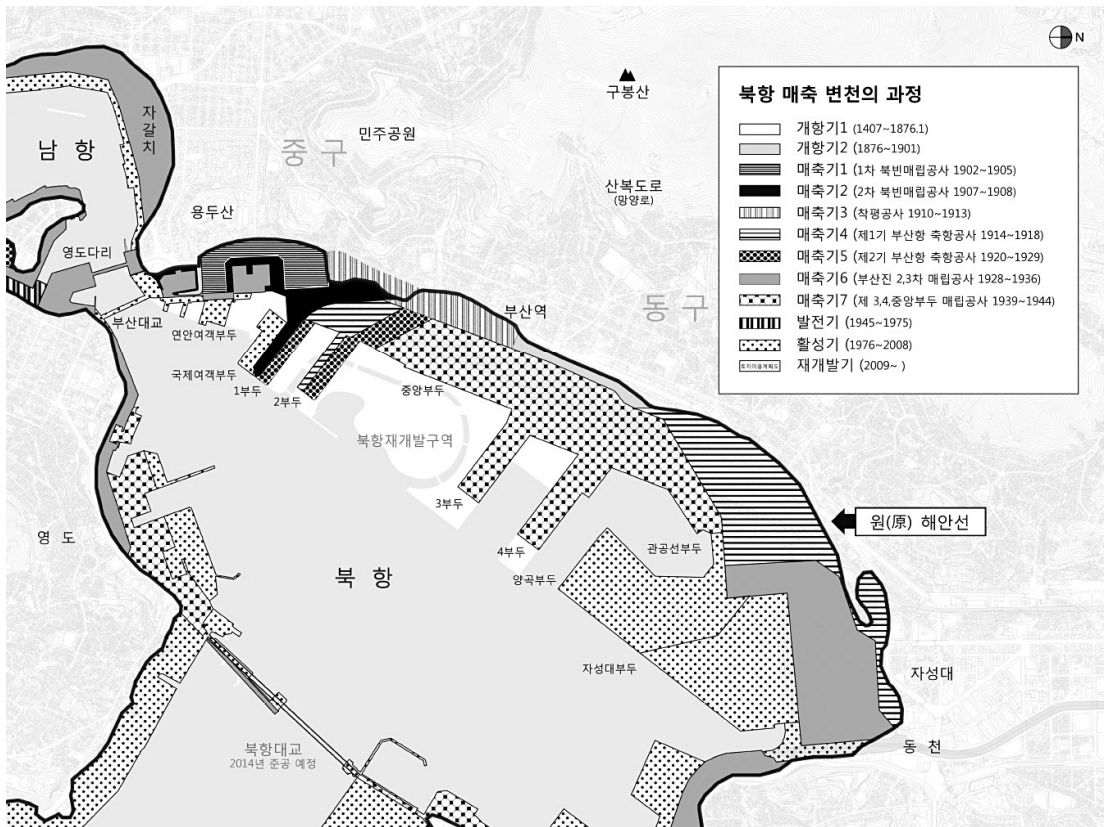
1910년~1913년에는 쌍산이라 불리는 영선산 착평을 통해 현 중앙로의 공간 개념을 구축하고 거류지 확장과 일본의 대륙진출의 기반을 확보하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같은 시기 옛 부산역과 옛 부산세관 청사가 건설되었다. 1914년~1918년에는 제1기 부산항 축항공사가 진행되어 현재의 2부두의 초기 모습인 2잔교가 축조되고 같은 시기 부산진에서 동래까지의 전차(1915년) 완공과 부산진 1차 매립공사(1912년~1922년)로 현 좌천동에서 부산진역까지의 매립이 진행되었다(부산항만공사, 2013).

1920년~1929년에는 1, 2잔교의 확장공사로 현재 1, 2부두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제2기 부산항 축항공사가 진행되었다. 1928년~1936년에는 부산진 2, 3차 매립공사가 진행되어 현재 미55보급창 부지의 확보와 배후 시가지가 조성되었다. 같은 시기 북항 북빈 연안공사(1928년~1932년)로 현재 연안여객터미널 일원의 부지를 매축하고 영도대교(1934년)와 부산부청사(1936년)가 건설되었다. 1939년~1944년에는 제 3, 4, 중앙부두 매립공사로 현재의 중앙, 3부두(1939년), 4부두(1944년)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매축기 후 광복으로 부산항은 국제무역항으로의 발전기(1945년~1973년)로 접어들다. 발전기에서는 부산부두국(1945년) 발족과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부산은 임시수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 북항 1, 2부두에서 피난민과 구수물자 등이 유입되는 국가 수호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63년에는 부산이 부산직할시로 승격되어 북항은 무역항으로의 발전이 본격화된다. 이후 3부두에서 월남파병 병사들의 출항하였고, 기존 철도부지의 이전으로 임항철도 및 임항도로가 건설되었고, 갖추었고, 부산역(1969년)과 부산세관(1970년)을 신축하면서 물류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된다.

활성기(1974년~2008년)에서는 부산항1단계개발사업(1974년~1978년)으로 연안여객, 국제여객부두가 축조되고 우리나라 최초 컨테이너부두인 양곡부두와 5부두가 축조되었다. 이 때, 컨테이너부두에는 30.5톤은 컨테이너크레인(1978년) 4기가 구입되었고



* 저자 작성

〈그림 3〉 부산항 매축과정

현재 1기의 30.5톤 크레인인 잔존한다. 이어 1979년 ~1983년 부산항2단계개발사업이 시작되었고 현 컨테이너부두 모습을 갖추게 되는 6부두가 추가 축조되었고, 우리나라 최초 삼성중공업에서 만든 40.6톤의 컨테이너 크레인(1982년) 4기가 운행되었으며 현재 2기가 남아있다. 재개발기(2009년~)에 해당하는 현시점(2015년 6월)에는 1-1단계 부지조성공사가 거의 완료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부산항만공사, 2013).

3. 조사 및 분석




1) 전제

북항의 자원을 분류하는 방식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원 자체의 속성에 따른 유형분류 방식을 사용한다. 그 유형은 자원의 속성에 따라 구조물형, 인프라형, 장치물형, 건축물형, 기계·소품형, 문서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 북항 산업유산 자원조사 결과표(지표자원)

자원유형		자원목록		점수		보존방식					대표사진	
구분	유형	자원 명칭	개수/길이	역/기/경	합계	특별	절대	선택	복원	기록		
구조물형	항만 시설 (물류)	연안여객부두 일원의 안벽	약 905m	6/6/4	16		●	●				 <2부두 안벽>
		1부두 일원의 안벽	약 1,340m	10/8/8	26	●	●					
		2부두 일원의 안벽	약 1,070m	8/8/6	22	●		●				 <4부두 선창계단>
		중양부두 일원의 안벽	약 939m	6/4/4	14			●				
		3부두 일원의 안벽	약 1,440m	6/4/4	14			●				
		4부두 일원의 안벽	약 1,690m	6/4/6	16		●	●				
		관공선부두 일원의 안벽	약 1,300m	8/8/8	24			●				
		양곡부두 일원의 안벽	약 350m	6/4/4	14				●			
		자성대부두 일원의 안벽	약 1,470m	8/8/8	24			●				
		연안여객부두 일원의 선창계단	10개소	6/6/6	18			●				
		4부두 일원의 선창계단	1개소	6/6/6	18			●				
		관공선부두 일원의 선창계단	31개소	6/6/6	18			●				
		멍텅구리 블록	736개	4/6/6	16		●	●			 <멍텅구리 블록>	
인프라형	항만 관련	자성대부두 컨테이너 크레인 레일	4개소	6/6/8	20		●				 <컨테이너 크레인 레일>	
		자성대부두 트랜스퍼 크레인 이동표시선	66개소	2/4/4	10			●				
	철도 관련	4부두 철길	3개소	10/8/8	26			●				
		자성대부두 철길	3개소	10/8/8	26			●				
기타	4부두 맨홀뚜껑	7개	6/2/2	10				●				
장치물형	안전 시설	연안여객부두 일원의 기본형 계선주	62개	4/6/6	16		●	●			 <트랜스퍼 크레인>	
		연안여객부두 일원의 기본형(小) 계선주	8개	4/6/4	14			●				
		연안여객부두 일원의 둥근형 계선주	7개	4/6/4	14			●				
		연안여객부두 일원의 타원형 계선주	6개	4/6/4	14			●				
		연안여객부두 일원의 둥근막대형 계선주	1개	6/6/6	18			●				
		1부두 일원의 기본형 계선주	23개	4/6/6	16		●	●				
		1부두 일원의 기본형(小) 계선주	5개	4/6/4	14			●				
		1부두 일원의 기본형(변형) 계선주	1개	6/6/6	18			●				
		1부두 일원의 둥근형 계선주	20개	4/6/6	16		●	●				
		1부두 일원의 원기둥형 계선주	4개	6/6/6	18			●				
		2부두 일원의 기본형 계선주	20개	4/6/6	16		●	●				
		3부두 일원의 기본형 계선주	3개	6/6/6	18			●				
		4부두 일원의 기본형 계선주	35개	6/6/6	18			●				
		관공선부두 일원의 기본형 계선주	121개	4/6/8	18			●				

<표 3> 계속

자원유형		자원목록		접수		보존방식					대표사진	
구분	유형	자원 명칭	개수/길이	역/기/경	합계	특별	절대	선택	복원	기록		
안전 시설		관공선부두 일원의 기본형(특수) 계선주	6개	4/6/8	18		●					 <둥근형 계선주>
		양곡부두 일원의 기본형 계선주	20개	4/6/8	18		●					
		양곡부두 일원의 둥근막대형 계선주	4개	4/6/8	18		●					
		자성대부두 일원의 기본형 계선주	12개	4/6/4	14				●			
		자성대부두 일원의 기본형(大) 계선주	81개	4/6/6	16		◎	●				
		연안여객부두 일원의 방충제	-	4/6/4	14		◎	●				
		1부두 일원의 방충제	-	4/6/4	14		◎	●				
		2부두 일원의 방충제	-	2/6/4	12				●			
		4부두 일원의 방충제	-	4/6/4	14		◎	●				
		관공선부두 일원의 방충제	-	4/6/4	14		◎	●				
		양곡부두 일원의 방충제	-	2/6/4	12				●			
		자성대부두 일원의 방충제	-	2/6/4	12				●			
장치 물형	조명 시설	연안여객부두 일원의 팔각형(2단) 조명탑	2개	8/8/8	24		●				 <타원형 계선주>	
		연안여객부두 일원의 팔각형(1단) 조명탑	4개	4/6/4	14			●				
		1부두 일원의 직사각형(2단) 조명탑	3개	4/6/4	14			●				
		1부두 일원의 원형(1단) 조명탑	11개	4/6/4	14				●			
		2부두 일원의 원형(2단) 조명탑	2개	4/6/4	14				●			
		중앙부두 일원의 정사각형(2단) 조명탑	8개	8/8/8	24			●				
		3부두 일원의 정사각형(3단) 조명탑	3개	8/8/8	24			●				
		4부두 일원의 정사각형(4단) 조명탑	4개	8/8/8	24			●				
		관공선부두 일원의 정사각형(3단) 조명탑	2개	4/8/8	20			●				
		관공선부두 일원의 직사각형(1단) 조명탑	5개	4/6/4	14				●			
		자성대부두 일원의 정사각형(4단) 조명탑	6개	8/8/8	24			●				
		자성대부두 일원의 직사각형(3단) 조명탑	9개	8/8/6	22			●	◎			
		자성대부두 일원의 원형(3단) 조명탑	11개	8/8/8	24			●				
		자성대부두 일원의 원형(1단) 조명탑	14개	8/8/8	24			●				
		자성대부두 일원의 원형변형(1단) 조명탑	1개	8/4/4	16				●			
		자성대부두 일원의 팔각형(3단) 조명탑	1개	8/8/6	22			●				
정보 전달 시설		국제여객터미널 출입 게이트	1개	6/8/8	22		●				 <안전모, 신발>	
		1부두 문주	2개	6/8/8	22		●					
		2부두 문주	1개	6/8/8	22		●					
		중앙부두 문주	2개	6/8/8	22		●					
		3부두 문주	2개	6/8/8	22		●					
		4부두 문주	1개	6/8/8	22		●					
		관공선부두 문주	2개	6/8/8	22		●					
		자성대부두 문주	1개	6/8/8	22		●					
		1부두 표탑	1개	2/6/6	14				●			
		2부두 표탑	1개	2/6/6	14				●			
		3부두 표탑	1개	2/6/6	14				●			
		4부두 표탑	1개	2/6/6	14				●			
		4부두 현판	1개	2/6/4	12				●			
		기 타		연안여객부두 일원의 차량승하선 발판	1개	8/10/6	24		●			
1부두 일원의 차량승하선 발판	3개			8/10/6	24		●					

<표 3> 계속

자원유형		자원목록		접수		보존방식					대표사진	
구분	유형	자원 명칭	개수/길이	역/기/경	합계	특별	절대	선택	복원	기록		
건축 물형	산업 시설 (저장)	1부두 창고	1동	6/6/4	16			●				 <정사각형(4단) 조명탑>
		2부두 창고	1동	6/6/4	16			●				
		3부두 소광펌프실	1동	8/10/8	26			●				
		4부두 소광펌프실	1동	8/10/8	26			●				
		자성대부두 보세창고	2동	6/10/8	20			●				
		사일로	3동	10/10/10	30	●						
		1부두 경비초소	1동	2/4/4	10				●			
		중앙부두 경비초소	1동	2/4/4	10				●			
		3부두 경비초소	1동	2/4/4	10				●			
		관공선부두 경비초소	1동	2/4/4	10				●			
		자성대부두 경비초소	1동	2/4/4	10				●			
		1부두 부산항운 노동조합사무실	1동	2/4/4	10				●			
		관공선부두 컨테이너 사무실	1동	2/4/6	12				●			
		자성대 허치슨 사무실	1동	2/4/6	12				●			
	자성대 차량 정비소	2동	6/10/4	20			●					
	자성대 게이트 콤플렉스	1동	6/10/8	24			●					
	여객 시설	국제여객터미널	1동	6/10/8	24			●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1동	6/10/8	24			●				
		연안여객터미널 갱웨이	-	6/4/6	16				●			
	업무 시설	부산본부세관	1동	10/8/8	26			●				 <부산본부세관>
국립부산검역소		1동	6/6/4	16				●				
부산출입국관리소		1동	6/6/4	16				●				
기계 / 소 품형	화물 운송 시설	1부두 일원의 하버크레인	1대	4/4/6	14			●			 <하버크레인>	
		2부두 일원의 하버크레인	1대	4/4/6	14			●				
		양곡부두 일원의 언로더	2대	4/6/8	18			●				
		양곡부두 일원의 컨베이어 벨트	약 188m	4/6/8	18			●				
		자성대부두 컨테이너 크레인(50t)	7대	4/4/4	12				●			
		자성대부두 컨테이너 크레인(40.6t)	6대	8/4/4	16	●		●				
		자성대부두 컨테이너 크레인(30.5t)	1대	10/10/10		●						
	자성대부두 트랜스퍼 크레인	35대	4/4/6	14			●					
	안전 관련 소품	안전모 일식	-	4/4/2	10				●		●	 <안전모>
		부두 노동자 신발 일식	-	4/4/2	10				●		●	
	부두 노동 관련 소품	갈고리 일식(긴갈고리, 손갈고리 등)	-	4/4/2	10				●		●	 <갈고리>
		저울 일식	-	2/4/2	8				●		●	
		와이어 일식	-	2/4/2	8				●		●	
자성대 식별 표기물(흰딱지)		-	2/4/2	8				●		●		
부두 출입증		-	4/4/2	10				●		●		
문 서 형	지도·도면류	부산항 관련 지도 일식	-	2/2/2	6					●	 <지도·도면류>	
	사진류	항도사진(도면)류 일식	-	2/2/2	6					●		
	사건류	기록사진(국가기록원) 일식	-	2/2/2	6					●		
	서류	서류철 일식	-	2/2/2	6					●		

역: 역사문화성, 기: 기능기술성, 경: 경관장소성 / ●: 전체, ○: 부분(일부, 구간)

2) 자원 속성별 분석

‘구조물형’은 대부분 물류관련 항만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안벽의 경우 1단계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 3, 4부두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두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1부두 일원의 안벽 중 일부는 2차북빈매립공사(1907년~1908년) 당시 축조되었던 1부두의 초기 모습이 일부 구간에 잔존하고 있으며, 2부두 또한 제1기부산항축항공사(1914년~1918년) 당시 축조되었던 초기 모습의 일부 구간이 남아있다. 멩딩구리 블록의 경우 안벽을 구성하는 기반시설로 현재 재개발구역의 매립과정 중에 추출되어 3부두에 집단보존 중이다. 선창계단의 경우 연안여객부두와 광공선부두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인프라형’자원은 항만관련, 철도관련 등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컨테이너 크레인 레인 및 트랜스퍼 크레인 이동표시선의 경우 현재 자성대(5, 6부두)에서 사용(표시) 중이며, 부두로 이어지는 철길은 재개발이 진행 중인 4부두에서 일부구간 존치되어 있다. ‘장치물형’의 자원은 안전시설, 조명시설, 정보전달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계선주, 조명탑, 방충재, 문주 등 대부분의 자원이 1단계 재개발이 진행 중인 중앙, 3, 4부두를 제외하고 각 부두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보존 및 활용되고 있다. 중앙, 3부두의 경우 재개발 매립 중 부두의 원형 해안선(안벽)의 위치를 가늠하게 해주는 계선주(3개), 조명탑(8개) 등의 자원이 일부 존치되어 있다. ‘건축물형’은 산업시설(저장), 산업지원시설, 여객시설, 업무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창고의 경우 1부두(1동), 2부두(1동), 자성대부두(2동)를 제외한 부두에서는 해체·소멸되었으며, 사일로, 게이트 콤플렉스,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의 건축물은 현재 각 부두에서 사용 중이다.

‘기계·소품형’은 화물운송시설, 안전관련소품, 부두노동관련 소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물운송시설인 컨테이너 크레인, 언로더, 트랜스퍼 크레인은 대부분 자성대부두에서 현재 사용 중이며, 컨테이너 크레인 중 1978년 도입된 30.5톤 1대와 1982년 국내 생산된 40.6톤 2대가 존치되어 있다. ‘문서형’은 지도·도면류, 사진류, 서류 등으로 구성된다. 각 자원들은 북항의 매축 및 해체·소멸된 자원들의 발굴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현재 국가기록원 또는 일제강점기 이후 발간한 각종 공공기록결과물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부두 노동자 및 업무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서류물들(일부)은 1단계 재개발이 진행 중인 3부두 노동자 합숙소에 집단 보존되어 있다.

4. 결과 및 고찰

1) 평가의 종합

(1) 역사·문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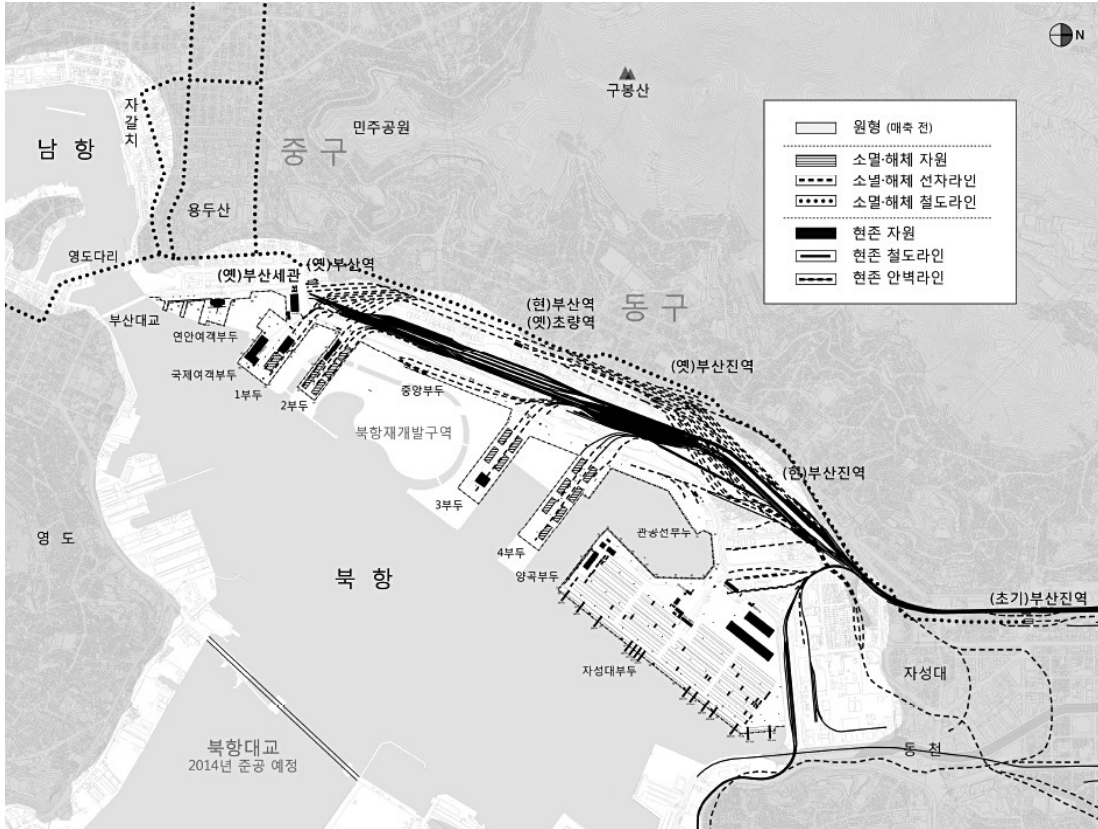
부산 북항은 1876년 개항 이후 81년³⁾ 간의 매축과 정으로 현재 북항의 모습으로 재탄생되었다. 북항은 초량왜관의 터전, 부관연락선의 취항지, 귀한동포의 귀환지, 6.25전쟁으로 인한 피난민과 군수물자의 유입항구, 파월장병들의 출항장, 국내 최대 물류산업의 기지 등 다양한 측면의 국가적 중추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국가가 국난(일제강점기, 6.25전쟁 등)에 처할 때 마다 또 경제 재건과 발전을 위한 산업 발전의 시기에 북항의 부두들은 나름의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북항은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살아 있는 근대역사와 산업의 현장이자 부산 근대역사의 모태지로서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또한 1차 북빈매립공사 이후 110여년의 누적된 역사를 가진 북항의 산업유산들은 양·질적 차원으로 볼 때 외형적인 수준이 매우 뛰어나며, 각 부두별 기능과 사건에 얽힌 스토리적 잠재력 또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매축과 시설이전의 과정에서 그 자체가 포장되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매축 해안선과 1, 2부두의 철로, 그리고 부산세관 및 부산역의 터 등은 매장자원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 될 경우 선(先) 발굴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기능·기술성

북항은 물류(항만)산업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객·운송 산업의 기능을 두루 갖추어 부두 전반의 기능이 다양한 것으로 판단된다. 잔교에서 시작되어 수차례의 변형을 거친 1, 2부두의 경우 변천기록과 증축된 부두(형태, 재료 등)를 통해 부두 축조기술의 변천을 이해할 수 있고, 3/4부두와 중앙부두의 해체작업 중에 추출된 천 여 개의 멩딩구리블록들을 통해서



* 저자 작성

〈그림 4〉 북항의 현존자원(소멸·해체자원 포함)

1940년대 당시의 케이슨식 매축기술의 수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부두인 자성대부두(영곡부두 포함)를 통해 70~80년대 물류(항만)산업의 시스템과 축조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크레인(일본 미쓰이사 제품) 및 국내 기술(삼성중공업)로 최초 생산된 컨테이너 크레인이 현재 작동·사용 중이므로 이를 통해 물류 관련 기계소품류 산업유산의 기술적 계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외 물류관련 하역 및 저장시스템, 선박인도 및 인양기술, 그리고 물류부두의 안전관련 관리기법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관련 기능들도 유산적인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3) 경관·장소성

북항은 우리나라 첫 해상관문지로서 부산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곳이다. 이에 북항은 면(面) 측면에서

물류항구가 가지는 펼쳐진 공지(물양장, 하역장 등)가 부두 전반에 걸쳐 넓게 확보되어 있어 워터프런트로서의 외형 조건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앙·3·4부두를 제외한 나머지 부두의 안벽들이 잔존하여 있고, 조명탑, 계선주, 크레인 레일 등의 많은 자원들이 일정한 폭과 거리 속에서 반복하여 관찰되는 입지패턴으로 인해 북항은 수평으로 중첩된 선(線)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전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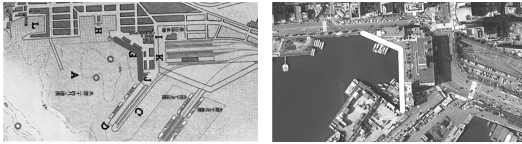
물류부두의 시설들은 하역시스템의 영향으로 매우 정연한 공간구조 속에서 단순한 형태로 구성된다. 북항 또한 이의 영향으로 구성 시설들이 싸일로(1개소) 등 랜드마크적 경관이 인지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점(點)으로 분포하는 시설들(문주, 게이트, 크레인, 창고 등)이 일정한 반복 패턴으로 존재함으로써 정연한 구조를 가진 군집의 경관미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컨테이너의 하역시스템에 연관되는 하역

장의 공간패턴과 각 지원시설들의 입지, 이의 사이를 움직이는 각종 하역장비와 인력의 동선 등도 독특한 경관으로 파악된다.

2) 부두별 평가

(1) 연안여객 · 국제여객 · 1 · 2부두

연안여객, 국제여객 · 1 · 2부두의 경우 대한민국의 근대역사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부두 안벽(일부)의 경우 2차 북빈 매립공사(1907년~1908년) 때 완공된 철도횡단교(1잔교) 안벽이 일부 보존되어



* 1915년 부산항전도와 항공도(2013) 활용하여 저자 제작
 <그림 5> 1부두 안벽의 변화 (좌)1915년 부산항전도 (우)현재의 1부두 안벽



* 좌: 釜山地方海運港灣廳, 1991, “釜山港史” / 우: 저자 촬영
 <그림 6> 2부두 안벽의 변화 (좌)1920년대 (우)현재



* 좌/우: 釜山地方海運港灣廳, 1991, “釜山港史”
 <그림 7> (좌)2부두에 상육한 군수물자(1950년) (우) 이승만대통령의 구호물자 인수식(1953년)



* 저자 촬영
 <그림 8> 3부두의 멩텅구리 블록 (좌)추출중인 블록 (우)블록에 표시된 일본 도장

있고, 2부두 안벽(일부) 또한 제1기 부산항 축항공사(1914년~1918년)때 완공된 2잔교 안벽의 일부가 보존되어 있어 유산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매축 초기 부관연락선의 운행(1905년 이키마루호 최초 출항)과 6.25전쟁 발발 후 피난민과 군수물자의 유입을 담당했던 1, 2부두는 현재도 여객 · 운송 기능을 이어가 부두 자체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952년 우리나라 최초 화물선(고려호)의 출항과 1957년 참치잡이 원양어선의 첫 출발지로서 1부두의 가치는 높게 평가된다.

(2) 중앙 · 3 · 4부두

중앙 · 3 · 4부두는 현재 북항재개발사업 1-1단계 공사로 매립 및 개발 진행 중이지만 안벽, 철로, 멩텅구리블록 등 선형의 자원들과 조명탑, 계선주 등 요소의 자원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부두의 많은 부분이 매립으로 원형 해안선(안벽)의 모습을 잃었지만, 매립과정 중 3 · 4부두의 일부 안벽은 본래의 해안선(안벽)을 개축하여 개발이 진행 중이며, 매립과정 중 추출된 멩텅구리블록은 안벽을 이루는 기초 기반시설로 안벽의 생성시기(블록 도장) 및 당시 매축기술을 확인 할 수 있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철도의 경우 재개발 과정 중 많은 부분이 훼손 · 해체 되었지만 4부두 입구 일부구간 남아있어 북항이 철로중심의 항만체제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주요자원으로 판단되며, 중앙, 3부두에 남겨져



* 좌: 釜山地方海運港灣廳, 1991, “釜山港史” / 우: 저자 촬영

<그림 9> 3부두에서 출항한 파월장병 (좌)1960년대 파월 환송식 (우)월남파병 참전용사



* 저자 촬영
 <그림 10> 자성대부두 컨테이너크레인 (좌)30.5톤(1978년) (우)40.6톤(1982년)

있는 조명탑, 계선주 역시 매립 전 해안선(안벽)의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주요자원으로 판단된다.

특히 3부두는 30만 파월장병들의 향수의 장소로서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정지된 기억을 담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다.

(3) 관공선 · 양곡 · 자성대부두

관공선, 양곡, 자성대부두는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로 70년대 초기 조성된 산업유산들이 대부분 남겨져있고 또한 현재에도 활발하게 북항의 물류(항만)산업을 담당하고 있어 컨테이너 부두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유산이다.

2003년에 매미태풍으로 인해 6기의 크레인이 손상되기도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크레인(1978년)인 30.5톤 1대와 첫 국내 기술로 생산(1982년)된 40.6톤의 컨테이너 크레인 2대가 운행 중에 있어 그 기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부두 조성과 함께 건설된 양곡부두 싸일로와 게이트 콤플렉스, 물류창고 등을 통해 컨테이너부두의 초기 물류(항만)산업의 시스템 이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보존방식에 따른 고찰

북항 잠재자산의 가치평가 결과 총 5가지 보존방식으로 구분되어 평가되었다.

특별보존의 경우 1, 2부두 안벽(일부), 사일로, 컨테이너 크레인(30.5t, 40.6t) 등의 자원이 추출되었다. 이는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며 부산의 정체성(identity)을 내포하는 중요자원으로써 특별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보존의 경우 연안여객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차량정비소, 자성대부두 보세창고, 소방펌프실, 선창계단, 조명탑, 철길, 문주, 차량승하선 발판, 게이트 콤플렉스 등의 자원이 추출되었다. 즉, 절대보존의 자원들은 물류(항만)시스템의 주요요소(자원)이며 대부분 건축물 또는 랜드마크적 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자원의 적극 활용(재활용,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보존가치가 높아, 앞으로 그 잠재 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선택보존의 경우 계선주, 방충재, 표탑, 경비초소, 컨테이너 사무실, 갯웨이 등의 자원이 추출되었다. 선

태보존의 자원들은 주로 과거의 이미지를 전달 할 수 있는 샘플자원으로써 가치가 충분하며 추후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일부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보존의 경우 안전모, 노동자 신발, 갈고리, 부두 출입증, 부산항 관련 지도 · 사진 · 도면류 등의 자원이 추출되었다. 이는 주로 휴먼스케일의 자원이거나 세간유산, 또는 북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자원으로 기록의 필요성이 높기 판단되어, 추후 아카이브센터 등에서 기록유산으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복원의 경우 대부분 해체 · 매장의 철길, 창고, 옛 세관, 옛 부산역 등의 자원이 추출되었고, 북항 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부에서도 많은 자원이 연구를 통하여 발견되었다. 해체 · 매장된 자원은 역사적 의미가 높아 앞으로 충분한 발굴 및 복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연안여객 · 국제여객 · 1 · 2부두의 자원은 부두 초기의 여객 · 운송 기능을 현재까지도 이어가면서 매립 초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안벽 등의 자원이 존치되어 가치가 높기 평가되고, 재개발 매립중인 중앙 · 3 · 4부두는 재개발과정에서도 당시의 기술과 시기를 확일 할 수 있는 명칭구리블럭 외에도 철도와 안벽 등의 선형의 자원들이 남아있어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관공선 · 양곡 · 자성대부두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로서 대한민국 최초의 컨테이너 크레인의 존치와 70년대 초기 산업시설들이 대거 분포로 앞으로의 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5. 결론

북항은 110여 년의 개발 역사를 가진 도시유산이자 근대기 대한민국의 물류(항만 · 여객)산업의 변천을 보여주는 부산의 핵심적인 산업유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비체계적인 유지 · 관리로 인해 북항은 역사 · 문화적인 잠재가치는 무시된 채 일반적인 개발대상으로 다루어져 해양과 내륙을 잇는 도시 내 워터프린트로서의 잠재력을 잃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작동중인 북항 내

산업시설을 통시적, 공시적 측면에서 가시적 지표자원과 향만변천과정 중 소멸·해체·매장된 비(非)가시적 자원들을 전수 조사하여 산업유산적 가치 및 특성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항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토대인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역사적 현장이자 부산 근대역사의 모태지로 평가된다. 북항은 물류(항만)산업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 산업의 기능을 두루 갖춘 다기능의 유산이자 해상 관문으로서 입지적 장점이 뛰어난 차별화된 워터프린트로서의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항구는 일반적으로 항만 및 물류시설 위주의 하드웨어, 사건·사고·이벤트 중심의 소프트웨어, 인물·삶·기억 중심의 휴먼웨어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작동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항의 하드웨어에 국한하여 조사·분석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가지며 타 워터프린트들과의 비교·평가를 거치지 못해 북항이 가진 산업유산적 차별성에 대한 결과치를 구체화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미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역사항구에 대한 자원을 조사하고 분석·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개항 150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부산, 인천, 군산, 목포 등 근대기 역사항구들의 가치 정립 및 일본, 중국, 대만, 자카르타,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의 근대 역사항구들과의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

- 1) 가치평가 근거 기준은 지표자원의 경우 3개의 항목(역사문화정, 기능성, 경관장소성) 점수의 합이 27점 이상이면 특별보존, 18점 이상 26점 이하면 절대보존, 9점 이상 17점 이하면 선택보존, 8점 이하면 기록보존으로 평가하고, 매장자원의 경우 18점 이상은 복원, 17점 이하는 기록보존으로 평가한다.
- 2) 전문가와 관계자의 인터뷰는 2013년 1월~2월, 총 4회에 걸쳐, 역사분야 3인, 도시설계분야 2인, 건축분야 2인, 창작분야 1인, 총 8명의 구성원으로 회의 형식의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다.
- 3) 1902년 북빈매립공사 시작에서 1983년 6부두(자성대부두)의 완공연도의 시기.

문헌

- 강동진 외 2인, 2003.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전방법 분석”, 국토계획, 38(2), 7-20.
- 강동진 외 3인, 2005. “부산시 건설산업유산의 실태 분석”, 국토계획, 40(6), 95-116.
- 강동진, 2010. “산업유산 재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법론 연구: 산업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11(1), 157-178.
- 강동진, 2013.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도시유산 개념 정의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6), 253-267.
- 강동진, 2015. “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경향과 논점 분석”, 국토계획, 50(2), 79-99.
- 최도석, 허운수, 2006. “부산항 북항 및 남항 일원의 연안역 개발방향에 대한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117.
- 이선주, 2009. “독일 하펜시티와의 비교를 통한 부산 북항 재개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태·강동진, 2009. “부산항 해안선의 변천과정 분석: 근대기 이후 시계열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0(4), 249-266.
- 차철욱, 2006. “부산 북항 매축과 시가지 형성”, 한국민족문화, 28, 1-36.
- 최해군, 2001. “내사랑 부산바다:부산항 변천사”, 부산광역시.
- 釜山地方海運港灣廳, 1991. “釜山港史”, 부산지방해운항만청.
-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2012. “부산근대지도 모음집”,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 부산항만공사, 2013.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역사문화 잠재자원 발굴 및 활용방안(연구: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 교신: 강동진, 48434, 경성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도시공학 전공
(e-mail: conkang@ks.ac.kr)
- Correspondence: Dong-Jin Kang, Dept. of Urban Engineering,
Kyungsung Univ., Pusan, Korea 48434
(e-mail: conkang@ks.ac.kr)
- 투 고 일: 2015년 7월 14일
심사완료일: 2015년 7월 18일
투고확정일: 2015년 7월 25일

세계유산 웹사이트 내용분석 및 제언

조 아 라*

Contents analysis and Suggestion of World Heritage Website

Ah-ra Jo*

초 록: 최근 들어 정보처리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은 일반 이용자들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정보나 데이터에 신속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3년 기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여행정보를 입수한 경로는 '인터넷'이 61.8%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화관광정보를 입수하는 횟수의 증가에 발맞춰 세계유산 사이트에서도 자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해당 세계유산의 정보 및 관광안내를 돕고 있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계유산 사이트를 15군데 지정하여 그 웹사이트의 내용들을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공통점, 차이점 및 특징 등을 알아보고, 대중인식의 확산 및 문화관광 정보 공유를 목표로 하는 세계유산 웹사이트의 구성요소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주요어: 세계유산, 웹사이트, 홈페이지, 인터넷, 문화관광정보

Abstract: In recent years, there are the rapid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Internet in accordance with the spread of the Internet and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General users are provided the opportunity to use to quickly access the information or data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According to statistics in 2013, 61.8 percent foreign tourists who visited Korea obtained travel information by 'Internet'. Thus there are cases using the Web-site in the World Heritage site to help someone to guide and gather the tourism inform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 In this study, 15 World Heritage sites that operates its own Web-site are analyzed contents to find out something in common or different. So this paper aims to talk about the components and challenges for the future of the World Heritage Web-site.

Key Words: World Heritage, Web-site, Homepage, Internet, cultural tourism information

1. 서론

유네스코가 지정하고 있는 유산(Heritage)은 유형 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을 총괄한다. 유네스코에서는 유산을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유형문화유산인 세계유산(World Heritage)은 1972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근거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지칭한다. 세계유산은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산협약에 1988년 가입하였으며, 2014년 7월 현재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은 191개국이다. 세계유산은 전 세계 161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1007점(2014년 6월 현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문화유산이 779점, 자연유산 197점, 복합유산이 31점이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4; 최재현, 이혜은, 2012 재인용).

세계유산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정의, 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노력의 필요성,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

* 건국대학교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석사과정(World Heritage Program,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세계유산위원회) 및 총회에 대한 안내, 세계유산기금 설치 및 사용기준, 일반인들의 세계유산 보호 인식 증진 교육 및 정보 제공 권장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이 있다.

200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지정유산 종합 안내 웹사이트를 개편하였다. 또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보급, 새로운 정보기술을 접목한 유네스코 지정 유산 관련 심층정보의 효과적인 보급, 유네스코 지정 유산에 대한 정보·자료 구축 및 활용, 국내외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¹⁾

이러한 종합안내 웹사이트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네스코 지정유산 관련 심층정보 및 대중의 참여확대 및 대중의 인식 증진을 위해서는 각 유산의 자체 웹사이트를 구축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리, 운영되는 유산의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대중은 유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주 업데이트 되는 유산의 소식,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관광 일정 계획 및 관심 전시, 체험활동 선택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참여를 확대시키는 데에 유산의 자체 웹사이트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들어 정보처리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은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자원의 급증과 더불어 이용자 즉, 학생, 교수, 연구자 및 일반 이용자들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정보나 데이터에 신속하게 접근하여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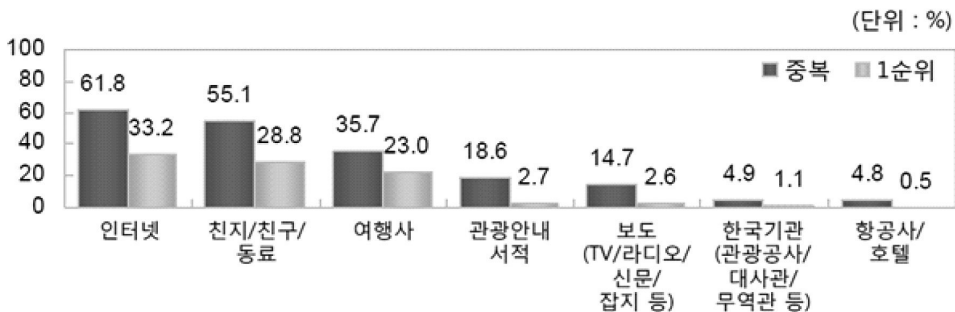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응봉, 1999). 또한 2013년 기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여행정보를 입수한 경로는 ‘인터넷’이 61.8%(2012년 대비 약 2% 증가)로 가장 많았고, 친지/친구/동료, 여행사 순이었다(그림 1).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고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화관광정보를 입수하는 횟수의 증가에 발맞춰 세계유산 사이트에서도 자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해당 세계유산의 정보 및 관광안내를 돕고 있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계유산 사이트를 15군데 지정하여 그 웹사이트의 내용들을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공통점, 차이점 및 특징 등을 알아보고, 대중인식의 확산 및 문화관광 정보 공유를 목표로 하는 세계유산 웹사이트의 구성요소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세계유산은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체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 세계유산의 문화유산 10곳, 그리고 자연유산 5곳을 선택하여 총 15군데를 분석하였다(표 1). 문화유산에는 요새(Fortress)와 궁(Palace) 각 5곳을 선정하였다. 복합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유산은 다른 유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림 1〉 한국여행정보 입수경로, 한국관광공사,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p.95, 그림 3-8

〈표 1〉 세계유산 웹사이트 15곳 선정

	세계유산 명칭	국 가	유산분류	등재기준	웹사이트 주소
1	남한산성/Namhansanseong	한 국	문화(요새)	(ii), (iv)	http://nhss.ggcf.kr/
2	수오멘린나 요새/ Fortress of Suomenlinna	핀란드	문화(요새)	(iv)	http://www.suomenlinna.fi/
3	브림스톤 힐 요새 국립공원/ Brimstone Hill Fortress National Park	세인트키츠네비스	문화(요새)	(iii), (iv)	http://www.brimstonehillfortress.org/
4	보방의 요새 시설/ Fortifications of Vauban	프랑스	문화(요새)	(i), (ii), (iv)	http://www.swites-vauban.org/
5	아그라 요새/Agra Fort	인 도	문화(요새)	(iii)	http://agrafort.gov.in/
6	창덕궁/ Changdeokgung Palace Complex	한 국	문화(궁)	(ii), (iii), (iv)	http://www.cdg.go.kr/main/main.htm
7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 Palace and Park of Versailles	프랑스	문화(궁)	(i), (ii), (vi)	http://chateauversailles.fr/homepage
8	블레넘 궁전/Blenheim Palace	영 국	문화(궁)	(ii), (iv)	http://www.blenheimpalace.com/
9	쇤브룬 궁전과 정원/Palace and Gardens of Schonbrunn	오스트리아	문화(궁)	(i), (iv)	http://www.schoenbrunn.at/
10	베이징의 황실 정원, 이허위안/ Summer Palace, an Imperial Garden in Beijing	중 국	문화(궁)	(i), (ii), (iii)	http://www.summerpalace-china.com/
11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한 국	자 연	(vii), (viii)	http://wnhcenter.jcu.go.kr/
12	바덴 해/The Wadden Sea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자 연	(viii), (ix), (x)	http://www.waddensea-worldheritage.org
13	코모도 국립공원/ Komodo National Park	인도네시아	자 연	(vii), (x)	http://www.komodo-park.com/index.php
14	시레토코/Shiretoko	일 본	자 연	(ix), (x)	http://www.goko.go.jp/
15	이구아수 국립공원/ Iguazu National Park	아르헨티나	자 연	(vii), (x)	http://www.cataratasdoiguacu.com.br/

2) 연구내용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기준표를 <표 2>에 제시한다. 각 평가 사이트마다 상이한 평가요인을 가지고 있다.

<표 2>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평가 사이트들은 상업적이거나 홍보적인 성격을 띠는 웹사이트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였다. 상품이나 거래, 비즈니스, 기술 등 경제계 위주의 평가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문화관광 웹사이트만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이트는 극히 드문 실정임을 알 수 있다(김희경, 2007).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관광분야 홈페이지 평가지표(2008)’를 참고 및 수정하여 세계유산의 웹사이트들을 분석하였다. 상업적인 웹사이트들과는 달리 세계유산 웹사이트들은 정보 및 관광안내를 목표로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있기에, 한국관광

공사의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세계유산에 맞게 수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계유산 웹사이트들이 어떤 내용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공통점 및 차이점, 각 사이트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목적 이므로, 한국관광공사의 평가지표에 나와있는 비율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였다. 또한 웹사이트의 디자인, 영어서비스 부분도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웹사이트의 디자인에 대한 영역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영어서비스 부분은 본인이 선택한 세계유산사이트 15곳이 모두 영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에 삭제하였다. 대신 많은 대중이 세계유산적 가치와 보존관리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어야 하기에, 세계유산 웹사이트가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계유산정보’에 대한 영역을 추가하는 등 약간의 수정을 가하

〈표 2〉 웹사이트 평가 사이트와 평가요인

구분	평가사이트	평가요인
국 내	한국관광공사(http://www.knto.or.kr)	콘텐츠, 사용성(사용자 편의), 디자인, 상호작용성
	한국인터넷대상(http://www.contest.co.kr)	정부가치성, 주제충실도, 표현성, 디자인, 구현기술난이도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유저인터페이스, 디자인, 콘텐츠, 커뮤니티, 기술, 신뢰성, 전략, 비즈니스
	한국능률협회(http://www.kma.or.kr)	시스템평가(상호작용성, 편리성, 시각디자인, 보완성), 상품/정보의 다양성, 상품/정보의 신뢰성, 비용, 정보의 개별성, 종합적 만족
	한국웹사이트평가개발원(http://www.kwi.or.kr)	3C-D-T(Contents, Community, Commerce, Design, Technology)
	HuNet(http://www.hunet.co.kr)	Contents, Commerce, Communication, Community, Customer, Design, Safety&Technology
국 외	PCMagazine(http://www.pcmag.com)	Design, Performance, Security, Usability
	Webjective(http://www.webjectives.com)	Site Contents, Site Design, Site Usability, Online Tactics, Partner Site, Competitor site의 구성요소(Components)
	The Webby Awards (http://www.webbyawards.com)	Contents, Structure and Navigation, Visual Design, Functionality, Interactivity, Overall Experience

〈표 3〉 분석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항목)
관광 정보	관광 안내	소개/ 요금/ 찾아가는 방법/ 약도/ 부가정보 등
	문화관광 정보	역사/ 전통문화/ 문화시설/ 유무형 문화재 등
	축제/행사 정보	축제 검색/ 이달의 축제/ 축제 소개와 행사 프로그램/관련 축제 이미지나 동영상 등
	교육/체험 정보	교육, 체험활동 소개/ 프로그램 예약/ 관련 이미지나 동영상
	멀티미디어 정보	e-Book 등 온라인 브로쉬어/ 포토갤러리/ 동영상/ VR/ 지도 등
	여행계획 정보	그룹 여행 안내/ 예약안내/ 일정 또는 코스 관련 정보 등
세계유산정보	세계유산 설명	유네스코 지정 유산에 대한 설명/ 세계유산 안내 등
	세계유산적 가치	각 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 세계유산임을 언급 등
	보존관리	각 유산의 보존 현황/ 보존계획 등
사용자 참여	사용자 참여	자유게시판/ 여행후기/ 이벤트/ 네티즌평가/ 설문조사 등
운영 관리	서비스 관리	Q&A/ 공지사항/ 게시판 관리/ 콘텐츠 업데이트 점검/ FAQ 등
	관리센터 정보	관리센터 안내/ 연락처 등

여 <표 3>과 같은 분석기준을 마련하였다.

3. 세계문화유산 웹사이트의 내용 및 특징

3) 자료분석

각 웹사이트마다 매우 다양한 메뉴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표 3> 분석기준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 하나라도 찾을 수 있으면 ○, 관련 정보가 하나도 없으면 빈칸으로 남겨두었다. 세계문화유산 요새(fortress)와 궁(palace),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각 5곳씩 총 15곳을 살펴보았으며, 4곳 이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에는 음영을 주었다. 또한 비교란에 사이트만의 특징적인 점을 보충 설명해 두었다.

세계문화유산 웹사이트 중 대다수에서 관광정보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해당 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한 언급도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남한산성(한국)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참여를 위한 자유게시판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요새에 해당하는 세계문화유산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 남한산성과 보방의 요새시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남한산성(한국)의 웹사이트에서는 자원봉사

〈표 4〉 세계문화유산 요새(Fortress) 웹사이트 구성내용

		남한산성	수오멘린나	브리튼스톤 힐 요새 국립공원	보방의 요새 시설	아그라 요새	합계
관광정보	관광안내	○	○	○	○	○	5
	문화관광 정보	○	○	○	○	○	5
	축제/행사 정보	○	○	○	○		4
	교육/체험 정보	○	○				2
	멀티미디어 정보	○	○	○	○	○	5
	여행계획 정보	○	○				2
세계유산정보	세계유산 설명	○	○		○		3
	세계유산적 가치	○	○	○	○	○	5
	보존관리	○	○	○	○		4
사용자 참여	사용자 참여		○				1
운영관리	서비스 관리	○		○	○		3
	관리센터 정보	○	○	○	○	○	5
비고		한사랑지킴이(자원봉사), 영상 아카이브, 오디오가이드북다운, 걷기 코스 안내, 자연생태에 관한 설명, 무형문화재 소개, 교육프로그램 예약, 자금운용보고서	스카이뷰		파트너 안내, 교사·프로페셔널 자료, Resource Center 웹사이트가 따로 링크되어있음(역사, 연구자료 및 보존관리 등)	다양한 편의 시설 안내(병원, 은행 등)	

단에 관한 소개와 다양한 걷기 코스, 자연유산이 아님에도 남한산성 내의 자연생태에 대한 사진과 정보, 그리고 자금운용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남한산성 내의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의 문화재(제향의식, 도당굿, 문학작품 등)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어있으며, 웹사이트 내의 정보가 언제 업데이트되었는지에 대한 기록(그림 2)이 있었다. 이 기록으로 인해 그 정보에 대해 신뢰가 갔고, 관리센터에서 서비스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용자의 체험, 교육프로그램 후기, 관람후기 등을 남길 수 있는 자유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어 사용자와의 소통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방의 요새시설(프랑스)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6. 방자호란의 역사적 사진과 관련된 다수의 한시와 고서 및 설화를 비롯하여 이화사, 김윤 등의 문학작품과 유지를 '남한산성'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한 문화예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컨텐츠 정보에 관해 궁금하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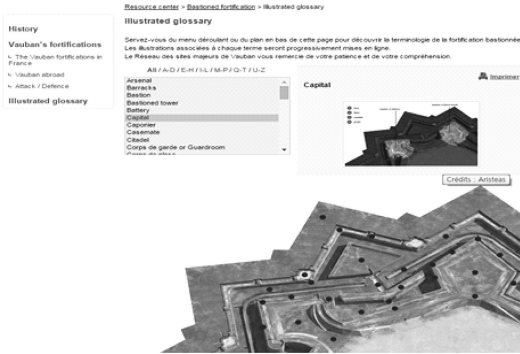
Update 2014-08-13 / 2483916

〈그림 2〉 남한산성 웹사이트 내에 기록된 ‘업데이트 날짜/읽은 사람수’(http://nhss.ggcf.kr/heritage/value-of-namhansansung)

Resource Center 웹사이트(그림 3)를 따로 링크를 걸어두었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유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유산에 대한 연구자료, 보존관리 등)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대표 웹사이트는 일반 사람들용, Resource Center 웹사이트는 전문가용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자료를 선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Resource Center 웹사이트에서는 보방의 요새시설에 관한 용어를 쉽게 그림으로 풀어 설명하는 페이지(그림 4)도 있고, 요새시설 관련 서지 정보, 온라인 문서 등을 아카이브에서 검색하여 찾을



〈그림 3〉 보방의 요새시설 Resource Center (http://www.sites-vauban.org/Resource-center)



〈그림 4〉 보방의 요새시설 Resource Center 웹사이트 내의 관련 이미지 용어설명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세계문화유산 중 ‘궁’에 해당하는 웹사이트 구성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한다(표 5).

이 중에서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 블레넘 궁전, 쉐브른 궁전과 정원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 위해 한다.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프랑스) 웹사이트에서는 자금운용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궁과 정원을 가상현실로 구현하여 제공하고 있다(그림 5). 다양한 시기의 베르사유 궁전의 모습을 가상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약간 아쉬운 점은 다른 장소로 이동 시 로딩이 길다는 점과 아무 곳



〈그림 5〉 베르사유 궁전 1715년 재현(<http://www.versailles3d.com/en/discover-the-3d-scale-models/1715.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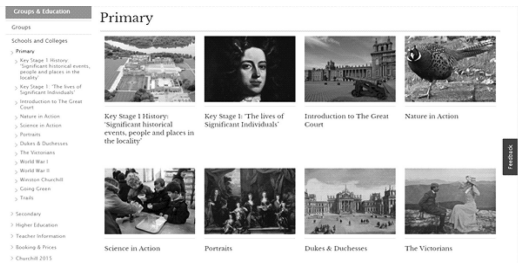
이나 이동이 가능한 것이 아닌 표시된 곳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그림 5에서 보면 계속 직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의 Parterre nord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블레넘 궁전(영국) 웹사이트에서는 유산의 활용과 보존, 또한 로컬커뮤니티의 활동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활용적 측면으로는 What's On이라는 항목에 다양한 전시 및 음악회 안내(1년간의 전시계획 및 전시설명)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전시가 열릴 때를 선택하여 방문이 가능하다, 계절에 따라 하면 좋을 활동들을 제안하고 있다(보고 작성 무렵-3월-에는 10 Things to do this Spring). 또 Groups&Education 항목에는 그룹으로 오는 분들에 대한 안내와 연령대별로 다양한 교육을 안내하고 있다. 연령대는 Primary, Secondary, Hig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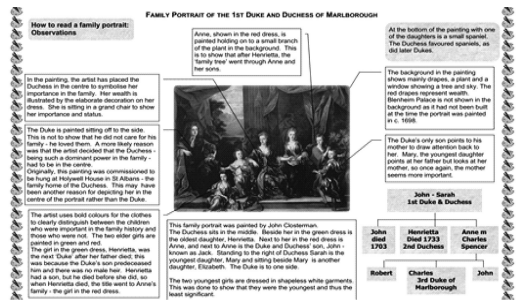
〈표 5〉 세계문화유산 궁(Palace) 웹사이트 구성내용

		창덕궁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	블레넘 궁전	쉐브른 궁전과 정원	베이징의 황실 정원, 이허위안	합계
관광정보	관광안내	○	○	○	○	○	5
	문화관광 정보	○	○	○	○	○	5
	축제/행사 정보		○	○	○	○	4
	교육/체험 정보	○	○	○	○		4
	멀티미디어 정보	○	○	○	○	○	5
	여행계획 정보	○	○	○	○	○	5
세계 유산정보	세계유산 설명						0
	세계유산적 가치	○	○	○	○	○	5
	보존관리		○	○			2
사용자참여	사용자 참여						0
운영관리	서비스 관리	○	○	○	○	○	5
	관리센터 정보	○	○	○	○	○	5
비 고	관람 및 문화학교 예약 시스템, 창덕궁 지킴이(봉사활동)	자금 운용 프로젝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가상현실	로컬커뮤니티, 지속가능함(정책 등), 다양한 활동(낭시, 음악회, 자선활동, 다양한 전시회 등)	Imperial Children(어린이 프로그램, 어린이 박물관), Conference Centre, Imperial Furniture(가구 박물관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360도 로드뷰		

Education과 Teacher Information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령별 교육은 역사, 초상화, 자연 및 과학, 세계전쟁 등으로 구성되며(그림 6), Teacher Information에서는 선생님에게 유용한 체험안내를 PDF파일로 제공하고 있다(그림 7). 또한, 보존관리 차원에서는 어떤 보수작업을 했는지, 지속가능을 위



〈그림 6〉 블레넘 궁전 웹사이트의 교육파트(<http://www.blenheimpalace.com/education/schools-and-colleges/primary/>)



〈그림 7〉 선생님용 체험활동 안내지(<http://www.blenheimpalace.com/assets/files/downloads/education-trails/Portraits.pdf>)

Exhibition archive

Exhibition	Subtitle	Period	Poster
Evil Things	An encyclopaedia of bad taste	19.2. - 6.7.2014	
Maximilian of Mexico	The dream of imperial rule	6.3. - 18.8.2013	
→ Sisi on Corfu	The Empress and the Achilleon	26.9. 2012 - 27.1.2013	
→ Marcel Breuer	Design and Architecture	16.3 - 3.7.2011	

〈그림 8〉 가구박물관 전시 아카이브(<http://www.hofmobiliendepot.at/en/ausstellung/ausstellungsarchiv.html>)

한 정책들과 프로젝트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등재신청 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로컬커뮤니티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블레넘 궁전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 등은 세계유산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보수 및 관리를 통해 세계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윈브룬 궁전과 정원(오스트리아) 웹사이트에서는 Imperial Children(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프로그램), Imperial Furniture(가구 박물관) 웹사이트를 따로 링크를 걸어두었고, 그 링크를 열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대상 및 주제별로 웹사이트 구성내용을 각각 따로 만들어 대상 및 주제에 맞는 좀 더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mperial Furniture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가구박물관에 대한 소개 및 전시 일정, 진행해왔던 전시들의 아카이브(그림 8) 등을 제공한다.

4. 세계자연유산 웹사이트의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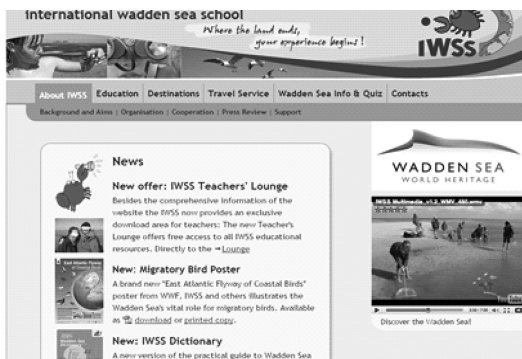
대다수 세계자연유산 웹사이트에는 관광정보, 세계유산적 가치, 관리센터안내 등이 소개되어 있다. 세계문화유산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한국)을 빼고는 자유게시판을 마련해 놓은 곳이 없어 사용자와 소통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표 6).

이 중 바덴해(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의 경우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각 지역별 웹사이트가 따로 있고, 대표 웹사이트에 링크를 걸어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길이나 편의시설, 축제 및 행사, 체험프로그램들도 각 지역에 따라 다르다. 바덴해에서는 교육의 일환으로 'The International Wadden Sea School'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9). IWSS의 목표 및 유산과 관련된 뉴스거리, 다양한 교육 활동과 체험활동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바덴해 웹사이트에서는 실제지도를 제공하는데, 여러 레이어를 겹쳐 볼 수 있도록 해놓아서 어디까지가 보존지역인지, 어디까지가 유산지역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0).

다음으로 시레토코(일본)를 살펴보면, 산책로를 고가목도(高架木道)로 만들어 그 위를 지나다닐 수 있

<표 6> 세계자연유산 웹사이트 구성내용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바덴 해	코모도 국립공원	시레토코	이구아수 국립공원	합 계
관광정보	관광안내	○	○	○	○	○	5
	문화관광 정보					○	1
	축제/행사 정보	○	○			○	3
	교육/체험 정보		○			○	2
	멀티미디어 정보	○	○	○	○	○	5
	여행계획 정보	○	○		○	○	4
세계유산 정보	세계유산 설명	○					1
	세계유산적 가치	○	○	○		○	4
	보존관리		○	○		○	3
사용자 참여	사용자 참여	○					1
운영관리	서비스 관리	○	○		○	○	4
	관리센터 정보	○	○	○	○	○	5
비 고		관리센터내부 시설 뷰	실제지도(다양한 레이어: 보존지역, 세계유산지역 등), 각 지역별로 웹사이트 링크(지역별 숙박, 체험프로그램 등 다름)	여러 서식생물 사진 및 설명	이용 금지 구역, 이용 제한기간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헬기, 사파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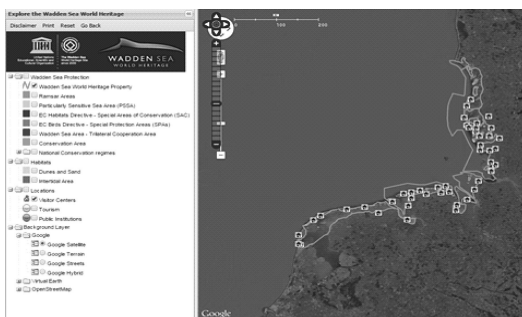
<그림 9> The International Wadden Sea School (<http://www.iwss.org/>)

게 하였다. 다리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요한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이용인원수의 조정 및 이용구역 제한 등을 실시함으로써, 인간의 활동이 자연에 최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자연경관이나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책들을 통해 유산 내의 생물서식지 및 생물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연구결과

본고에서 살펴본 웹사이트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표 7>과 같다. 관광정보 중 관광안내와 멀티미디어 정보, 세계유산정보 중 세계유산적 가치 그리고 운영관리 중 관리센터정보는 총 15곳 중 14곳 이상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사용자와의 소통이 가능한 창구를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 사이트는 거의 없었다. 단지 '남한산성(한국)'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한국)'에서만 자유게시판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웹사이트를 둘러보니 정보의 양이나 질이 부족한 웹사이트가 많았다. 추후에 세계유산의 웹사이트를 구축할 시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한다



<그림 10> 바덴해 지도 및 다양한 레이어(<http://www.waddensea-worldheritage.org/cwssmap/popup.html?wms=centers>)

〈표 7〉 내용별 총 합계(14곳 이상 음영)

	관광정보						세계유산정보			사용자 참여	운영관리	
	관광 안내	문화관광 정보	축제/행사 정보	교육/체험 정보	멀티미디어 정보	여행계획 정보	세계유산 설명	세계유산적 가치	보존 관리	사용자 참여	서비스 관리	관리센터 정보
총 합계	15	11	11	8	15	11	4	14	9	2	12	15

면 일반인들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① 유산 설명(등재기준, 세계유산적 가치 등)
- ② 지도(+항공사진)
- ③ 역사(+옛날자료-고문헌, 고지도, 옛사진 등)
- ④ 사진 및 영상(구체적으로-찍은 장소+대상물의 명칭+내용)
- ⑤ 무형적인 전통: 춤, 음악(영상, 소리) 혹은 관련 설화(스토리텔링), 유산과 관련된 문학작품·뮤지컬 정보 등
- ⑥ 관광안내(탐방지도, 관람시간 및 가격 등)
- ⑦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전시회 안내
- ⑧ 사용자 자유게시판(이용후기, 이벤트 등)
- ⑨ 관리센터 안내 및 연락처

6. 결론

인터넷을 통해 문화관광의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자체의 웹사이트구축은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또한 문화관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정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 세계유산 웹사이트 구축할 경우, 유산설명, 지도, 유산의 역사, 사진 및 영상, 무형적인 전통, 관광안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안내, 사용자 자유게시판, 관리센터 안내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유산이 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지, 세계유산적 가치 및 그 유산이 충족시킨 등재기준은 몇 번이었는지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대중의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웹사이트 내에 자유게시판을 활성화하여 유산의 이용후기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면, 세계유산 웹사이트가 세계유산과 대중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만을 제공하는 정보원이 아닌, 서로 쌍

방향적인 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을 위해 접속했던 웹사이트들 중에는, 이 웹사이트가 업데이트 및 관리되고 있는지, 또 웹사이트 내의 정보가 과연 신뢰할만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고 있는 웹사이트들도 있었다. 웹사이트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꾸준한 업데이트와 정보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웹사이트를 관리할 재정,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1000개가 넘는 세계유산 중에 15개의 웹사이트 밖에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웹사이트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되어있다 보니,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어버전으로 바꾸어 살펴본다. 영어버전에서는 정보를 간략하게만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있어 분석이 완벽하지 못하다. 추후에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

- 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웹사이트 참고(접속일: 2015. 2. 17.) <http://www.unesco.or.kr/>

문헌

- 최재현, 이해은, 2012,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성곽유산의 활용: 중국 평야오성과 원상도(Xanadu) 유허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3), 1-17.
- 이용봉, 1999, “인터넷 웹사이트 문서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내용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0(1), 151-169.
- 김희경, 2007, “지역문화관광 웹사이트의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문화관

광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38(4), 88-118.

육주혜, 2007,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접근성 및 특수교육 콘텐츠 현황분석”, 특수교육 재활과학연구, 46(1), 101-108.

한국관광공사,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관광공사, 2008, 지자체 관광분야 홈페이지 평가 지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unesco.or.kr/>

남한산성 웹사이트 <http://nhss.ggcf.kr/>

수오멘린나 요새 웹사이트 <http://www.suomenlinna.fi/>

브림스톤 힐 요새 국립공원 웹사이트 <http://www.brimstonehillfortress.org/>

보방의 요새시설 웹사이트 <http://www.sites-vauban.org/>

아그라 요새 웹사이트 <http://agrafort.gov.in/>

창덕궁 웹사이트 <http://www.cdgo.kr/main/main.htm>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 웹사이트 <http://chateaufersailles.fr/homepage>

블레넘 궁전 웹사이트 <http://www.blenheimpalace.com/>

쾨브룬 궁전과 정원 웹사이트 <http://www.schoenbrunn.at/>

베이징의 황실정원, 이허위안 웹사이트 <http://www.summerpalace-china.com/>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웹사이트 <http://wnhcenter.jeju.go.kr/>

바덴해 웹사이트 <http://www.waddensea-worldheritage.org>

코모도 국립공원 웹사이트 <http://www.komodo-park.com/index.php>

시레토코 웹사이트 <http://www.goko.go.jp/>

이구아수 국립공원 웹사이트 <http://www.cataratasdoiguacu.com.br/>

교신: 조아라,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e-mail: ahra69@naver.com)

Correspondence: Ah-ra Jo, World Heritage Program in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05029

(e-mail: ahra69@naver.com)

투 고 일: 2015년 6월 26일

심사완료일: 2015년 7월 13일

투고확정일: 2015년 7월 20일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지역연계 테마관광루트 구상

홍 현 철*

An Idea on the Thematic Tourism Routes Linked to the Regions in the Baekje Historic Areas

Hyun-Cheol Hong*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유산 등재 잠정목록인 백제역사유적지구의 8개 유적과 관련된 백제왕의 계보에 얽힌 수수께끼를 스토리로 엮는 지역연계 테마관광루트를 설정하는 것이다. 백제왕의 계보를 둘러싼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등 고문헌의 기록은 서로 다르고, 이를 둘러싼 학자와 연구자들의 다양한 추론을 다양하다. 이를 바탕으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 걸쳐 분포하는 8개 유적을 두루 거치며, 문주왕의 웅진천도에서 의자왕의 백제멸망에 이르는 백제 후기의 왕의 계보를 재조명한다. 출생 비밀에 얽힌 제25대 무령왕에서 사비천도를 이룬 제26대 성왕, 그리고 익산을 중심으로 서동요의 스토리를 남기고 있는 제30대 무왕과 비운의 제31대 의자왕에 이르는 역사적 수수께끼로 구성된다. 이 테마관광루트는 공주 공산성에서 부여 능산리고분군에 이르는 코스와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지를 둘러보고 부여의 왕흥사지에 이르는 코스로 구분된다.

주요어: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수수께끼, 연계코스, 테마관광루트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et up the thematic tourism routes linked to the regions through which the mysteries involved with the genealogical table of the kings of the Baeje Kingdom(18. B.C.-A.D. 660) relevant to the 8 remains of the Baeje Historic Areas, which were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is to be weaved each other as a story.

The records of ancient writings on the family tree of the Baekje Dynasty's kings are different one another and the inference of the scholars and researchers who explore on them are also diverse. Such old documents include "Samguk-sagi," or The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Samguk-yusa," or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and "Nihon Shoki." Covering the 8 historic remains of the Baekje Kingdom scanning Gongju City, Buyeo-gun and Iksan City in the areas, this study intends to shed light on the genealogy of the kings in the late Baekje Kingdom from the transfer of its capital to Woongjin during the reign of King Munju to the collapse of the dynasty during the reign of King Uija.

With regard to the historic mystery, the study targets the areas which were governed by King Muryeong, the 25th king who had the secrets of his birth, King Seong, the 26th king who ended up moving its capital to Sabi, King Mu, the 30th king who left behind a story of "Seodongyo," a song which was used by an ambitious young man called Seo-Dong to marry a beautiful princess called Seon-hwa around Iksan, and King Uija, the tragic 31th king who led to the fall of the dynasty. And the thematic tourism routes consist of 2 courses: Course 1 which connects to Gongju and Buyeo; and Course 2 which connects to Iksan and Buyeo.

Key Words: Baekje Historic Areas, UNESCO World Heritage, mistery, linked course, thematic tourism route.

* 건국대 이과대 지리학과/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교수(Professor, Geography Department, College of Science / World Heritage Program,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1. 서론

2010년 한국의 역사마을인 하회와 양동마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4년 만에, 2014년 남한산성,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2년 연속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그 이해도도 무척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 년 전 만 하더라도 국민은 세계유산에 대해 이렇게 높은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아직 세계유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며, 유산과 관련된 주제는 지리학자의 중요한 주제로서 지리학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연구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역사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유산이므로, 역사학과는 물론 지리학, 관광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취급될 수 있는 주제이기도하다(이혜은, 2011). 특히 지리학에서도 역사지리학 관점과 관광지리학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역사지리학이나 관광지리학 모두 지리적 관점에서 대상물을 취급하므로 지리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한편, 백제역사유적이 세계유산 특히 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있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주요 등록 조건으로 되어있으며, 이러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충족하여야 한다.¹⁾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역사학, 건축학, 지리학 등 다양한 학문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계획과 활용계획도 필요하다.

특히 세계유산에 대한 보존관리계획과 활용계획은 추진단체나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자체에서 관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은 시·군 등의 행정단위로 볼 때, 불국사와 석굴암과 같이 경주시 하나의 행정단위 내에 분포하는 유적도 있으며, 남한산성과 같이 단일 유적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등 복수의 행정구역의 경계가 맞물려진 경우도 있다. 또한 한국의 역사마을처럼 안동과 경주시와 같이 유적간의 거리가 장거리인 경우도 있다. 특히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의 3개 시

군에 산재 분포하는 8개 유적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역사마을(하회, 양동)이나 고인돌 유적(고창, 화순, 강화)처럼 먼 거리는 아니지만 인접한 3개 시·군에 위치하는 특징이 있으며 3개 시·군 간의 이동은 승용차로 1시간대로 연계 가능한 거리이다. 이러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대상으로 테마관광루트를 개발한다는 것은 세 개의 시·군에 산재하는 유산 간을 유연성 있게 연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성격 나아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산을 하나의 관광루트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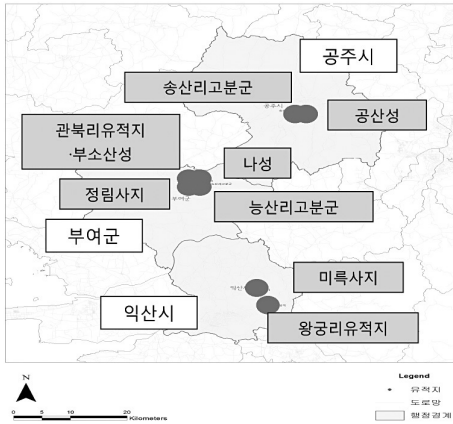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8개 백제역사유적을 대상으로 하여, 3개 시·군을 연계하는 테마관광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때 관광루트의 테마로서 백제왕들에 얽힌 역사적 미스테리를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수수께끼는 8개 유산지역과 관련된 주변 관광지에서 음미하도록 구성하였다.

2. 백제역사유적의 분포와 수수께끼 테마의 연계요소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된 8개 유적은 공주시의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부여군의 관북리유적지와 부소산성, 정립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익산시의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지이다. 이들 유적은 행정구역상 공주시와 부여군은 충청남도에, 익산시는 전라북도에 속하고 있어 유적에 대한 활용과 보존·관리 등에서 많은 장애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도와 시·군 간의 협조가 필연적인 유산이기도하다.

한편 3개 시·군은 서로 인접한 행정구역으로 금강을 끼고 연계되어 있다. 공주시와 부여군의 6개 유적은 금강에서 가깝게 위치하며, 익산시의 2개 유적은 금강 동쪽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그나마 금강이라는 지리적 요소에 의해 그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다.

3개 시·군에 분포하는 8개 유적들은 OUV에 있어서 매우 공통된 세부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OUV 간 연계성은 백제역사유적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각각의 유적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그 연계관계는 더욱 뚜렷하다. 예를 들어 공산성과 부소산성은 도성이라는 경관적 일치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동



〈그림 1〉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산분포

북아시아의 도성의 교류, 백제만의 고유특성 등에서 ii) iii) OUV 기준²⁾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공주시 공산성 내의 왕궁터, 부여시의 관북리유적지, 익산시의 왕궁리유적지 등은 왕궁터라는 공간배치와 입지 등 도시계획 측면에 매우 동일한 OUV를 갖고 있다. 이밖에도 능묘, 사찰 등의 유적들도 그 맥을 같이한다.

한편, 이러한 8개 유적은 지리적 분포 또는 OUV 관련 연의 연관성 이외에도 백제왕국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역사·공간·시간적 연속성도 갖고 있다. 한성백제 이후 웅진백제에서 사비백제로 이어지는 도성천도와 무왕의 익산천도설 등은 시간에 따라 지역의 공간적 연속성과 역사적 흐름을 갖는 요소이며, 각 시대를 통치했던 백제왕족의 계보 또한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공간적 연속성이 반영된 지구 간 연계

관광루트의 구축은 본 연구의 목적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분리된 행정구역을 동일 주제로 엮어 유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학자는 예외로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백제왕제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더욱 그들과 관련된 수수께끼는 더욱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도 하다.

특히 이 지역은 백제왕의 계보와 관련하여 웅진천도를 이룬 문주왕에서부터 백제 멸망에 이룬 의자왕에 이르는 역사적 사건이 풍부하며, 각각의 백제역사 유적은 각 왕들과 깊은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웅진백제의 중흥을 이룬 무령왕릉은 농산리고분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비천도를 이룬 성왕의 업적은 부여시를 중심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또한 무왕은 부여뿐만 아니라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지를 중심으로 그에 얽힌 많은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다.

3. 공주-부여지구연계 수수께끼 관광루트의 구축

공주에서 부여로 연계되는 수수께끼 코스는 무령왕을 중심으로 선대의 왕과 아들 성왕에 얽힌 역사적 수수께끼를 통해 유적 간 공간연계를 이루는 코스이다. 코스의 이동 순서는 송산리고분군→공산성→관북리유적지와 부소산성→농산리고분군으로 이어진다. 총소요시간은 교통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승용차나 관광버스를 기준으로 5~6시간이 예상된다.

〈표 1〉 대상 유적과 지역별 수수께끼의 선택

지역	유적	선택요소	수수께끼
공주시	공산성	공간성의 지정학적 입지	문주왕 웅진천도?
	송산리고분군	무령왕릉	무령왕출생의 비밀과 곤지?
부여군	관북리유적지와 부소산성	사비도성의 공간배치	성왕의 사비도성 계획?
	농산리고분군	고분군과 의자왕릉	성왕릉은? 의자왕의 어머니는?
	왕흥사지	왕흥사지와 무왕	왕흥사의 창건은? 무왕의 행보?
익산시	서동공원	서동과 선화공주상	서동요?
	미륵사지	동탑과 서탑	선화공주인가? 사탁씨왕후인가?
	무왕쟁가터	무왕의 출생	무왕출생의 비밀?
	오금산	금덩어리	금을 캘 수 있나?
	왕궁리유적지	석탑과 왕궁터	천도인가? 별궁인가?

이 때 각 유적지 내 소요시간은 송산리고분군, 공산성, 능산리고분군은 1시간 정도면 다른 유적을 포함한 관람이 가능하다. 단 관북리유적지와 부소산성은 관람하는 코스에 따라 1~2시간의 편차가 심하다.

‘수수께끼 1코스’의 첫 번째 수수께끼에는 곤지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무령왕과 곤지의 관계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간다. 송산리고분군의 최대의 볼거리는 무령왕릉 전시관으로 의문투성이인 무령왕의 출생 비밀을 풀어가는 코스이다.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는 백제왕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삼국사기에 의하면 무령왕은 백제 제 25대왕으로 동성왕의 아들 즉 곤지의 손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³⁾에는 무령왕이 곤지의 아들로 기록되어있다. 즉 곤지는 비유왕의 셋째 아들로 개로왕과 형제로 기록되어있다. 따라서 무령왕은 개로왕을 기준으로 보면 삼국사기에서는 개로왕의 증손자이며, 일본서기에서는 개로왕의 조카이다.

이와 같이 무령왕의 출생 비밀에는 곤지라는 인물이 관련되어 있으며, 곤지의 실체에 따라 그 계보가 다르다. 이 곤지의 기록은 일본의 아스카베신사(飛鳥神社)에도 남아있다. 이 신사 기록에 따르면 곤지는 개로왕의 동생, 즉 비유왕의 아들로 일본서기와 같다. 곤지는 일본천황가의 제2조 왕조의 뒤를 이어 끊어진 백제 계보를 잇기 위해 일본열도로 건너갔으며, 그는 일본 천황가의 제3왕조인 게이타이(繼體)천황이 되어 현재 아스카베신사에 모셔져있다. 한편 이 곤지에 대해 삼국사기에는 문주왕이 곤지를 내신좌평으로 삼았으며 3개월 후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곤지라는 인물은 출생, 행보, 죽음에 대해 많은 의문이 쌓여있다. 더욱이 곤지가 왜로 떠나는 과정에 대해 무령왕과의 관계가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461년 곤지는 형인 개로왕의 명에 따라 일본에 파견되는데, 이때 임신한 형수, 즉 개로왕의 부인을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개로왕은 곤지의 결혼을 허락한다. 이 배속의 아이가 무령왕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백제로 돌려보내주는 조건이었다고 기록되어있다. 이 기록에 대해서도 ‘신변의 위협 때문에’, ‘형수를 사랑해서’, ‘곤지의 아들’ 등 다양한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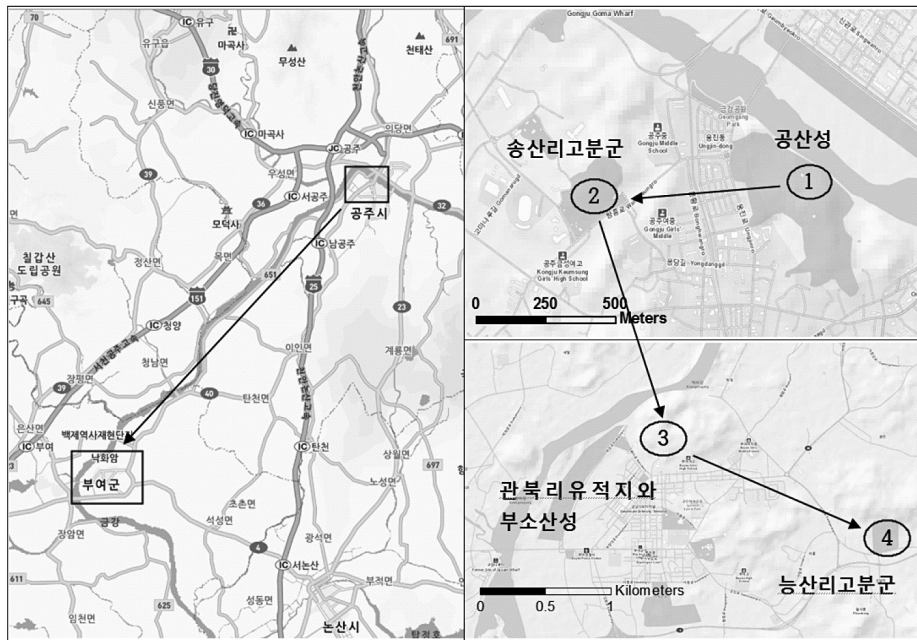
무령왕은 이렇게 배속의 아이로 곤지와 함께 왜로 건너가게 된 것이다. 일본으로 가는 도중 가카라시마

(加唐島)⁴⁾의 오비아우라 동굴에서 출생하게 된다. 무령왕은 ‘사마’왕이라 불리고 있으며, 무령왕의 목관재료인 금송은 일본 큐슈지방의 특산 나무이기도하다. 또한 가카라섬에는 일나라 공주시와 가라츠시 시만의 모금으로 무령왕의 출생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으며, 이 섬에서는 무령왕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밖에도 무령왕릉 지석 기록에 의하면 무령왕이 태어난 해는 461년으로 제24대 동성왕보다 나이가 많다, 이와 같이 무령왕은 곤지라는 인물과 함께 출생에 대한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다.

‘수수께끼 1코스’의 두 번째 이야기는 공산성에서 이루어진다. 공산성은 문주왕이 한성백제에서 웅진으로 천도할 때의 수도이다. 문주왕이 공산성으로 천도하게 된 지정학적 배경을 수수께끼로 엮는다. 웅진천도에 대한 정치적 배경은 여러 학자들에 따라 추론에 의해 유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성백제 당시 신라에 지원을 요청하러 갔던 문주왕은 개로왕의 죽음을 알고 웅진천도를 단행하는데, 시급한 백제의 재건에 알맞은 장소를 찾는 것과 천도에 대한 지방호적과의 관계 등이 지정학적 배경으로 거론된다. 먼저 공산성은 금강과 산성이라는 천혜의 지형적 방어선을 구축하기는 좋다. 웅진천도의 지리·군사적 배경으로서 고구려의 침입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고구려의 군사적 위협을 벗어난 곳이라는 점과 금강의 자연적 방어선을 구축함과 동시에 금강 이남의 지배력 확산의 거점이 된다는 점, 금강 남안의 공산을 중심으로 하는 야산으로 둘러 쌓여 자연적 방어형 분지지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 등 지리적 장점을 갖춘 곳이다. 그러나 왕도로서의 범위나 크기가 협소하다는 단점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과거로부터 금강을 따라 유송되는 배와 물자를 보호·감시하기 위한 성곽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문주왕이 거느린 못협만치와 조미걸취 등이 한성 중앙호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강 북쪽 수리촌에 위치한 지방호적인 백씨호적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치적 배경에서 지방호적세력을 견제하고 중앙호적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 금강 북쪽을 피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스토리를 기반으로 공산성에서도 지정학적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 있다.

‘수수께끼 1코스’의 세 번째 이야기는 부여로 이동



〈그림 2〉 수수께끼 제1코스: 공주시-부여군 연계코스

하여 계속된다. 부소산성 또는 관북리유적지에서 무령왕의 아들인 성왕의 사비천도의 의미를 지정학적 입장에서 공산성과 연계하여 풀어 갈 수 있다.

그 배경을 보면 무령왕은 웅진 백제의 부흥기를 구축하였고, 국내외적으로 백제가 강국임을 선포하였다. 무령왕은 한성회복의 절대적 의지를 버리지 않았으며,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성왕의 입장에서는 부왕인 무령왕의 의도를 모르지 않았지만, 사비천도를 단행함으로써 웅진에서 부여로, 위치적으로는 남하하여 사비도성이 이룩된다. 따라서 후퇴냐?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냐? 성왕은 어떤 지정학적 배경에서 사비천도를 단행했을까? 그 가능성을 수수께끼로 엮는다.

부여는 이미 동성왕이 주로 찾는 사냥터로 잘 알려진 지역이기도 하다. 공주에 비해 넓은 공간과 남쪽의 풍요로운 경작지 등 지역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웅진천도 이후 공산성의 협소한 공간을 해소해 줄 지정학적으로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이에 성왕은 사비도성을 중국의 도성배치계획에 따라 계획도시로 조성하고 더욱 안정된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신라와 연합하여 대대적인 고구려 공략에 나선다. 관북리유적지의 거대한 왕궁터와 도

로, 정립사지, 부소산성과 나성 등의 규모와 배치관계로부터 웅진과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사비천도는 한성과 웅진을 포기하고 남으로 후퇴하는 국력쇠퇴의 의미가 아닌 충청과 호남지방에 기반세력을 다지고 한성을 회복하기 위한, 즉 백제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시각으로 수수께끼를 풀어 볼 수 있다.

‘수수께끼 1코스’의 네 번째 이야기로는 부여 외곽 지역에 위치한 능산리고분군으로 이동하여 이루어진다. 능산리고분군에는 다수의 고분군과 능사가 위치한다. 여기서는 사비천도를 이룬 성왕의 무덤을 추측해 보는 수수께끼이다. 능산리고분군은 부여에 있는 초기 고분군이라는 점과 성왕을 위한 능사 존재로부터 능산리고분군의 밝혀지지 않은 7개 무덤 중에 성왕의 무덤이 위치해 있을 가능성을 토대로 수수께끼로 끌고 간다. 각 능의 주인은 밝혀진바 없으나 무덤의 형식과 발달과정을 토대로 성왕의 무덤을 추정해 본다.

성왕은 부여로 왕도를 옮긴 첫 번째 왕이므로 무덤 중 가장 오래된 형식의 무덤이 성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백제 능묘의 발달형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이 발달 형식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달라 쉽지는 않다. 우선 능묘는 형식에 따라 다른 구

조를 가진다. 웅진시기는 횡렬식 석실분과 전축분이 대표적이며, 사비시기는 횡렬식 석실분이 주류를 이루며, 능산리고분군은 모두 횡렬식 석실분이다. 하지만 능묘의 세부구조를 보면 고분현실의 천정형식에서 시대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였다. 그 일반적 변화 과정을 학자에 따라 아치형→고임식→수평식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아치형→수평식→고임식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통적인 점을 보면 아치형이 가장 초기의 천정형태라는 것은 일치한다.

여기서는 수평식과 고임식의 발달순서는 논외로 하고, 아치형 천정구조를 가진 무덤을 찾는 수수께끼 형식이 된다. 7개 고분 중 아치형은 유일하게 한 개의 무덤에서 발견된다. 또한 앞서 공주의 송산리고분군에서 보았던 무령왕릉의 천정형식도 아치형이다. 이러한 추론에서 7개 고분 중 성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무덤은 중하총(2호 고분)이 된다.

이와 같이 송산리고분군에서 출발한 수수께끼 1코스는 공주에서 부여로 연결된다. 무령왕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에서 왕도의 지정학적 입지, 그리고 고분의 천정구조에 이르는 4개의 소주제로 구성된 수수께끼를 2개의 고분군과 2개의 산성을 포함한 왕도를 연계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주시와 부여군의 6개 유적 중 4개의 유적이 그 스토리의 대상 지역이 된다.

4. 익산-부여지구연계 수수께끼 관광루트의 구축

익산에서 출발하여 부여로 연계되는 ‘수수께끼 2코스’는 무왕을 중심으로 선대왕과 아들 의자왕에 얽힌 역사적 수수께끼를 지역연계를 통해 살펴보는 코스이다. 코스의 이동 순서는 익산 서동공원(금마관광지)→미륵사지→익산토성과 무왕 생가터→쌍릉→왕궁리유적지→부여 궁남지→왕흥사지로 이어진다. 총소요시간은 승용차나 관광버스를 기준으로 6~7시간이 예상된다. 이때 각 유적 내에서의 소요시간은 30분~1시간 정도이며 다른 유적들을 포함한 관람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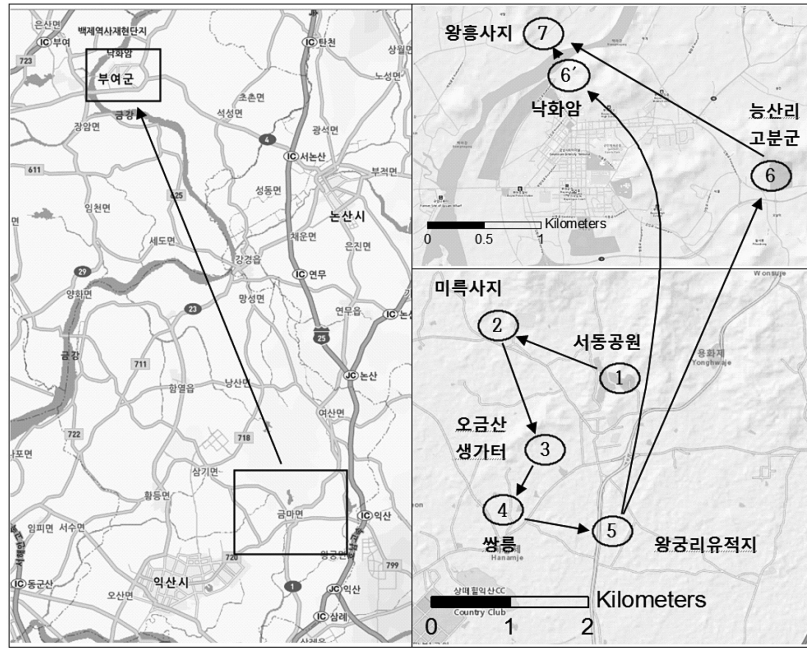
‘수수께끼 2코스’의 첫 번째 이야기는 서동공원의 서동과 선화공주의 석상 앞에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서동요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서동이 무왕이 되는 이야기에 선화공주가 등장하게 된다. 이 서동공원에는 무왕의 상도 위치해 있다. 한편, 선화공주가 진평왕의 셋째 딸일까? 하는 의문도 던져볼 수 있겠다.

‘수수께끼 2코스’의 두 번째 이야기는 미륵사지의 서탑에서 이루어진다. 미륵사지가 만들어진 사연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선화공주가 미륵사 창건을 발원한 인물인가? 서탑에서 출토된 ‘사리봉안기’를 토대로 사탁씨 왕후가 창건을 발원한 인물인가?의 수수께끼를 푼다. 삼국유사에 기록에 따르면 무왕이 왕비와 함께 사자사로 향하고 있을 때 연못에서 미륵삼존불이 나타나자 왕비가 이곳에 절을 세우기를 위하여 미륵사가 창건된 것이 기록되어있다. 이 왕비를 선화공주로 추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서탑의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사리봉안기에는 639년 그 당시 무왕의 왕후가 무왕의 건강과 왕실의 안녕을 위해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 왕후는 좌평 사탁적덕의 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선화공주가 미륵사 창건에 관여했다는 추측을 깨는 것이다. 하지만 미륵사는 1탑1금당의 3원 배치⁵⁾로, 서탑은 중원탑과 동탑에 비해 10년 후에 창건되었다는 증거에 따라 선화공주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⁶⁾

‘수수께끼 2코스’의 세 번째 이야기는 서동의 생가와 5개 금덩어리의 배경이 되는 오금산 지역이다. 이곳에는 서동의 생가터로 추정되는 용정마을과 오금산의 익산토성이 위치하고 있다. 용정마을 남쪽에는 연동제라는 연못이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서동과 어머니는 서울(부여)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으며, 어머니가 용과 관계하여 서동을 낳았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서동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다. 왜 홀어머니와 이곳에서 살았을까? 아버지는 왕이었을 것인가? 몰락한 왕조의 자식이었을 것인가? 등등 수많은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오금산은 서동이 마를 캐고 5개의 금덩어리를 얻었다는 오금산에는 무왕이 축조했다는 익산토성이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오금산에 오르면 금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조금 황당한 추론도 가능하다. 금은 금광맥이 있는 곳에서 얻을 수 있고 지질학적으로 석영맥이 있는 화강편마암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화강편마암이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익산도 그런 지역 중의 하



〈그림 3〉 수수께끼 제2코스: 익산시-부여군 연계코스

나이다. 하지만 이곳에 커다란 금광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현존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다.⁷⁾

‘수수께끼 2코스’의 네 번째 이야기는 쌍릉에서 이루어진다. 쌍릉에 크고 작은 두 개의 능이 위치하는데 큰 능을 무왕의 능으로 작은 능을 선화공주 능으로 추정할 뿐이다. 쌍릉은 백제 후기의 횡렬식 석실 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목관을 제외하고 도굴되어 그 진위를 밝힐 수 없다. 또한 작은 능이 왕비의 능이라고 하더라도 선화공주가 아닌 사탁씨의 왕후일 수도 있다. 이것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의 하나이다.

‘수수께끼 2코스’의 다섯 번째 이야기는 왕궁리 유적지로 이동하여 이루어진다. 이 왕궁리 유적지는 무왕의 익산천도설과 별궁이었다는 설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 설 이외에도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익산천도를 단행하려는 무왕에 대한 중앙호족의 견제 세력이 존재했고, 무왕은 그 견제 세력과의 정치적 대립에 의해 천도에서 별궁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무왕은 천도를 포기하는 대가로 무엇을 얻었을까? 무왕의 장자인 의자왕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태자책봉이 늦어지고 있었다. 중

양호족의 견제 세력이 사탁적덕가라고 가정한다면 무왕과 왕후의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인 새상과 교기는 태자책봉에 있어서 의자왕과 경쟁관계가 된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왕궁리유적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 있겠다.

‘수수께끼 2코스’의 여섯 번째 이야기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의자왕릉 또는 부소산성의 낙화암에서 전개된다. ‘의자왕은 어떤 인물이었을까?’를 다루는 수수께끼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의자왕은 3천 궁녀를 거느린 왕으로 향락에 빠져 백제를 멸망으로 이끈 왕으로 치부되어져 왔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기록된 의자왕은 어려서부터 용맹스럽고 담이 크며 결단성이 있고 아버지를 효도로 섬기며 형제와의 우애도 매우 좋은 ‘해동증자(海東曾子)’로 소개되어있다. 이와 같이 의자왕에 대한 평가가 상반된 사실을 수수께끼로 등장한다. 의자왕은 무왕의 맏아들로 태자책봉이 33세에 이루어졌으며, 이 때 무왕의 비는 사탁씨의 왕후이며 의자왕의 친어머니가 아니다. 의자왕의 어머니가 선화공주라는 가정을 한다면, 삼국사기에 기록된 의자왕의 평가는 사실일 수도 있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조신하고 절제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의자왕의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 의자왕은 왕위에 오른

후 이복형제인 새상과 교기를 왜로 보내버린다. 이러한 점에서 의자왕은 역시 비운의 왕일 수도 있다.

‘수수께끼 2코스’의 일곱 번째 이야기는 왕흥사지에서 이루어진다. 이곳에서는 이야기의 초점이 무왕으로 마무리되며 무왕의 아버지는 누구일까?라는 수수께끼로 엮는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왕흥사는 법왕(600년) 때 창건하여 무왕(634년) 때 완공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왕흥사의 발굴조사결과 위덕왕이 577년 망왕자(亡王子)를 위해 창건한 것으로 밝혀졌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한편 위덕왕에게는 망왕자와 아좌태자 두 아들이 있었으며, 역사에서 잘 알려진 아좌태자는 일본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건너갔으며, 장남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으나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고 망왕자로 거론된다. 여기서 무왕의 아버지가 망왕자였다면? 이라는 가설을 세우면서 수수께끼로 엮여진다.

위덕왕이 죽고, 위덕왕의 동생인 혜왕이 즉위 시, 혜왕의 입장에서는 위덕왕 계를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무왕은 어머니와 함께 도성 밖 익산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혜왕과 그의 아들 법왕은 호족과의 대립 관계로 장기 집정이 불가하였으며, 호족의 입장에선 세력기반이 약한 무왕을 선택 또는 위덕왕계 추종 호족에 의해 무왕이 부활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한편, 무왕의 왕흥사와 관련된 일련의 행보를 보면, 왕흥사의 준공에 힘을 쏟았고, 준공 이후에도 왕흥사를 자주 들러 행향(行香)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무왕의 행보는 망왕자가 무왕의 아버지였다면 더욱 애절한 애착을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⁸⁾

이와 같이 익산 서동공원에서 출발한 무왕과 관련된 수수께끼는 미륵사지, 생가터와 오금산, 왕궁리유적지, 능산리고분군을 거쳐 왕흥사까지 이어진다. 무왕에 관한 테마코스는 주로 익산에 국한된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하나의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바, 이러한 수수께끼는 이들 유산을 연계하는 주요 소재가 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주, 부여, 익산에 산재하는 8개 연

속유산을 대상으로 역사학 입장보다는 관광지리학 입장에서, 각 유적의 OUV와 관련된 가치를 조금 더 활용하고자 하는 계기로 지역 간을 연계하는 테마관광루트를 구상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테마관광루트의 주제로서 각 유산에서 이야기 될 수 있는 다양한 수수께끼로 구성된다. 수수께끼를 주제로 한 관광루트는 공주와 부여를 연결하는 1코스와 익산과 부여를 연결하는 2코스로 구성된다.

1코스는 무령왕을 중심으로 의문의 곤지와 문주왕, 그리고 무령왕의 아들인 성왕으로 이어지는 백제왕의 계보를 따라 구성된다. 한편, 공주와 부여를 연계하는 고리로서 두 개의 성과 두 개의 고분군을 방문함으로써 성의 입지에 대한 지형학적 배경과 고분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코스는 무왕을 중심으로 무왕의 아버지와 아들인 의자왕으로 이어지는 백제왕의 계보 속에 선화공주와 사탁씨 왕후의 수수께끼가 등장한다. 이 때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능산리고분군, 관북리유적지와 부소산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관광지인 서동공원, 생가터와 오금산, 익산토성, 쌍릉, 왕흥사 등이 연계되고, 익산에서 부여로의 공간연계가 필연적으로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환언하면 수수께끼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기대효과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백제왕계보를 쉽게 파악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묻지 못한 사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3개 지역에 산재된 유적의 공간연계를 통해 관광객의 상호 유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수께끼란 엉켜진 실타래와 같아 명확한 해답은 우리들의 후대가 풀어갈 숙제이다. 당장 해답을 찾기보다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들의 시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코스를 따라 걸으며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주

- 1) 백제역사유적지구는 OUV 등재기준 ii) iii)을 충족시키는 유산이다. 진정성이란 유산에 내제되어 있는 가치가 신뢰할 수 있고 진실된 정보출처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속된 문화유산에 대한 특징과 의미가 필수적 구성요

- 소가 될 때 확보된다. 완전성이란 유산의 속성이 흠이 없는 전체성과 무손상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2)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에 대한 등재기준 ii)는 ‘인류의 중요한 가치가 교류된 것을 보여주는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설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거나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한다.’ 이고, iii)은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소멸된 문명과 관계되면서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이다.
 - 3) 일본서기는 고사기를 제외하고 현존하는 일본의 가장 오래된 정사이다. 덴무(天武)천황의 명으로 도네리친왕(舍人親王)의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것으로 680년 경에 시작되어 720년에 완성했다. 일본에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저술한 역사서라고 자부하고 있으나 이 책이 서술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한국 학자들 중에는 사서(史書)가 아니라 사서(詐書)라고 평하는 이도 있다.
 - 4) 가카라시마는 현재 일본 큐슈 가라츠시(唐津市)의 섬으로 일본서기에는 가라세마(各羅嶋)로 기록되어 있다.
 - 5) 1탑1금당은 기본적 왕경사찰의 가람배치로, 미륵사의 3원배치 형식은 미륵하생신앙의 3번 설법을 이유로 3탑3금당의 배치가 만들어졌다. 즉 미륵불이 3번의 설법을 통해 자신의 세계인 용화세계로 인도한다는 용화삼회의 미륵신앙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 6) 사탁왕후의 발원에 의해 서탑에 사리장엄구가 봉안되고 639년 서원이 완공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기축명과 인각와에 의해 중원금당지와 동원, 동탑 등이 기축년인 629년에 완공되고, 서원은 중원과 동원보다 늦은 10년후 완공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 7) 금광을 찾는 지질학자들은 실제로 금광맥의 분포 가능요소로서 석영맥과 백요사리 등의 식물분포를 통해 그 가능성을 찾고 있다.
 - 8)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한권백제, pp.101~102.

문헌

- 고운기, 2011, 삼국유사 길 위에서 만나다, 현암사.
- 구자일, 2006, 백제속국일본사, 지문사.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무여 왕궁터 발굴이야기, 진인진.
- 국립부여박물관, 2011, 백제무왕, 국립부여박물관.
- 권오영, 2005, 고대 동아시아 문명 교류사의 빛 무령왕릉, 돌베개.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2011,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1단계 OUV도출,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 대백제 다큐멘터리 제작팀, 2010, 대백제: 700년의 역사 잃어버린 왕국, 차림.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4, 도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연구총서, 제1권, (재)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4, 사찰, 백제역사유적지구 연구총서, 제2권, (재)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4, 농묘, 백제역사유적지구 연구총서, 제3권, (재)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부여군, 2008, 백제신서 백제는 바이테크 국가였다, 부여군.
- 서정록, 2001, 백제금동대향로, 학교재.
- 성기환, 2008, 생각하는 한국사1: 고조선부터 남북국시대(통일신라)까지, 버들미디어.
- 연민수 외, 2013, 역주 일본서기, 동북아역사재단.
- 이가원 · 허경진 옮김, 2006, 삼국유사, 한길사.
- 이강래 옮김, 2006, 삼국사기, 한길사.
- 이덕일 · 김병기, 2004, 우리역사의 수수께끼3: 우리 역사를 바꾼 19가지 오해와 진실, 김영사.
- 이혜은, 2011, “지리학자의 관점에서 본 세계유산”, 한국사지리지학회지, 21(3), 65-74.
- 전용신, 1989, 완역 일본서기, 일지사.
- 정민, 2012, 불국토를 꿈꾼 그들, 문학의 문학.
- 조유진 · 이기환, 2010, 한국사 기행, BM성안당.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3, 한권백제: 이야기로 만나는 백제 역사문화 기행, 로도스.

교신: 홍현철,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e-mail: honghc@konkuk.ac.kr)

Correspondence: Hyun-Cheol Hong, Department of Geography/ World Heritage Program in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05029
(e-mail: honghc@konkuk.ac.kr)

투 고 일: 2015년 12월 8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22일
투고확정일: 2015년 12월 28일

세계유산 보존원칙에 있어 복원과 재건에 관한 연구

조 두 원*

A Study on Restoration and Reconstruction concerning conservation principles of World Heritage

Doo-Won Cho*

초 록: 최근 지자체, 중앙 정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유·무형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유·무형유산 관련 단·중·장기적 보존관리 재원마련과 보존관리 기구를 구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유산적 가치 심화 학술연구와 해석을 통해 일반대중에 홍보되어, 보존관리 해야 할 국제적 당위성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공용한 세계유산의 가치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re)를 비롯한 ICOMOS, IUCN, ICCROM과 같은 세계유산 관련 국제전문가기구에서 권고한 문화유산 보존현장들(베니스 현장) 작성 이래 문화유산 유형별 보존현장과 원칙의 개요 분석 및 국제동향을 분석한다. 특히 보존원칙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복원'과 '재건'에 관한 올바른 용어 해석과 이에 따른 다양한 국내의 사례를 연구하고, 앞으로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세계유산등재, 세계유산 모니터링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어: 세계유산, 보존원칙, 보존관리, 복원, 재건

Abstract: Recently, it is often to observe that the short, mid-to-long term budget plan for conservation management and promotion of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each region are being established by local - and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citizen initiatives. With the help of those process, local economy is growing to be vitalized while identifying as well as promoting local culture as a tourism resource. Furthermore, after the inscription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more deepened scientific research on 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 of each World Heritage became possible to be widely known. Therefore, the reason on conservation management of each World Heritage is solidified. For those formed consensus on OUV of World Heritage should be effectively preserved and managed, World Heritage Centre including ICOMOS, IUCN, ICCROM which are advisory bodies related to the World Heritage, recommended certain charters on conservation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This research aims for the analyse on the international charters and conservation principles adopted by ICOMOS since the Venice Charter, the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1964). It is to keep its finger on the pulse of conservation principle especially, utilization of terminology of 'restoration and reconstruction, which are often used in the field of conservation management on monuments and sites. This research aims for providing fundamental studies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cases of utilization of restoration and reconstruction for the stakeholder involved conservation manage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World Heritage Nomination process, World Heritage Monitoring etc.

Key Words: World Heritage, Conservation Principles, Conservation Management, Restoration, Reconstruction

*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책임연구원(Chief Research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Namhansanseong World Heritage Centre, doowonbonn@naver.com),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정회원, 국제성곽관사유산학술위원회(ICOFORT) 선거위원, 건국대학교 세계유산학과 겸임교수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지자체, 문화재청을 비롯한 중앙정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유형·무형유산을 활용하고 단·중·장기적 보존관리 예산편성과 보존관리 전담기구를 조성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른 효과로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해당 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 심화연구와 다양한 해석·홍보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보존관리 해야 할 당위성도 마련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 해석 및 활용 방안으로 다방면에서 이루어진 on- & offline 홍보가 국내, 국제적으로 문화유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과거에는 쉽게 접할 수 없던 문명 유적들과 해외 유명 관광지를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접할 수 있고, SNS를 통해 지인들과 공유가 가능해졌다. 즉, 과거에는 가능치 못했던 해당 문화유산 가치와 활용범위가 각 지역 이해당사자로부터 국제무대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공유한 세계유산의 가치공감대를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re)를 비롯한 ICOMOS,¹⁾ IUCN,²⁾ ICCROM³⁾과 같은 세계유산관련 국제전문가기구에서 권고한 문화유산 보존현장과 규칙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년 6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 세계유산등재 과정을 비추어 보았을 때 등재추진과정에서 수많은 국내외 세계유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그럼에도 국제전문가와 국내현장담당자들의 문화유산 보존원칙에 대한 견해차가 컸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다년간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관리인이 해당 유산의 세부보존관리 연혁 설명 시 매개자(mediator)인 통·번역가를 통해 해외 전문가들에게 잘못 또는 불완전하게 전달되어 만족할 만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완전히 못해 기대치보다 저조한 성과를 얻게 되기도 한다. 한편, 현장실무담당자가 국제보존원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설명에 임했을 때, 의사소통에 혼선을 빚게 되는 사례 역시 국제전문가 현장답사나 세계유산 등재 과정 중 현장 실사 중 벌어질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

다. 특히 이러한 일들은 세계유산관련 국제학술회의 주관자(facilitator)가 행사 운영과정에서 겪는 비밀비재 일이다. 이를 통해 매개자인 통·번역가의 역할의 중요성과 사전 현장관리인과의 교류를 통해 용어 정립을 함으로서 효과적인 설명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장관리인을 통한 국제동향의 근간을 이루는 베니스현장(1964),⁴⁾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1994)⁵⁾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제현장에 어떤 방식과 유형으로 적용될 지에 대한 사전연구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문화유산 보존관리 현장에 이러한 국제보존원칙 적용을 위해 진정성에 근거한 전통문화유산 보존원칙과의 면밀한 비교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현 실정에 맞는 용어 정립을 해야 함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축적한 현장관리인(site manager) 또는 보존관리기관은 노하우를 정립한 후 다양한 분야의 매개자와 공유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베니스 현장 작성 이래 문화유산 유형별로 작성된 현장과 보존원칙분석을 통해 국제보존원칙의 동향을 알아보고, 문화유산 보존원칙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현재 보존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는 ‘복원’과 ‘재건’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연구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문화유산보존관리와 세계유산등재, 세계유산 모니터링에 관여하는 이해당사자에게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2. 국제보존현장 및 규칙 발전사 개요

2014년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태리 피렌체에서 개최된 제18차 ICOMOS 총회에서도 현재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기본 보존원칙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베니스현장⁶⁾과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⁷⁾(1994)의 중요성과 변화상을 재고하는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베니스현장이 작성되던 해인 1964년 이래 50년 동안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유산 보존원칙에도 문화유산 유형별, 지역별, 기후에 따른 수많은 다양성을 반영해 작성된 문화유산현장과 규칙들이 있었음을 재확인함과 당초 작성 취지에 대한 의미를 재고하였다. 예를 들면, 정원에 관한 현장인 피렌체현장(1981), 역사도시에 관한 워싱턴현장(1987), 고고유산 현장(1990), 수중문화유산현장(1996), 역사마

을 헌장(1999년), 전통목조건축에 관한 헌장(2003), 벽화 보존과 보전에 관한 규칙(2003), 문화로 헌장(2008) 등이 작성되었고 이코모스 총회를 통해 채택되었다. 그만큼 베니스헌장은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기준을 제공하는 국제헌장이라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가 작성되던 1994년 이래 문화유산관련 새로 등장한 이해당사자⁸⁾로서 공동체(Community) 등 유산보존관리 환경변화를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앞서 말했던 베니스헌장으로 보존원칙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3. 베니스헌장 개요와 보존원칙 사례

베니스헌장 내용을 간추려보면, 기념물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되어야 하고, 보전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위한 활용을 장려하며, 다만 이로 인한 건물의 배치 또는 장식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 주변 환경도 함께 보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기념건조물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거나, 국가적, 국제적으로 중차대한 관심사로 정당성이 인정될 때, 기념건조물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이전(移轉)할 수 있으며, 기념물 복원과 관련해 추측이 시작되는 순간, 복원은 중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추가 작업은 반드시 구분되어 당대의 직업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훼손 또는 인멸된 부분에 대한 대체는 반드시 전체와 조화롭게 통합되어 원래의 것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나, 모든 시대의 요소가 존중되는 역사의 다층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9년 미하엘 페체트⁹⁾는 베니스헌장 작성 후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문화유산 보존원칙에 대한 다양성과 변화상을 재고하였다. 또한 그는 보존원칙용어 사용기준을 기념물(Monument)의 원재료 즉, 원형을 얼마나 많이 유지하느냐에 두고, 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존개념은 보존, 보전, 복원, 현상유지와 보수, 대상물 제거, 재건, 개선과 개수, 신축과 창조 순으로 구분하였다.¹⁰⁾

앞으로 다양한 이코모스 보존헌장과 규칙에 따른 복원과 재건 사례연구와 베니스헌장을 기준으로 보

존개념 활용에 있어서 복원과 재건에 관한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해 어떤 방법론이 문화유산 보존관리 현장실무와 제도적 장치로 갖춰져야 하는지를 분석한다.

4. 베니스헌장을 통한 복원과 재건 분석

1) 복원과 재건의 정의

(1) 복원(復原)

복원에 관한 영어식 표현은 restoration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단어의 라틴어원은 'restaurare'이다. 의미는 '다시 설립하다, 확립하다' 라고 하는 're-establish'에 가깝다. 복원은 원형조직을 훼손함 없이 새로운 구성요소를 첨가하는 과정이다. 베니스헌장 9조에는 '복원의 과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작업이다. 복원의 목적은 기념건조물의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드러내는 것이며, 원래의 재료와 출처가 분명한 문서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복원은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기념물을 보존(保存) 또는 보전(保全)하는 차원을 넘어선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매장되어 있거나, 망가지거나, 훼손된 기념물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재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¹¹⁾ 기념물 전체외관 중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역사의 한 정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원형을 다시 발굴해 내고 또는 채우려는 일체의 행위를 복원으로 볼 수 있다. 복원은 종종 원형자재와 기술을 사용하는 보수행위와 관계한다. 특히 이런 방식이 역사건축물 보존에 적용될 수 있는 반면 예술 작품 복원과 관련한 각각의 행위는 역사를 가역(可逆)하는 행위이므로, 시간의 추이에 따라 작품 자체 내 발생한 훼손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철저히 보증되어야 한다.¹²⁾

베니스헌장 10조에서 명시한 바, 보전행위와 관련하여 전통기술과 현대적인 복원 기술의 적용은 전통기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경험으로 검증된 현대적 보존기법과 건축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재건(再建)

부분 또는 완전 재건에 필요한 선행조건은 재건 될 부분에 관한 폭 넓은 자료 조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입증되지 않은 가설로 재건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유산 및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재건이 포함되지만, 적절한 학술연구기반이 요구된다.¹³⁾

재건과 관련하여 미하엘 페체트는 「불충분한 증거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설에 따른 재건 사례가 실제 기념물의 진정성을 저하시키듯이, 입증되지 않은 ‘창조적 재건(creative reconstruction)’을 통해 유실된 기념물을 형태적으로나 역사적 규모상으로 원 위치로 되돌릴 수 없다」¹⁴⁾고 설명하였다.

한편, 재건에 있어 유실된 원형재료와 기술적 고증행위에 대한 혼돈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재건을 위해 합당한 장인기술과 예술적 역량을 요구하며, 고유형태 및 재료와 관련하여 타당한 학술적 근거와 행위가 요구된다. 물론 현존 기념물은 가능한 최대범위에서 조화를 이루어야한다. 국제보존규칙에 따르면, ‘재생(reproduction)’이라고도 할 수 없이, 수세기동안 발전되어온 건축구조물을 재창조에 의한 재건보다, 보존된 원형을 포함한 재건이 더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특수한 경우, 재건은 부분적 기념물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현존요소, 장식물 또는 중요한 건축구성요소를 위한 환경 재 조성을 위해 인정될 수 있다.¹⁵⁾

이런 접근방식을 통한 재건이 이루어질 경우 원형기반 대체 및 여타 안정화 조치로 인한 현존 역사구조물 훼손이나 추가적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재건은 역사건축물 집합체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건축물군(群)의 훼손된 경관요소들을 재건함으로써 완전성을 정당화할 수 있다.¹⁶⁾ 대표적 사례로 이태리 베니스 산 마르코 광장 내 시계탑(Campanile of San Marco)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외로 어떤 분류의 재건이 이루어졌는지, 베니스 현장 내용에 부합하는 지 분석한다.

5. 이코모스 보존현장과 규칙에 따른 복원과 재건 사례연구

베니스현장이 작성된 이래 다양한 문화유산범주에서 보존현장과 규칙들이 작성되고 이코모스를 통해 채택되었다. 이들은 현재 각 유산분야 보존관리에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장이 작성된 배경과 함께

대표적 사례 연구를 통해 각 현장에서 복원과 재건의 개념을 어떻게 다루는 지를 분석한다.

1) 역사정원에 관한 현장(피렌체현장)¹⁷⁾

역사정원현장은 이태리 피렌체에서 작성되어 피렌체현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원에 포함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를 갖는 제반요소들은 완전하게 보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예를 들면, 이태리 피렌체 피티 궁의 보볼리 정원 사례를 통해 피티 궁과 함께 동시대에 조성된 르네상스양식의 정원, 정원 내 나무, 수종, 분수, 호수, 호수 내 비친 경관, 공존하는 생태계, 관리시설 등 정원과 관련한 제반구성요소들 뿐 아니라 정원 내 시간의 추이에 따라 공생하고 있는 생태계도 보존항목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그림 1). 역사정원 현장 내 복원과 재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사 정원 혹은 특정 부분에 대해 유지 관리, 보존 보전, 복원, 또는 재건 할 경우, 반드시 모든 구성 요소를 반드시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10조)’ 즉, 특정 시대에만 국한된 복원과 재건은 기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시대별 흔적과 이에 따른 모든 구성요소를 고려할 때 복원과 재건의 과정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과 시대별 발전과정을 모두 존중한 보존행위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역사 정원에 대한 복원, 특히 재건 작업은 이러한 작업의 과학적 시행을 보장하고 발굴부터 해당 정원 및 유사 정원에 대한 기록의 취합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철저한 사전 연구가 없다면 진행될 수 없다. 어떠한 실질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는 사전에 합의한 연구에 기초하여야 하며 일단 전문가들에게 제출하여 공동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15조)’ 복원과



출처: 2014년 저자 촬영

〈그림 1〉 이태리 피렌체 보볼리 정원

재건은 매우 전문적 보존행위이므로 쉽게 수행될 수 없으며, 진정성을 반영하는 문헌, 사진, 기술 등 철저한 사전조사와 거듭된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절대적 선행조건으로 요구된다.

‘복원 작업은 반드시 해당 정원의 순차적 진화단계를 존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어떤 시기도 다른 시기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단 정원의 특정 부분에 영향을 끼친 훼손이나 파괴의 정도가 남아있는 흔적, 부인할 수 없는 기록의 증거로 미루어 볼 때, 재건을 결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한 재건 작업은 설계상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정원의 해당 부분에만 특정하게 시행할 수 있다.(16조)’ 복원(復原)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원형을 거듭하는 과정이 바로 복원이다. 즉, 원형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며, 이 원형에는 정원유산이 성립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 모두가 구성요소로 분석될 수 있다. 시간의 추이를 반영하는 모든 구성요소를 유지, 보수, 관리하여 현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복원과정 중 가장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그러나 원형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때, 정원유산의 가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최소구성요소의 재건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정원유산 전체를 재건할수록 추측의 요소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요소가 가미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원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순차적 발전 단계에 관해 추측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역사 정원의 재건은 고려될 수 없다.(17조)’ 베니스현장 15조에서도 명시한 바, 추측에 의한 재건은 허용될 수 없으며, 더불어 정원유산의 진정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의 유산도 현재의 유산도 아니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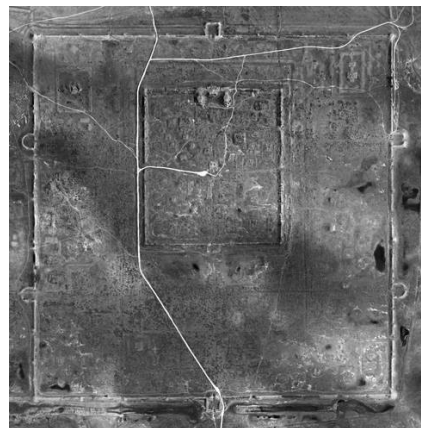
2) 고고유산에 관한 현장¹⁸⁾

역사속에서 한 때 시대를 풍미했던 왕조, 또는 문명이 사라져 매장되었던 유물, 유적이 시·발굴되어 그 옛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유산들 역시 인류발전사에 있어 걸작으로 인정받아 매장문화재를 구성하는 제반 요소들은 보존, 복원, 부분 재건 등의 각 상황에 따른 보존행위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고유산에 관한 현장의 주요 내용이다(그림 2).

고고유산에 관한 현장 7조 ‘설명, 정보, 복원’에서는 ‘고고 유산을 일반 대중에게 설명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필수적인 방법이다. 동시에 이는 유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설명과 정보는 최근 지식에 대한 보편적 해설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종종 수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복원은 두 가지 기능, 곧 실험적 연구와 해설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남아있는 고고학적 증거에 대한 파괴를 피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 모든 출처에서 나온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복원이 가능하고 타당한 곳의 경우, 복원은 고고학적 유적 위에 바로 시행하지 않으며, 복원되었다는 사실이 식별 가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 전통목조건축 보존에 관한 규칙

각 지역별, 문화별, 시대별로 다양한 양식의 목조건축이 있다. 또한 특정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목조재료가 요구되는 경우와 때때로 종교의식의 변화에 따라 한 시대를 반영하는 목조건축양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근세 이후 신구교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예배형식변화와 함께 건축양식도 변화하였다. 이렇듯 건축물의 기능, 구조, 재료, 기술이 완전성을 이루어 지속적인 관리에 의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보존 규칙의 주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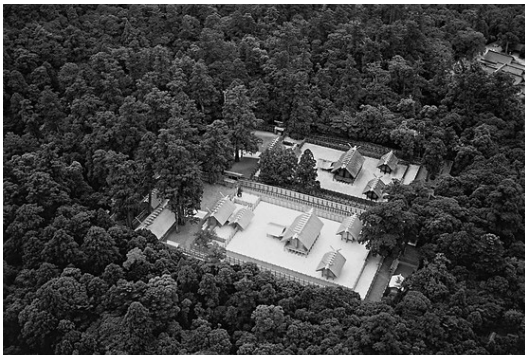
출처: 세계유산센터

〈그림 2〉 중국 세계유산 세나두(2012 세계유산등재)

전통목조 건축 보존규칙 중 ‘조치’ 분야에 복원은 다음과 같다.

‘복원의 목적은 베니스헌장 제9조-제13조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역사 구조물과 그 내력 성능을 보존하고, 현존하는 역사적인 자재가 증거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구조물의 역사적 완전성과 초기의 상태, 설계에 대한 가독성을 개선하여 역사적 구조물의 문화적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역사 구조물에서 제거된 부재와 기타 부품은 목록화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표본은 문서화 작업의 일부로 영구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¹¹⁹⁾ 또한 이 보존규칙 내 ‘보수와 교체’에 관해서는 ‘역사 구조물을 보수하는 데 있어 대체 목재의 사용은, 유관한 역사적 가치와 미적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고, 부식 또는 손상된 부재나 부품의 교체 필요 또는 복원의 요건에 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¹²⁰⁾

다만, 이 전통목조건축 보존규칙에서는 각 보존행위에 있어 재료의 진정성과 각 부재의 구조적 용도와 복원 및 보수 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한 보존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 부재 하나 하나가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므로 실측을 통해 도면을 남기고, 각 부재를 목록화하여 문서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3D 스캔을 통해 목조 구조물 전체와 주변 환경까지도 디지털 도면화 하는 등 목조건축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에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목조구조물의 복원과정 중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는 부식 또는 손상된 부재의 부분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닌 전체를 교체함으로 인해 원형재료를 잃거나, 이 과정 중 전체 외



출처: Henrichsen C. 2002, 1282

〈그림 3〉 일본 이세신궁

관이 변형되어 형태의 진정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본의 이세신궁의 경우는 지역의 기후조건을 비롯한 외부 풍화요인으로 인해 목재의 수명이 단축되어, 신궁 건물들 주변에 재료를 제공하는 나무숲을 조성하고, 20년에 한번 씩 인접대지에 동일한 건축 재료와 공법을 바탕으로 신궁들을 건축한다.²¹⁾ 구 신궁 건물들의 재료가 내구성을 잃게 되면 허물어 버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 독특한 목조건축물 보존관리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그림 3).

4) 벽화보존에 관한 규칙²²⁾

세계사속에서 다양한 문명을 통해 당시 생활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벽화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 역시 당시의 모습을 반영하는 소중한 가치성을 제시하고 있어 현대의 과학, 기술적 조치를 통해 보존해야 한다는 규칙이 2003년 작성되었다. 예를 들면, 고대 원시 문명을 통해 남겨진 벽화들 그리고 고대 왕릉 내부 벽화, 종교건축 내 벽화 등이 보존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벽화복원과 재건을 위한 보존규칙은 다음과 같다.

‘복원 작업의 목적은 벽화가 그려진 원래의 내용과 그 역사적 배경을 존중하면서 벽화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미관상의 복구 작업은 손상된 부분이 보이는 것을 최소화하며, 본래의 재료가 아닌 부분에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가필하는 것과 재건축은 본래의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추가되는 모든 부분들은 쉽게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본래의 그림에 덧칠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벽화를 벗겨서 노출할 때에는 역사적인 상황을 존중하고 손실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벽화의 이러한 노출은 그것의 상태와 범위, 그리고 가치에 대한 사전 조사를 거친 후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5조)’

벽화 복원의 가장 중요한 보존대상은 원형이다. 즉 원형을 되찾거나, 보존(保存)하거나, 보수(補修)하거나, 보강(補強)하는 과정이다. 201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풍다르 벽화동굴의 경우 1994년에 발견되기 전까지 수 천년동안 외기에 노출되지 않아 잘 보존된 사례이며, 차후 일반인들의 출입과 온·습도 변화에 따라 벽화표면에 부식과 훼손이 발생을 우려하여 폐

쇄하고, 벽화를 포함한 동굴을 다른 장소에 재현(再現)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4). 또한 일반인들에 알려짐과 동시에 벽화표면의 일부 또는 전체에 보호층을 덮어야 하는 보존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벽화 복원과정 중 기존 원형재료를 철저히 분석, 기록하여 벽화의 원형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분야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라 반드시 적합한 복원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유산에 있어서 복원과 재건행위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이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하고, 보존처리 과정의 가장 핵심은 원형보존이다. 다만 이 원형이 더 이상 외부환경조건으로 인해 보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移轉)하여 보존해야한다고 베니스 헌장 7조에서 권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원형’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한정하여야 하는 지가 관건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앞서 다른 베니스헌장을 비롯한 타 헌장과 보존규칙에 공통되는 사항으로 재료와 기술의 진정성과 이에 따르는 형태적 완전성에 근거한 원형을 복원 또는 재건하는 일련의 보존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문화유산 보존관리 과정 일체를 문서화하여 현재 또는 후세에 의한 보존행위가 이루어질 때 참고와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복원과 재건 과정에 있어 모든 단계에 걸쳐 지속적인 자문과 회의를 통한 전문가의 감독이 유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유산일 경우 일차

적으로는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더 이상 한 국가만의 유산이 아닌 인류 공동의 유산이므로 반드시 국제본부인 세계유산센터에 보고하여, 국제적으로 보존관리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여야 한다.

6. 베니스 헌장에서의 복원과 재건 분석과 국내외 사례연구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평가지표 역할을 하는 베니스헌장에서 권고하는 보존원칙 중 복원과 재건에 관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다.

사례 1: 세계유산 남한산성 행궁 재건에 관한 상이한 해석론

2014년 6월 22일 3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 사례를 통해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보존원칙을 분석한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방향성을 제공해주는 이코모스, 이크롬 국제본부에 종사하는 세계유산전문가들의 남한산성 방문 시 이루어진 자문을 통해 유산보존관리의 동향 파악이 가능했다.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유산에 대한 가치성 정의와 이와 관련한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 중 등재 구성 핵심요소인 남한산성 행궁재건이 진정성 여부였다. 그 중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²³⁾을 통해 운영되었던 사전 전문가 답사 및 평가²⁴⁾를 통해 남한산성 행궁에 관한 진정성 평가 내용을 정리한다. 사전 전문가 답사 및 평가는 무니에 부세나키²⁵⁾씨(이하 무니에) 통해 이루어졌는데, 무니에는 다음과 같이 보존원칙을 설명했다.

진정성과 관련하여 유산의 ‘복원’(Restoration)과 ‘재건’(Reconstruction)의 개념이 다르다. 특히 ‘재건’의 경우 석조문화재 중심의 서양과는 달리 변형과 쇠락이 쉬운 목조문화재 중심인 동북아(한·중·일)지역 유산의 경우 진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 유네스코 본부는 이코모스를 중심으로 진정성 평가를 위해 철저한 발굴조사와 과거사진, 사료, 재료의 일치까지를 ‘재건’의 절대조건으로 하려는 경향이었으나, 최근에는 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해당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수호 경관의 상징성도 재건을 위한 타당성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완전성 복원 차원에서 재건 행위가 늘고 있다. ‘남한산성행궁’의 ‘재건’은 역사성회복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행궁은 임시수도로써 남



출처: 세계유산센터

〈그림 4〉 세계유산 풍다르 동굴벽화(프랑스 소재)

한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므로, 남한산성의 경우 ‘완전성’에 대한 평가요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를 통해 무니에는 남한산성 행궁에 관한 일련의 보존조치 행위를 ‘재건(reconstruction)’으로 정의하였다. 남한산성이 국가위기 시 ‘임시수도와 비상왕궁’ 기능을 수행했던 역사적 상징성 측면에서 남한산성 완전성 복원을 위한 남한산성 행궁 재건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반면, 남한산성 세계유산등재 추진과정 중 이루어진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남한산성 문화재에서 이루어진 재건에 관한 국제전문가들의 우려가 담긴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코모스는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가 동아시아 산악 군사 요새축성술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요새화된 방어시설군을 통해 기본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남한산성의 요새화된 시설은 명나라의 쇠퇴, 일본의 성장, 만주의 팽창기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며 축조되었다. 남한산성의 요새화된 도시는 “임시수도”로서 기능수행이 본 의도이다. 이는 처음으로 서양화기운용과 함께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영향으로부터 군사, 도시계획분야에 있어 두루 영향을 받은 종합적 증거이다. 침략에 따른 저항의 역사를 통해 남한산성은 점차 국가 자주 수호의 상징이 되었다. 또한 남한산성은 몇몇 철학·종교적 영향에 따른 결과의 장이자 한국의 정신적 역사의 다양한 측면을 표현한 증거이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대다수의 사당과 건물들, 특히 행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재건(ex nihilo reconstructions)이다.²⁰⁾

이 평가를 통해 세계유산과 관련한 이코모스, 이크롬을 비롯한 다양한 세계유산 전문기구의 보존원칙의 정의와 활용이 어떻게 다르며, 한편 국내 문화유산 보존관리가 국제동향과는 상이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베니스헌장 9조에 따르면 ‘추축이 시작되는 순간,

복원은 중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추가 작업은 건축적 구성에서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고 당대의 작업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의 문화유산 복원·재건 사례 동향은 국가적 차원의 재건의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역사성에 근거한 ‘완전성 복원’차원의 보존행위가 우선 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산성 행궁 사례를 통해 볼 때 국가와 광역단체 경기도의 역사의 완전성 회복을 위한 재건의지와, 이에 따른 보존관리 재원 마련 및 운영 능력이 중요했다(그림 5, 표 1, 2).

이렇듯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파괴 또는 훼손될 수밖에 없었던 문화유산이 국가 재건 기에 각 지역 상징경관 내 핵심구성요소로 구성되므로, 정치 및 문화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복원과 재건하려는 사례를 국내외로 다수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이루어진 ‘호국유적 복원정화사업’²⁷⁾이 복원과 재건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014년 4월 이코모스를 통해 세계유산센터에 전달된 남한산성 세계유산등재 관련 평가서에는 남한산성 행궁재건과 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진정성 평가가 기록되어있다.

이코모스는 남한산성의 재료요소, 특히 군사시설 군(群) 복원/재건은 형태, 구조, 재료에 관한 특별학술지침에 따라 시행되었다고 본다. 이 학술조사는 장기간 이루어졌으며, 당사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원칙을 준수하였다. 이는 유산의 역사를 통해 실행된 작업과 관련하여 방대한 사료에 기초했다. 유산 중 특히 사찰 및 대부분의 목조건축물의 진정성 보존은 국제적 측면에서 볼 때 지역특수성을 반영한다. 오늘날 명확히 학술적으로 규명된 진정성있는 전통을 따랐다. 그러나 이 복원 정책의 체계성이 지나치다고 판단한다. 오래전에 사라진 건물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재건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행궁은 일제침략기(19세기 후반)에 완전 인멸되어 최초의 흔적과 관계없이 건물은 두 차례에 걸쳐 재건됐다. 최근 민속관



〈그림 5〉 행궁 재건 과정

〈표 1〉 남한산성 행궁 발굴 조사 과정

연도별	추진 내용
1998.12.10 ~ 1999.12.24	행궁전역 시굴, 상궐지 부분발굴
1999.12.10 ~ 2000.10.09	상궐지, 남·북행각지, 재덕당, 좌승당, 유차산루지, 담장지
2000.09.20 ~ 2001.06.30	상궐 주요부분, 좌전지, 담장지
2001.03.20 ~ 2002.03.15	서원지, 외곽담장의 남쪽지역, 이위정지
2002.07.22 ~ 2003.07.10	서원지, 행궁 외곽경계
2003.06.09 ~ 2004.12.06	하궐지, 하궐 마당, 일장각지, 문지
2005.04.19 ~ 2006.08.27	통일신라시대 유구발굴, 마당 주변 시굴
2006.06.07 ~ 2008.01.10	통일신라시대 유구 전면발굴, 한남루지, 연못지, 완대정지, 옥천정지
2006.07.28 ~ 2006.09.10	인화관지 및 침괘정 주변지역 1차 시굴 및 발굴조사
2007.03.26 ~ 2007.10.02	인화관지 전면·연장 발굴조사
2009.09.15 ~ 2010.10.29	인화관지 2차 시굴 및 발굴조사

출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런 행사와 문화재활용 안내행사 또한 진정성이 없다. 즉, 장소의 상징성에 대한 해석일 뿐, 유산의 진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²⁸⁾

이를 통해 국제헌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건의 정의와 행위실천을 위한 방법론은 기념물이 위치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진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의 경우에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 명분을 우선시 하고 있고, 철저한 고증과 연구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재건하려는 경향이 짙다. 폐허가 된 유적, 부분 훼손된 유적, 구조적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역사건축물 등을 완전하게 보여주려는 소위 ‘재건에 대한 강박관념’의 발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보존원칙에 따르면 재건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문자 그대로 창조(創造) 또는 재현(再現)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세계유산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전 세계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재건행위와 그 정의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한번 지나간 역사를 다시 쓰거나 되돌릴 수는 없다. 문화유산을 통한 사회 고

〈표 2〉 남한산성 행궁 복원공사 과정

연도별	추진 내용
2001.07.22 ~ 2002.10.10	남한행궁(상궐) 복원공사 (내행전, 재덕당, 좌승당 등)
2003.03.15 ~ 2004.08.02	남한행궁(좌전) 복원, 정비공사 (정전, 영녕전, 신문 등)
2005.08.17 ~ 2005.12.14	남한행궁 상궐 및 좌전 단청공사
2008.12.09 ~ 2010.09.29	남한산성행궁 하궐 및 주변시설 복원공사 (외행전, 일장각, 한남루, 연지 등)
2011.06.22 ~ 2012.05.03	남한산성행궁 하궐 단청 및 주변정비공사 (하궐 외행전 외 20동 단청공사)
2012.05.17 ~ 2013.06.05	남한산성행궁 인화관 복원공사(1차)
2013.06.20 ~ 공사중	남한산성행궁 인화관 복원공사(2차)

출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육, 활용을 명분으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복원과 재건행위는 국제권고안에 따라 보존관리 방향성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설득할만한 국내 복원과 재건 성향에 대한 사례를 철저히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국제적 차원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적 보존원칙 사용근거에 대한 설득력을 구하지 못할 때, 이코모스 평가서에 기술한 바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재건(ex nihilo reconstructions)’이라는 표현으로 평가가 지속될 수 있으며, 여타 세계유산등재과정에서 항상 부딪혀야 할 과제가 될 수 있다.

사례 2: 현대적 보존 기법 활용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사례연구

남한산성의 목조문화재의 경우 여름철 호우와 겨울철 강설과 동파로 인해 지붕의 흥두께흙 유실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남한산성 내 위치한 목조 건축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지하수맥 변경을 통해 부동침하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불어 기후 온난화 현상과 관련해 목조 건축물 부재에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데, 목재 뒤 틀림현상을 비롯한 단청 훼손, 곰팡이 발생, 화재발생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화유산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과학과 기술적 도움을 통해 보존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베니스헌장 2조와 10조에 따르면, ‘기념건축물의 보존과 복원은 건축유산의 연구와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과학과 기술

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기념건조물의 보강에 있어 전통기법이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그 효능이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지고 경험으로 검증된 현대적 보존기법과 건축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관련 평가²⁹⁾에 따르면 이러한 기상 현상과 관련하여 남한산성 외성인 봉암성과 한봉성 일대에서 이루어진 여장재료에 관한 연구의 우수성에 대해 언급하였다.³⁰⁾

이에 따라 남한산성 내 지속적인 야외노출실험을 통해 원형재료 규명 및 대체 재료를 단계별로 분석할 수 있었고, 차후 현장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그림 6).³¹⁾

이 사례는 훼손된 문화유산 복원 및 보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가운데, 현대의 과학, 기술의 도움으로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상변화로 인해 석조, 목조 문화재 보존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향후 5년 또는 10년 단위 기상변화 데이터를 공유하여 각 문화재 보존과 복원을 위한 중장기 문화재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계획 내에는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보호하면서 일관된 보존원칙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유산 매개자와 유관 기관들이 공통되고 일관성 있는 보존관리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사례 3: 남한산성 행궁 재건 및 행궁 내 통일신라 군창지 부분복원

남한산성은 한산주에 주장성을 쌓았다는 '삼국사기' 신라 문무왕 12년(672)조의 기록과 2007년 남한산성 행궁 권역 내 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된 대규모

군창지가 확인되었고, 고려시대 광주부사 이세화의 지휘 하에 1231년 몽고군을 격퇴한 사건과 조선시대 이괄의 난과 후금의 영향으로 인조 2년(1624) 전국 사찰을 경영하여 구간분리 축성된 남한산성은 현재의 본성의 윤곽을 유지하고 있고 병자호란 이후 증축된 외성 원형은 아직도 보존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 행궁권역에서 이루어진 수차례 발굴 조사 중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군수창고로 추정되는 터가 발굴되면서, 수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표 1). 조선시대 동아시아 도성조영론³²⁾을 바탕으로 조성된 행궁 재건과정 중 발견된 통일신라 군창지에 대해 면밀한 발굴 조사 결과만 남기고 복토 한 후 조선시대 행궁 모습만을 되찾느냐 아니면 역사의 다층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인가가 현장관리자와 문화재 전문가간의 가장 큰 논제였다. 최종적으로 군창지터의 일부분만을 부분복원한 후 나머지 터는 복토하여 행궁을 재건하였다(그림 7). 베니스현장 11조에서도



출처: 2014년 9월 저자 촬영

〈그림 7〉 남한산성 행궁 내 통일신라 군창지



출처: 2013년 11월 저자 촬영

〈그림 6〉 원형 줄눈 성분 분석에 따른 양외 풍화실험(남한산성 동장대)



‘양식의 통일이 복원의 목적이 아니므로, 기념건조물의 건설에 기여한 모든 시대의 요소가 존중되어야 한다. 만일 한 건물 내에 여러 시대의 작업이 겹쳐있을 경우, 최초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제거할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나, 드러날 부분이 역사적, 고고학적, 미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졌을 경우, 그리고 보전 상태가 이러한 작업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양호한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라고 권고하였다. 이를 통해 남한산성 행궁 내 통일신라 군창지로 추정되는 유적으로 부분복원 사례는 현세에서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례 4: 현대적 보존 기법 활용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사례연구

베니스현장 12조에서는 ‘없어지거나 부분 훼손된 부분들이 복원될 때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남한산성은 성곽길이 약 12.3km에 달하고 일교차와 연간 기온과 습도차가 커서 성곽을 비롯한 문화유산 보존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남한산성 보존관리 사례 중 동장대터 인근에 위치한 12암문 복원 사례는 최근 이루어진 보수와 복원 행위가 손대지 않은 원형부분과 명확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그림 8). 무니에를 비롯한 세계유산전문가들 역시 이 12암문 보수·복원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선진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2000년 이상의 역사 흔적을 갖고 있는 이스



출처: 2015년 4월 저자 촬영

〈그림 8〉 세계유산 남한산성 12암문

라엘 마사다(Masada) 요새의 경우 1세기 로마군의 침입과 공격으로 요새기능이 사라지고 폐허로 남았다가, 20세기 후반에 인근 지역을 방문한 한 학자를 통해 재발견되었을 때 성벽과 요새 내 거주, 종교, 공공 시설 등을 비롯한 수많은 시설들이 허물어진 상태로 놓여있었다. 이를 이스라엘 당국은 무너진 원재료를 최대한 사용해 벽을 쌓아 올려 재건(anastylosis³³)하고, 이외 추가적으로 쌓아 올린 부분은 시작지점부터 인위적 줄을 그어 원형과 확연히 구분시켰다(그림 9).

포르투갈의 말바오(Marvao)는 산 정상위에 축조된 산성으로 성벽 복원 시 원형모르타르(줄눈) 성분 분석을 하여 고증한 후 붉은 벽돌과 함께 쌓아 올려 벽돌과 줄눈이 일체가 되어 견고하게 복원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말바오 산성의 다른 구간에서는 원형 성돌과 단시간 내 잘 점착되는 신형모르타르를 사용하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형모르타르의 점착력이 원형 성돌보다 강하고 미립자구조가 상이하여 실제로 두 재료가 일체화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즉 신형모르타르로 인해 원형 성돌의 표면이 박락(剝落)되는 현상을 주목할 수 있다(그림 10). 이러한 현상은 복원과 보수에 최고의 재료로 인정받던 시멘트 성분이 다량 함유된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일어난 현상으로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다양한분야에 걸쳐 문화재 보수재료로 활용되어 현재는 그 원형재료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역시 현장관리인과 보수, 복원 재료 제작자와의 사전 논의³⁴를 통해



출처: 2012년 3월 저자 촬영

〈그림 9〉 이스라엘 마사다 요새, 베니스현장에 따라 고고학 발굴을 통한 석벽 재조립사례(벽면 내 검정선을 기준: 하단-원형부분, 상단-재조립)

보존관리에 적합한 재료는 어떤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 이를 현장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외부 풍화에 따른 훼손도를 분석하여 어떤 보수 재료가 가장 적합한지를 찾아내어 부분 또는 전체복원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가 및 지방 지정문화재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으로 마련해 국제동향과 함께하는 현장 보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 중 로마제국국경(Limes) 내 잘부르크(Saalburg)에서는 성벽 여장의 잡석으로 축조된 내외벽과 내부 모래와 강회 그리고 간헐적으로 고대 로마에서 사용했던 붉은 벽돌 파편들



원(구)형모르타르(줄눈) 재사용사례 영구성이 강하며, 성돌과 일체가 됨

출처: 2012년 9월 저자 촬영



신형모르타르(줄눈) 사용사례: 접착력은 좋으나 원형성돌을 갉아 먹는 현상이 발생함

<그림 10> 포르투갈 말바오 산성 사례



독일 잘부르크 로마성채, 발굴된 전면부 군사시설물을 1800년대 초반의 황제 빌헬름2세 때 양식으로 부분재건하여 마감함



성벽의 하부 30cm정도(로마시대 발굴된 성벽), 그 위로 1800년대 초반의 황제 빌헬름2세 때의 양식을 따라 재건된 성벽



현시점에 개량된 줄눈재료를 가지고 재건한 로마양식의 벽

출처: 2011년 6월 저자 촬영



흰색과 붉은 색 줄눈을 통해 로마양식으로 부분 재건된 성벽

<그림 11> 독일 세계유산 리메스 내 잘부르크 보존현황

을 잘게 부수거나 갈아 혼합하여 벽을 재건하였다. 잘부르크의 남문 앞에도 창고와 참호를 비롯한 다양한 시설들이 발굴되었으며, 이 시설물의 일부 벽을 전체가 아닌 부분 재건하였다. 벽의 전체높이 그대로 재건하지 않고 일정 높이까지 재건한 후 벽의 상부는 잔디식재를 통해 마감하였다. 또한 과거의 원형재료가 더 이상 불안정하고 생산, 비용측면에서 비경제적일 때 원형재료 제조공법을 고증하고, 원형재료는 수장고에 보존처리 한 후 모르타르와 같은 향상된 현대 재료를 적용하여 성벽의 일부 구간 또는 일부만을 재건하고 있어,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는 또한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는 최선의 보존행위라 할 수 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경우 연주봉 옹성의 여장 보수에도 이와 같은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더불어 Wilhelm 2세 치세기인 1907년 고고학발굴을 통해 성벽하단부분에서 성벽에 칠해진 과거 회 성분을 발견하고, 관련 재료 성분 분석하여 지표면으로부터 30cm 이상 일부 구간 복원 후, 강회모르타르로 성벽의 위 부분만을 재건하여 과거에 성벽의 외관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이다(그림 11).

사례 5: 경관 회복, 경관 재건³⁵⁾

천재지변에 따른 경관회복, 전쟁 이후 경관 재건과 관련한 사례를 알아 본다. 예를 들어, 쓰나미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해안도시가 폐허가 되었을 때, 인간의 정주 환경 복구를 위해, 이전의 모습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재료와 형태, 기능을 고려해 유사한 도시기능을 부여하고, 도심, 건물, 가로를 조성하는데, 이런 경우 도시 회복(recovery) 또는 재건(rehabilit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



2차 세계대전 전, 1914
출처: M. Petzet, 2013, 73



2차 세계대전 후

<그림 12> 뮌스터 시의 프린치팔 시장(Prinzpal Markt in Munster)

한 사례는 일본 관서지방에 닥친 자연 재해 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우 2차 세계대전 후 뮌스터 시의 프린치팔 시장(Prinzpal Markt in Munster) 재건 사례도 있다. 시장 내 가로변 건물들은 전후에도 도시 내 중심가의 정체성은 도심 내 상징적 경관으로 해석되었고, 전후에도 도심 내 상업지구로 기능을 유지하였다. 다만 시장 내 가로변 건축물의 잔여 기반을 활용하여 과거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재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12).

사례 6: 상징경관과 수호경관 구성요소 재건

잘 알려진 사례로 1908년 갑작스러운 붕괴 후 재건된 이태리 베니스 산마르코 광장의 종탑을 들 수 있다. 이 종탑은 역사 광장의 앙상블로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구성요소였으므로 수호경관회복 차원에서 재건하였다(그림 13).

보존 철학과 별개로 이러한 재건은 지난 수세기, 수천 년간 이루어져 왔으므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잔재 중 사용가능한 재료의 선별사용은 종종 재건과 같은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프랑스 오텔레앙 대성당은 해당 사례 중 하나이다. 신교도 위그노파에 의해 파괴된 대성당은 17, 18세기에 고딕양식으로 재건했다. 이런 부류의 재건은 소위 학술적 근거에 따른 재건과는 다른 차원이다. 특히 국가와 도시 역사를 상징하는 기념물은 정치적 배경에 따라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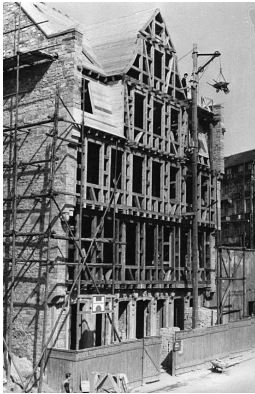


산마르코 종탑 붕괴 당시 모습, 베니스, 이태리, 1902
출처: M. Petzet, 2013, 22



재건 후 모습, 산마르코 종탑, 베니스, 이태리, 2010

<그림 13> 이태리 베니스 산마르코 종탑 재건



재건 당시 모습, 1949



재건 후 모습,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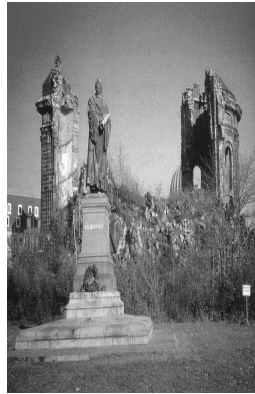
출처: M. Petzet, 2013, 75

〈그림 14〉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생가 재건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된 기념물을 재건한다. 물론, 재건은 건축물 유실 또는 인멸 후 역사성 회복을 위한 의지가 구현되면서 시작한다. 천재지변에 의해 완전 인멸된 후 재건된 구조물과, 대체할 수 없는 정도로 원형이 손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분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재건사례도 접할 수 있다. 특히 전쟁(戰爭) 후 남아있는 원형 잔재가 재건을 가능케 한다. 예를 들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생가처럼, 2차 세계대전 후 폐허속에 남아있는 원형 잔재분석을 통해 각 부재의 원위치를 고증하고, 전반적으로 신구조물의 형태를 띠며, 구 기능을 회복하는 사례도 있다(그림 14). 이와 같이 천재지변 후 구 유적지 기초위에 남아 있는 기념물 잔재 뿐 아니라 다양한 유물들, 장식물은 재건 시 최대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례 7: 독일 드레스덴 성모마리아 교회 재건

2차 세계대전 후 이루어진 유럽 재건 역사에서 근대건축 기술의 도움으로 파괴 전 건축물의 재료와 형태와 일치하는 진정성 있는 재건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다수의 재건된 기념물들이 진정성을 갖춘 기념물로서 문화유산목록에 수록되어 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전쟁 전 이미 부분 또는 전체가 유실된 원형을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건기에 이루어져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들도 더러 있다. 폐허가 된 수많은 기념물 재건의 방법론을 논하는 것은 수세기 동안 풍화를 통해 훼손된 사례들을 재건하는 것과는 별개 차원이다. 천재지변 후 유사환경



성모교회 2차 세계대전 후 모습, 1945



성모교회 2차 세계대전 후 재건된 모습, 2004

출처: M. Petzet, 2013, 76

〈그림 15〉 독일 드레스덴 성모교회 전 후 모습

을 재조성하고, 사용가능한 재료들을 재조합하여 재건하려는 의도가 상존한다. 전쟁 직후 재건 뿐 아니라, 다양한 근거로 수십 년 간에 걸쳐 진행된 재건 프로젝트로 독일 드레스덴 성모교회가 있다(그림 15). 순수한 보존차원을 넘어 재건하려는 의지 이면에 기념물의 손실에 중지부를 찍으려는 데 재건의도가 있다.³⁶⁾ 또한 재건 시 영국켄트공작으로부터 기증받아 세워진 교회 정상부첨탑은 양국 간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의 장을 펴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재건을 위한 세부조치와 관련 ‘진정성 충족’에 따른 기념물의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베니스헌장 전문과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에도 명시 되어있다. 종종 역사구조물 뿐 아니라, 형태로부터 정신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들도 진정성을 충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념물을 ‘유물론적’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원형재료송배자는 역사적 관점에 입각해 원형 구조의 지속적 훼손만을 주시하게 된다. 다만 기념물의 가장 최근 상태 보존을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해야 한다.³⁷⁾

이를 위해 훼손된 문화유산 그 자체만을 보존하고, 더 이상 외기에 노출되어 훼손되지 않도록 또는 훼손 정도를 늦추는 보강 조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천재지변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지역에서 발굴된 과거의 모습을 인지할 수 있는 잔존유물을 토

대로 그리고 유실된 역사건축물 이상을 포함한 재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역시 베니스 현장 정선에 따른 재건이라 할 수 있을 지와 이와 관련 진정성과 완전성은 어떻게 논의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7. 맺음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등재유산 소유국의 큰 자랑거리이자 명예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명예는 부적절한 관리와 개발로 인해 유산이 가진 진정성과 완전성을 잃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유산적 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유산등재에 상응하는 보존관리의 책임 또한 부여된다. 이를 위해 해당 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가치를 반영하는 구성요소를 잘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보존원칙에 대한 이해와 이를 여러 방식으로 현장에 적용해야 함은 세계유산 현장관리인 뿐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 모두의 당면과제이다. 지금까지 문화유산 보존원칙 중 복원과 재건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하였다. 앞으로 세계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유형별 보존관리에 대한 정확한 용어 사용을 하고 국제동향에 따른 세계유산 보존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국가만도 191개이며,³⁸⁾ 국제협약 또는 현장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관리 및 세계유산을 등재하려는 움직임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 문화유산분야에서 보존원칙은 다양한 범주에 적용되는 데, 건축유산, 건축군, 역사마을, 역사도시, 고고유산, 해양유산, 연속유산, 문화로, 문화경관 등으로 그 범주가 다양해지고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유형유산과 함께 기능적으로 완전성을 이루는 무형유산 분야에도 적용된다. 이제는 이러한 개념을 국내 문화유산 및 세계유산보존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다양한 실무현장에 명확하게 적용하여, 용어 사용 및 보존관리에 일관성을 확립해야 한다. 국제동향에 따른 보존원칙을 준수하면서 세계유산 보존관리 모니터링에 대비하고, 각 국가 및 지방지정문화재 정비계획 수립 시 이러한 보존원칙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이에 따른 실행계획이 수

립되어야 한다.

주

- 1)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로 공식적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중 문화유산에 대한 자문기구이다.
- 2)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국제자연보존연맹
- 3) ICCRO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 4) 원문참조: <http://www.icomos.org/en/charters-and-texts>;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The Venice Charter) - 1964
- 5) 원문참조: <http://www.icomos.org/en/charters-and-texts>;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994)
- 6) 기념물 및 유적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최초의 국제현상은 베니스현장이다. 1964년에 베니스에서 최초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지명을 빌어 베니스현장이라 하고 있다.
- 7)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는 1964년 작성된 베니스 현장에 기초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견해차를 좁히고자 1994년 일본 나라에서 문화유산 국제전문가들을 통해 작성되었고, 특히 세계유산등재 조건 중 진정성, 완전성, 보호, 보존관리 사항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진정성(Authenticity)에 관한 방향을 제공하는 문서이다.
- 8)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2013, <http://whc.unesco.org/en/guidelines>, p.3. para. 12; stakeholders, including site managers,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local communiti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and partners in the identification, nomination and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당사국을 비롯한, 유산보호/보호지역기관, 비정부기구, 지방 정부, 지역공동체, 단체, 개인, 세계유산등재신청 개발 관련 훈련 워크숍 및 교육과정 운영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 9) Michael Petzet: 전 이코모스 위원장(임기 1999-2008).
- 10) M. Petzet, 2009, pp.13-15.
- 11) M. Petzet, 2013, p.47.
- 12) ibid.
- 13) 세계유산 운영지침, 2013, §86.
- 14) M. Petzet, 2013, p.80.
- 15) ibid.
- 16) ibid.

- 17) HISTORIC GARDENS(THE FLORENCE CHARTER 1981), 역사정원현장, 이코모스 현장집, 이코모스 한국 위원회, 2010, pp.31-33.
- 18) CHARTER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1990), 고고유산의 보호와 관리 현장, 이코모스 현장집,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0, p.48.
- 19)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TIMBER STRUCTURES(1999), 역사적 목구조물의 보존 원칙, 이코모스 현장집, 이코모스 한국 위원회, 2010, p.80.
- 20) ibid.
- 21) 이세신궁은 새로 개축한 신전으로 ‘신체(神體)’를 옮기는 의식인 ‘식년천궁(式年遷宮)’을 20년마다 연다. 식년천궁은 신전을 새로 지은 뒤 구 신전의 신체를 새 신전으로 옮기는 의식이다.
- 22) ICOMOS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RESTORATION OF WALL PAINTINGS(2003), 벽화 보존과 보존-복원의 이코모스 원칙, 이코모스 현장집, 2010, p.129.
- 23) 경기도 조례에 의해 2015. 1. 5.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개칭됨.
- 24) 실제 남한산성 세계유산 신청에 대한 이코모스 전문가 현장 실사는 2014년도 9월 이코모스 인도위원회 구르밋 상가 라이를 통해 이루어졌다.
- 25) Mounir Bouchenaki, 전 이크롬 사무총장(2006-2011), 남한산성 2013년 5월 방문.
- 26) 저자 번역, 출처: 세계유산센터, <http://whc.unesco.org/en/list/1439/documents>, Advisory body Evaluation, Justification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2014, p.187.
- 27) 수원화성의 경우 ‘수원성곽복원정화사업’이 1975년부터 1979년까지 4년여 동안 실시되었고, 상당부분 유실된 유적은 화성성역의궤의 원형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근거하여 재건되었다.
- 28) 저자 번역, ibid.
- 29) 2014년 4월 이코모스를 통해 세계유산센터에 전달된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관련 평가서.
- 30) 세계유산센터, <http://whc.unesco.org/en/list/1439/documents>; advisory body evaluation, 5. Protect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190.
- 31) 임권웅, 남한산성 봉암성, 한봉성 여장보존 관리방안 연구, 중앙문화유산보존센터, 2011-2012.
- 32) 남한산성은 동양에서 전통적인 중국의 도시 건설 모형인 ‘주례동관고공기’의 ‘좌묘우사 전조후시’의 원칙에 따르면서도 비대칭적으로 지형에 따라 동향으로 궁궐을 배치한 고유한 도시 계획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33) Anastylisis는 고대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다시 세우다’라는 의미로 특히 베니스현장 15조에서는 발굴현장에서 박락(剝落)된 재료들을 통해 재조립 또는 재건할 수 있다고 하나, 추측에 의한 재건은 금(禁)하고 있다.
- 34)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있어 현장 보존관리를 진행하기 이전에 해당 현장관리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사전 회의(Upstream process)를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35) 경관회복(景觀回復, Landscape recovery), 경관재건(景觀再建, Landscape rehabilitation).
- 36) ibid.
- 37) ibid.
- 38) 세계유산센터 <http://whc.unesco.org/en/statesparties/>

문 헌

최재현, 차은혜, 2012, “산성도시 남한산성의 도시 기능성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1), 47-59.

최재현, 이혜은, 2013, “세계유산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 산성도시 남한산성의 경관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1), 1-17.

조두원, 2015,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관리에 있어 ‘매개자’에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1), 71-83.

Henrichsen C., 2002, Technology: The Workshops at the Grand Shrine of Ise, Detail 10/2002, 1282-1295.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86. (<http://whc.unesco.org/en/guidelines>)

Petzet, M., 2009, *International Principles of Preservation, in: The Venice Charter-Half a Century Later*, Paris, 13-15.

Petzet, M., 2013, *MONUMENTA II, in: Conservation of Monuments and Sites - International Principles in Theory and Practice, Chapter VII. Reconstruction, Rebuilding and Relocation*, Berlin, 70-83.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0, 이코모스 현장 선언문집, International Cultural Tourism Charter: Managing Tourism at Places of Heritage Significance, 60-71.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Garrison Border Town of Elvas and its Fortifications(<http://whc.unesco.org/en/list/1367/document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Namhansanseong, (<http://whc.unesco.org/en/list/1439/documents>); Nomination file, Appendix 1, 79.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Namhansanseong,
(<http://whc.unesco.org/en/list/1439/documents>);
advisory body evaluation, 5. Protect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190.

교신: 조두원, 12700,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 731, 남한
산성세계유산센터
(e-mail: doowon-cho@hanmail.net)

Correspondence: Doo Won Cho, Namhansanseong World Heritage
Centre, #731, Namhansanseong-ro, Jungbu-myeon, Gwangju-si,
Gyeonggi-do, Korea 12700
(e-mail: doowon-cho@hanmail.net)

투 고 일: 2015년 6월 30일

심사완료일: 2015년 7월 13일

투고확정일: 2015년 7월 20일

세계유산연구소 및 세계유산학과 소식 (2014. 7. ~ 2015. 12.)

- 2014년 8월 20일(수) 오후 5시 과학관 211호에서 신입생 OT 실시
- 2014년 9월 1일 최재현 교수 대학원 세계유산(학과간) 학과 주임교수 발령 위촉
- 내부겸임교수로 김기덕, 김숙진, 박종관, 송기형, 유동환, 이상헌, 한상도, 홍현철 교수 위촉
- 홈페이지 운영 (<http://kuwh.konkuk.ac.kr>)
- 2014년 9월 1일 오후2-3시 상허연구관 425호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Institute) Kishor Rao 소장 특강 개최, 제목: World Heritage; Challenge and Future
- 2014년 10월 31일 건국대 총장이 최재현 교수를 KU국제개발협력원 세계유산연구소장으로 위촉, 연구소 발족
- 2014년 12월 27일 World Heritage Institute of Training and Research for the Asia and 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Shanghai Center(WHITRAP) (Director, Dr. Zhou, Jian)과 MOU 체결

- 2015년 3월 1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조두원 박사 외부겸임교수 발령
- 2015년 3월 12-13일 세계유산학과 및 연구소 마곡사 연수 실시
- 2015년 5월 16일 세계유산학과 한양도성박물관 및 한양도성 일대 답사
- 세계유산학 전공 대학원생 입학
 - 2014년 후기: 김향림, 김귀배, 공성현, 조아라, 정재윤, 김한규, 김지은
 - 2015년 전기: 조유진, 김수정, 임권웅, 안승호
 - 2015년 후기: 오세화, 오소미
 - 2016년 전기: 민선홍, 정하나



• 2016년부터 운영하는 개편 세계유산 교육과정

▶ 세계유산학과(학과간 학과) 교과과정 로드맵

전공분야	세계유산 (세계유산보존, 세계유산활용 전공)
졸업요건	학기등록, 학점취득, 종합시험통과, 학위논문 통과



2014년 2학기 ~ 2015년 2학기 개설교과목

년도 학기	교과목 명	담당교수
2014년 2학기	문화관광론	홍현철
	현장연구세미나	박종관
	세계유산입문	최재현
	세계유산지리학	김숙진
	세계유산건축학	조두원
2015년 1학기	세계유산세미나	최재현
	문화관광세미나	홍현철
	지속가능발전론	박종관
	세계유산지리	김숙진
	보존이론	조두원
2015년 2학기	종교학세미나	최재현
	문화유산론	송기형
	세계유산활용입문	홍현철
	보존관리계획론	조두원
	역사건축세미나	이상현

•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journalworldheritag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세계유산연구소 학술지 편집 규정

제1장 총 칙

- 제 1조 (명칭) 본 규정은 ‘세계유산연구소 학술지 편집 규정’이라 한다.
- 제 2조 (목적) 본 규정은 ‘세계유산연구소’가 발행하는 ‘세계유산연구(Journal of World Heritage)’(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 제 3조 (설치)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 4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 5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등 학술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제 6조 (회의)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투 고

- 제 7조 (투고자의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세계유산연구소 연구원에 한한다. 단, 세계유산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만한 논문의 경우에는 비회원일지라도 투고할 수 있다.
- 제 8조 (투고의 종류 및 양)
- ① 투고의 종류는 세계유산학 분야의 논문, 단보, 자료, 비평, 서평 등으로 한다.
가. 논문: 창의적 연구결과,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동향·전망을 학술 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
나. 단보: 논문의 내용에 준하는 연구의

중간 보고적 성격을 띤 것.

- 다. 자료: 학계에 소개할 가치가 있는 조사기록, 통계, 지도 등의 자료
- 라. 비평: 저서, 논문, 단보, 서평 등의 내용에 대한 학술적인 비평 및 논평
- 마. 서평: 국내외의 신간 서적에 대한 소개 및 논평
- ②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③ 논문은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용지(210*297mm)로 국문 10매(영문 12매) 내외, 단보·자료·비평은 5매 내외, 서평은 2매를 기준으로 한다. (글자체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60%로 하고, 용지여백은 위 20mm, 머리말 15mm,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15mm, 아래쪽과 꼬리말은 각각 15mm로 한다.)
- 제 9조 (투고일) 투고마감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투고된 원고가 많을 때는 투고된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순연하여 게재한다.
- 제10조 (원고 집필 요령)
- ① 논문은 표지(제목, 저자), 요약문, 본문, 주, 참고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단보의 경우는 요약문과 주를 첨부할 수 있다.
 - ② 투고되는 모든 논문, 단보, 자료, 비평, 서평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제목과 저자명, 저자의 소속기관명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고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필자의 소속 앞에 기재하도록 한다.
 - ③ 국문논문의 경우,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작성한다.
 - ④ 모든 논문은 400자 내외의 요약문(abstract)과 200단어 내외의 영문 abstract, 그리고 5개 내외의 주요어(key words)를 첫 페이지

지에 첨부한다.

- ⑤ 학술용어, 인명 및 지명의 국문용어 뒤에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용어에 한하여 ()속에 넣는다.
- ⑥ 항목의 순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1)

(1)

①

- ⑦ 주는 해당하는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본문 다음에 별도로 일괄 작성한다.
- ⑧ 본문 중의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한 쪽수(page)를 밝힐 수 있다.

가. 단독연구: 최재현(2006)에 의하면..., 이혜은(2011)에 의하면..., 이들 연구(최재현, 2006; 이혜은, 2011)에 의하면..., ...라는 견해도 있다(Lowenthal, 1979; Hannabuss, 1999)

나. 공동연구: 최재현 · 이혜은(2013)은 ..., Thorsell and Sigaty(2001)은 ... [2명의 경우], 강동진 등(2013)은 ..., Robins et al.(2000)은 ...[3명 이상의 경우]

- ⑨ 참고문헌은 주와 같이 일괄 작성하여 제출하며,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참고문헌의 나열은 국문문헌, 일본어 문헌 · 중국어문헌, 구문(歐文)문헌, internet web자료의 순으로 하며, 국문과 일본어 · 중국어 문헌은 저자의 한글 자모음(字母音) 순으로 하고, 구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국내고문헌은 국문문헌의 말미에 오도록 한다.

나.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 연대 뒤에 a, b, c ...를 기입한다.

다. 공동저자의 경우에는 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라도 모든 저자를 열거한다.

라. 그 밖의 참고문헌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저 서]

문화재청편집부, 2007, 한국의 세계유산, 놀와, 서울.
조윤승 · 정주년 · 신용달, 2011, (읽고 찾아가는 101) 세계유산, 신달, 서울.

Pedersen, A. 2002, *Managing Tourism at World Heritage Sites: A Practical Manual for World Heritage Site Managers*. Paris: UNESCO.

Pearson, M. and Sullivan, S. 1995, *Looking After Heritage Places*.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ublishing.

Robinson, M., Evans, N., Long, P., Sharpley, R. and Swabrookes, J.(eds), 2000, *Tourism and Heritage Relationships: Global, National and Local Perspectives*. Sunderland: Centre for Travel and Tourism in association with Business Education Publishers.

[논 문]

이혜은, 2013, “모더니즘의 대표적 도시, 세계유산 브라질리아의 명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 1-11.

Rodwell, D, 2004,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the exemplary management of complex heritage sites. *Journal of Architectural Conservation*, 3, 40-60.

[참고문헌]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매뉴얼(2005).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이코모스 현장 선언문집(2010).

[보고서]

남한산문화관광사업단, 2012, 남한산성 무형문화유산 학술연구보고서.

[번역서]

조행복(역), 2013, 세계유산: 인류를 위한 혜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UNESCO, 2012, *World Heritage: Benefits Beyond Borders*, France, UK).

⑩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의 결론 다음에 오도록 한다.

⑪ 투고되는 모든 논문, 단보, 자료, 비평, 서평에는 영문으로 제목과 저자명을 밝혀야 한다.

⑫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 대한

기재 내용은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Corresponding author: Gil-Dong Hong,
Department of Geography,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143-701, Korea
Phone: +82-2-450-3380, Fax: +82-2-3436-5433
E-mail: kdhong@konkuk.ac.kr

제11조 (그림과 표의 작성)

- ① 그림(지도, 사진 및 도표)은 그대로 축소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② 그림(Figure)과 표(Table)의 일련번호는 그림 또는 표 1, 2, 3, ...으로 하며 그 제목과 설명은 국문 판의 경우에도 구문으로 할 수 있다.
- ③ 그림과 표의 크기는 저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④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그 하단에, 표의 제목은 그 상단에 왼쪽 정렬로 기재한다. 표의 경우 자료의 출처는 하단에 기재한다.
- ⑤ 그림과 표의 게재 위치는 필자가 해당 원고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한다.

제12조 (원고 제출 등)

- ① 논문과 단보(표, 그림 포함)는 원본과 사본 2부를 포함하여 총 3부를, 자료와 비평 및 서평은 원본과 사본 1부를 포함하여 총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논문과 단보를 제외한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나 내용상의 오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채택되지 않은 원고의 원본은 반환한다.
- ⑤ 인쇄시 초고는 필자가, 재고 이후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⑥ 인쇄된 분량이 국문판의 경우 10쪽, 영문판의 경우 12쪽을 초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수 인쇄를 할 경우에도 추가되는 경비를 필자가 부담한다.

- ⑦ 별쇄는 필자의 요청에 따라 20부 단위로 제공하며, 그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 ⑧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13조 (논문심사평가서)

- ① 학술지에 게재하려는 논문과 단보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심사 결과는(별지 서식)의 ‘논문심사평가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4조 (심사 절차)

- ① 1차 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2인을 위촉, 논문을 심사한다.
- ② 2차 심사: 1차 심사 결과 2인의 심사 내용이 상반될 경우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1인을 새로 위촉하여 2차 심사를 실시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심사위원 선정)

- ① 심사위원은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 ② 1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상임심사위원(편집위원)에게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심사 기준과 판정)

- 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참신성
 - 나. 내용과 연구방법의 타당성
 - 다. 논리 전개 및 논문구성의 충실성
 - 라. 연구결과의 기여도
 - 마. 문장표현 및 편집상의 요건
- ② 심사 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특히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심사의 익명성)

- ① 논문 및 단보의 심사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필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8조 (심사비)

- ① 논문이나 단보를 투고한 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를 의뢰할 때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한다.

제19조 (심사 결과의 처리)

-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논문 심사평가서)가 사본을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②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수정 완료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1차 심사 후 '논문심사결과처리표'의 기준에 의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④ '수정 후 재심'은 1회에 한하여 재심하며, 재심 결과의 '수정 후 재심'은 '게재 불가'로 간주한다.
- ⑤ 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논문심사결과처리표

1차심사		2차심사 또는 재심	게재 여부 판정
1차심사 결과(1)	1차심사 결과(2)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심사 생략	(수정 후) 게재 함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함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함
		수정 후 재심	게재하지 않음
	게재 불가	게재하지 않음	게재하지 않음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재심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재심 결과에 '게재 불가'나 '수정 후 재심'이 있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음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심사 생략	게재하지 않음

부 칙

- 1. 본 규정은 2015년 6월부터 적용한다.
- 2.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세계유산연구 투고 신청서

세계유산연구소

성 명	한 글	(한 문)	접수 일자	년 월 일
	영 문			
소 속				직위
연 락 처	주 소			
	전화번호		팩스	
	E-mail			
제 목	한 글			
	영 문			
원고종류	논문, 단보, 자료, 비평, 서평			
원고매수	본문 ()매, 별도 제출시 그림 ()매, 표 ()매	희망 별쇄부수	()부	
발표여부	학술대회명: 발표장소:	일자: 20 년 월 일		
* 편집에 대한 요망사항				

공 동 투고자	성 명	한 글			
		영 문			
	연락처	직 장			
		직 위			
		전화번호			
		이 메 일			

• 투고 신청서와 논문은 journalworldheritage@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